

## 순창 · 임실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 【결정사안】

1948년 12월부터 1949년 3월 사이 그리고 한국전쟁기인 1950년 11월부터 1951년 5월 사이에 전라북도 임실군에서 국군 제11사단과 제8사단 및 임실경찰서 경찰이 임실지역 주민 120여 명과 순창군 주민 1명을 좌익 및 부역혐의 등으로 임의 처형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20건)하였고, 또 전라북도 순창군 주민 3명과 임실군 주민 6명에 대해서는 한국전쟁기간 중 군경의 불법적인 공권력행사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술이나 자료가 없어 진실규명불능(6건)으로 판단한 사례.

### 【결정요지】

1. 박훈 등 115명의 전라북도 임실군 주민들은 1948년 12월부터 1949년 3월 사이 또 1950년 11월부터 1951년 5월 사이에 국군 제11사단과 제8사단 및 임실경찰서 소속의 경찰과 경찰의 지휘 · 감독 아래 있던 우익단체에 의해 좌익 및 부역혐의자 혹은 그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살해되었다. 임실경찰은 ‘2·7사건’과 여순사건이 발생한 이후 1948년 관내의 좌익 색출 · 처벌을 강화하여 청웅면 석두리와 남산리 주민 20여 명을 포함한 다수의 좌익 관련자들을 임실경찰서로 연행한 후 집단 사살하였고, 한국전쟁 시기에는 임실군에 주둔한 국군 제11사단 제13연대와 임실경찰이 함께 청웅면 남산리(강진면 부흥리)의 폐금광에서 인근 마을의 피난민들을 분화(焚火) 작전으로 질식사시켰으며, 국군 제11사단에 배속된 국군 제2경비대대는 성수면 지서에 자수한 좌익 및 부역혐의자들을 빨치산에 협조한다는 이유로 성수면 왕방리에서 총살하였다. 그리고 국군 제8사단 수색대대는 자수한 빨치산을 앞세워 운암면 학암리에서 부역혐의자를 체포하여 임실을 오정리에서 처형하였고, 신덕면 월성리에서는 인민군 점령기에 좌익에게 피해를 당한 치안대원들이 수복 후 마을의 좌익 및 부역혐의자 10여 명을 총살하기도 하였다.

2. 조사결과 사망사실이 확인 · 추정된 희생자는 116명인데 이 중 진실규명 신청된 사람은 64명이고, 신청되지 않았지만 조사결과 희생사실이 확인 · 추정된 사람은 52명이다.

3.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국군 제11사단 제13연대와 제2경비대대 그리고 국군 제8사단 수색대대, 임실경찰서 소속의 경찰과 경찰의 지휘 · 감독을 받았던 치안대 및 향토방위대

## 제 4 권

로 확인되었다.

4. 이 사건이 비록 좌우의 대립이 극심한 시기 및 전시 상황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국가기관인 군경이 적법한 절차 없이 생업에 종사하던 민간인들을 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원칙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였다.

5. 진실화해위원회는 또 순창군 주민 3명과 임실군 주민 6명 등 총 9명이 한국전쟁 기간 중 사망 혹은 행방불명되었다는 사건을 조사하였으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술이나 자료가 없어 진실규명불능으로 판단하였다.

### 【전 문】

【사 건】 다-228호 외 25건, 순창·임실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신청인】 박탁 외 20명

【결정일】 2010. 4. 13.

### 【주 문】

- 다-228호 외 19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진실규명’으로 결정한다.

- 다-582호 외 5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진실규명불능’으로 결정한다.

### 【이 유】

## I. 조사개요

### 1. 사건개요

#### 가. 신청서 접수

신청인 박탁(다-228호) 외 20명은 2005년 12월 20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 1948년부터 한국전쟁 시기까지 전

라북도 순창군·임실군 일원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에 대해 '전북지역 군경 토벌작전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sup>1)</sup>과 '전북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sup>2)</sup>으로 조사개시 결정을 하였다.

신청인들이 제출한 사건 중 순창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은 모두 84건이나 사건번호 다-96호 외 68건은 이미 2008년 12월 24일 제89차 전원위원회에서 「순창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진실규명 결정하여 모두 129명의 희생자를 확인하였고,<sup>3)</sup> 다-5450호 외 1건은 2010년 3월 2일 제104차 제2소위원회에서 각하 결정하였으며,<sup>4)</sup> 금번 조사에서는 보완조사가 필요했던 나머지 13건 중 진실규명대상자가 교전 중 사망하여 각하 사건으로 판단되는 9건<sup>5)</sup>을 제외한 4건을 조사하였다.

임실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경우 모두 23건이나 금번 조사에서는 진실규명대상자가 교전 중 사망하여 각하 사건으로 판단되는 1건<sup>6)</sup>을 제외한 22건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신청사건 수는 총 26건이며, 중복된 신청인을 제외하면 신청인은 21명이다.<sup>7)</sup> 신청서 접수상황은 <표 1>과 같다.

- 
- 1) 진실화해위원회 집단희생규명위원회는 2007년 1월 23일 제25차 회의를 열어 '전북지역 군경 토벌작전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을 조사개시 의결하였다.
  - 2) 진실화해위원회 집단희생규명위원회는 2007년 2월 28일 제30차 회의를 열어 '전북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을 조사개시 의결하였다.
  - 3) 진실화해위원회는 또 2009년 12월 29일 제119차 전원위원회에서 사건번호 마-417호 외 20건의 「순창지역 적대세력 사건」을 진실규명 결정하여 모두 43명의 희생자와 2명의 강제연행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편 임실지역의 경우 2009년 6월 15일 제102차 전원위원회에서 사건번호 마-331호 외 20건의 「임실지역 적대세력 사건」을 진실규명 결정하여 모두 65명의 희생자를 확인하였다.
  - 4) 사건번호는 다-5450호, 다-8897호이다.
  - 5) 사건번호는 다-5395호, 다-5474호, 다-8873호, 다-8874호, 다-8878호, 다-8884호, 다-8892호, 다-8893호, 다-9805호이다.
  - 6) 사건번호는 다-7699호이다.
  - 7) 다-228호(진실규명대상자 박훈, 1948년 사건)의 신청인 박탁(1944년생)은 그밖에 다-10022호(진실규명대상자 박완, 1951년 사건)와 다-10023호(진실규명대상자 정인택·정학석, 1951년 사건)도 신청하였고, 다-269호(진실규명대상자 박세열, 1948년 사건)의 신청인 박봉자(1940년생)는 그밖에 다-8079호(진실규명대상자 구복순, 1951년 사건)도 신청하였다. 또 다-7700호와 다-10181호는 다수의 진실규명대상자 중 일부 진실규명불능 대상을 각각 다-7700(1)호와 다-10181(1)호로 분리하였다.

## 제 4 권

〈표 1〉 신청서 접수 상황<sup>9)</sup>

연번	사건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한자명)	진실규명대상자				
				이름 (한자명)	성별	당시 나이	신청인과의 관계	사망월일
순창군								
1	582	2006.01.09.	박창윤(朴昌允)	박창휴(朴昌休)	남	21	형	1949.10.
2	4115	2006.07.04.	양병호(楊秉浩)	양관영(楊寬泳)	남	28	숙부	1949.10.
3	7930	2006.11.27.	박경자(朴慶子)	이씨(李氏)	여	81	백모	1951.08.13.
4	8864	2006.11.30.	김희곤(金熙坤)	정씨(鄭氏)	여	79	조모	1951.04.24.
소계		4건		4명				
임실군								
1	228	2005.12.20.	박탁(朴鐸)	박훈(朴熏)	남	30	부	1948.12.
2	269	2005.12.22.	박봉자(朴峯子)	박세열(朴世烈)	남	36	부	1948.12.
3	7700	2006.11.24.	김성남(金成男)	김막동(金莫同)	남	29	주민	1950.12.31.
				김종만(金鍾万)		31		1951.02.
				김해성		20대		1950.12.31.
				이수복		불상		1950.12.31.
				최창실		20대		1951.03.30.
				하태학(河泰鶴)		22		1950.11~12.
				홍범순(洪範淳)		61		1950.12.31.
				홍영표(洪永杓)		32		1951.01.23.
				홍의표(洪義杓)		28		1951.03.30.
				황소봉(黃小鳳)		43		1950.12.31.
				황중규(黃中奎)		30		1950.12.31.
				황현규(黃顯奎)		25		1950.12.31.
4	8079	2006.11.29.	박봉자(朴峯子)	구복순(具福順)	여	32	모	1951.03.18.
5	8760	2006.11.30.	박병호(朴炳鎬)	박완식(朴完植)	남	24	부	1950.12.07.
6	9032	2006.11.30.	최연남(崔連南)	최재의(崔在儀)	남	38	부	1950.11.07.

##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1)

연번	사건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한자명)	진실규명대상자				
				이름 (한자명)	성별	당시 나이	신청인과의 관계	사망월일
7	10008	2006.11.30.	곽준상(郭俊相)	곽동섭(郭棟燮)	남	45	부	1951.05.01.
8	10009	2006.11.30.	김용주(金龍柱)	김학식(金學植)	남	45	부	1951.05.01.
9	10010	2006.11.30.	송병섭(宋炳燮)	송주동(宋柱東) 외 71명	남	35	부 주민	1951.03.20.
10	10011	2006.11.30.	백점이(白点伊)	백길동(白吉同)	남	21	부	1948.12.25.
				이영자(李英子)	여	23	모	1951.04.07.
				백점자(白点子)	여	4	매	1951.04.07.
11	10012	2006.11.30.	전홍열(全洪烈)	전상옥(全相玉)	남	39	부	1948.12.25.
12	10014	2006.11.30.	전상윤(全相潤)	전용순(全龍淳)	남	36	부	1948.12.25.
13	10017	2006.11.30.	김규식(金圭植)	김정목(金正穆)	남	32	부	1951.04.27.
14	10022	2006.11.30.	박탁(朴鐸)	박완(朴完)	남	16	삼촌	1951.03.14.
15	10023	2006.11.30.	박탁(朴鐸)	정인택(鄭寅宅)	남	20	외숙부	1951.03.14.
				정학석(鄭學錫)	남	70	외조부	1951.03~12.
16	10179	2006.11.30.	전상호(全相浩)	전태순(全兌淳)	남	45	부	1951.03.27.
				전상수(全相守)	남	25	형	1951.03.14.
				전정애(全貞愛)	여	21	누나	1951.03.27.
				전상구(全相玖)	남	18	형	1951.03.14.
				전상옥(全相沃)	남	15	형	1951.03.14.
17	10180	2006.11.30.	정일모(鄭一謨)	정재옥(鄭在玉)	남	28	부	1951.03.27.
18	10181	2006.11.30.	전상하(全相夏)	전창순(全彰淳)	남	41	부	1951.03.14.
19	10182	2006.11.30.	전기열(全璣烈)	전상우(全相佑)	남	37	부	1949.03~
				전상현(全相鉉)	남	33	숙부	04. 1948.12.25.
20	10183	2006.11.30.	박홍길(朴泓吉)	박홍철(朴泓喆)	남	36	형	1951.03.14.
				박홍복(朴泓福)	남	33	형	1951.03.14.
				이점성(李占性)	여	20	형수	1951.03.14.
				박홍순(朴泓順)	여	26	누나	1951.03.27.
				박윤식(朴閔植)	남	5	조카	1951.03.14.
21	7700(1)	2006.11.24.	김성남(金成男)	엄수동 홍정표(洪正杓)	남 남	20대 22	주민	1950.11. 1951.01.
22	10181(1)	2006.11.30.	전상하(全相夏)	전상순(全庠淳) 전기순(全起淳)	남 남	33 19	숙부 삼촌	1951.3.14.
소계		22건		47+71(118)명 <sup>8)</sup>				
총계		26건		51+71(122)명				

8) 다-10010호의 신청인 송병섭은 유족 태재춘·노지홍·심학순·송완섭·최춘섭·송해섭·정인영 등을 대

## 나. 신청인의 주장

사건 신청인(박탁 외 20명)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949년 10월 순창경찰서 경찰은 순창군의 좌익세력을 검거하여 팔덕면 덕천리 히여태 재에서 총살하였고, 한국전쟁 시기인 1951년 4월과 8월 국군은 순창군 구림면과 쌍치면에서 민간인을 사살하였다.

또 임실경찰서 경찰은 1948년 12월부터 1949년 3월 사이에 임실군의 좌익운동가와 그 협력자를 수배·검거하여 적법절차 없이 총살하였고, 한국전쟁발발 후 인민군 점령기가 지난 1950년 11월부터 1951년 5월까지 임실군의 민간인 다수가 좌익 및 부역혐의 등으로 적법절차 없이 경찰과 향토방위대, 그리고 국군 제11사단과 제8사단에게 살해되었는데, 그중 청웅면 남산리에서는 폐금광에 피신해 있던 민간인들이 군경의 분화(焚火)작전에 질식사하거나 총살당했으며, 성수면에서는 부역행위를 자수하여 지서에 수감되었던 주민들이 빨치산에게 패퇴한 속칭 ‘백골부대’ 군인에게 끌려가 그 화풀이로 집단총살당하기도 하였다.

##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조사개시 결정을 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희생자 수와 희생자 신원, 희생이유, 사건배경과 가해주체, 가해의 지휘·명령체계 및 위법 여부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 3. 규명과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각 사건의 실재 여부, 구체적인 희생경위, 희생자 수와 희생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가해주체로 거론되는 경찰 및 국군의 소속과 지휘·명령체계, 그리고 사건발생의 정황과 가해의 위법 여부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이 경찰과 국군에 의해 발생한 불법적인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

표하여 사건을 신청했는데, 신청서에는 진실규명대상자가 ‘송주동 외 71명’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송주동을 제외한 다른 진실규명대상자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았다.

9) 호적상의 나이와 실제 나이가 다른 경우 실제 나이를 기재하였다.

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도 규명하고자 하였다.

## 4. 조사방법

### 가.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 7월 24일부터 2009년 12월 30일까지 이 사건의 신청인 21명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신청인 조사를 통해 사건의 경위, 발생일자, 희생자 수, 희생이유, 가해주체, 시신수습 여부, 희생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첨부자료 <별표 1> 신청인 주요 진술내용과 같다.

또한 2007년 7월 17일부터 2010년 9월 2일까지 사건을 목격하였거나 전문(傳聞)으로 사건을 알게 된 피해관련 참고인 57명을 조사하였는데, 이들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목격사실, 가해주체 그리고 희생자 명단 등을 파악하였다. 또 가해부대를 추정하기 위해 사건 당시 순창경찰서와 임실경찰서 및 관내 각 지서에서 근무했던 경찰, 의경 및 향방대원 그리고 국군 제11사단 13연대 소속으로 참전했던 학도병 등 군경관련 참고인 15명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첨부자료 <별표 2> 피해관련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첨부자료 <별표 3> 군경관련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과 같다.

### 나. 자료 조사

이 사건의 조사를 위해 진실화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조사하였다.

○ 「한국경찰대 일일보고서」(Daily Enemy Activity Report).<sup>10)</sup>

- 임실군 청웅면 남산리 폐금광 사건에 관한 전과보고를 확인할 수 있었다.

○ 내무부 치안국, 『대한경찰전사, 제1집, 민족의 선봉』, 1952.

- 1945년 8월 15일부터 1951년 2월 25일까지의 경찰 역사와 주요 전투의 성과를 기록하고 있고, 그중에는 임실군 청웅면 남산리의 폐금광 사건도 언급하고 있다.

○ 치안본부, 「대공신원기록편람」, 1984.

- 1984년 치안본부에서 작성한 자료로 본적지별로 간첩, 귀순자, 납북귀환자, 납북미

10) 이 자료는 한국전쟁 당시 경찰의 작전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자료 중 하나로, 내무부 치안국 비상 경비총사령부 작전참모부가 작성하여 유엔군사령부에 보고한 한국경찰의 작전보고이다. 유엔군사령부가 이를 'Daily Enemy Activity Report'란 제목으로 영문 번역하여 보존하였다가 NARA(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약칭)에 이관하였다. 이 중 1951년 자료는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가 수집하여 『빨치산 자료집』(3~5권)으로 묶어 펴냈다.

귀환자, 정보사범 등이 등재되어 있다. 정보사범 중에는 한국전쟁 후 부역혐의로 처분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 임실경찰서 관리 대상은 73명이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과 관련된 기록은 없었다.

○ 전라북도경찰국, 『꽃피는 산하 - 6·25의 흔적을 찾아서-』, 1980.

- 한국전쟁 전후에 전북지역에서 전투에 참여했던 경찰들의 경험담과 전투경과를 모아놓았다. 경찰의 임실읍 수복 일자와 청웅지서 진주 일자, 청웅면 남산리 폐금광 사건 등의 증언이 있다.

○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전북경찰60년사』, 2005.<sup>11)</sup>

○ 임실경찰서, 『대공전산화자료』, 1979.

- 임실경찰서에서 작성한 자료로, ‘관찰보호 삭제 및 중지자(167명, 전출자 제외) · 간첩 사망자(1명) · 6.25 당시 처형자(365명) · 월북도피행불자(192명) · 사찰전과자(53명)’의 명단이 본적지 · 주소지별로 구분되어 등재되어 있고, 한자 이름과 생년월일이 병기되어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모두 28명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임실경찰서, 『경찰기본대장』, 1974.

- 임실경찰서 연혁(1894~), 역대서장명부(1945~), 경우회원명부(1919년생~), 전상애 국단체원대장, 순직경찰관대장 등이 기록되어 있다. 1950년 10월부터 1951년 5월까지 토벌작전 혹은 빨치산의 기습으로 사상당한 애국단체원 및 경찰 92명이 기록되어 있다.

○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21·22·57·58·59·63·91, 1987~1990.

- 21·22권은 「정기작전보고(1951.2.16~1951.5.19)」이고, 57·58권은 국군 제8사단 관련자료, 59권은 국군 제11사단 관련자료, 63권은 「육군본부 작전명령(제195~272호)」, 91권은 육군본부 작전교육국 작성 「작전일지(1950.12.27~1951.3.21)」이다.

○ 미8군 작전국 작전과, 「미8군 정기작전보고(1950.10.1~1951.4.30)」.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참전자증언록(11사단 관련자)」.

○ 공보처 통계국, 『6·25사변 피살자명부』, 『6·25사변 피납치자명부』, 1952.<sup>12)</sup>

○ 육본전사감실, 『공비토벌사』, 1954.

○ 육본정보참모부, 『공비연혁』, 1971.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1945~1960)』, 1988.

11) 청웅면 폐금광 사건이 소개되어 있다.

12) 한국전쟁 당시 좌익에 의해 피살되거나 납치된 희생자 명부로 본적과 피살·납치 장소에 근거하여 각 지역별 희생자를 기록하였는데, 임실지역에는 모두 172명의 피살자와 339명의 피납자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 보병 제11사단, 『화랑부대전사』, 1986.
- 보병 제11사단, 『화랑약사』, 1975.
- 보병 제20연대, 『부대역사일지』, 1970.
- 전라북도의회, 『6·25양민학살진상실태조사보고서』, 1994.<sup>13)</sup>
- 대한민국 제2대 국회 속기록.
  - 『제10회 정기회의 속기록, 제68호』(국회사무처, 1951.4.29)에는 ‘백골부대’와 관련된 김정두 의원의 발언이 있다.
- 순창군, 『순창군정사지(淳昌郡政史誌)』, 1998.
- 전북전통문화연구소, 『순창의 역사와 문화』, 신아출판사, 2002.<sup>14)</sup>
- 순창군 문화원, 『내가 겪은 6·25』, 전북일보사 출판국, 1988.
- 임실군지편찬위원회, 『임실군지』, 1997.
- 조성훈,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sup>15)</sup>
- 최내우, 『월파유고』, 공익출판사, 1994.<sup>16)</sup>

#### 다. 현장 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피해장소에 대해 목격자 및 참고인들과 함께 현장 조사를 하고 사건경위, 희생자 수 등 사건 전반에 대한 정황을 청취하여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

13) 전라북도의회는 한국전쟁 시기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1993년 9월 2일 특별위원회(위원장 최강선)를 구성하여 1년에 걸쳐 전라북도 남원·고창·순창·임실·정읍·무주 지역을 중심으로 11개 시·군과 50개 읍·면을 조사하여 1994년 10월 본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신청사건 중에는 임실군 청용면 남산리의 폐금광 사건이 언급되어 있다.

14) 역사와 지리·민속·종교·고고·미술·음식 등 다양한 관점에서 순창의 역사와 문화를 자세히 설명한 전북역사문화총서이다. 그중 ‘빨치산과 회문산’(금창영) 편에는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전북지역, 특히 순창 회문산 지역의 빨치산 활동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15) ‘백골병단’의 연혁을 소개하고 있다.

16) 임실군 관촌면 창인리 출신의 최내우는 고향에서 본인이 직접 경험한 인민군 점령기와 수복 후의 상황을 수필형식으로 서술하였다.

## II. 조사결과

### 1. 사건배경

전라북도 순창군은 노령산맥의 산간지대에 위치하며 섬진강을 경계로 동쪽은 남원시 대강면, 북쪽은 임실군, 서쪽은 정읍시, 남쪽은 담양군과 곡성군에 인접해 있다. 특히 순창군 쌍치면, 북흥면, 구림면은 해발 200m 이상의 산악지대로 한국전쟁 시기 회문산(830m)<sup>17)</sup>을 중심으로 인민군과 빨치산의 근거지였다.<sup>18)</sup>

순창지역은 1950년 10월경 경찰<sup>19)</sup>과 국군<sup>20)</sup>이 진입하여 일부 지역을 수복하였으나 치안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으며, 특히 쌍치면을 비롯한 산간지역은 미수복지구로 남아 군경과 빨치산 사이의 교전이 지속되었다.<sup>21)</sup>

국군 제11사단 예하 제20연대는 순창군 일대에서 1950년 11월 6일부터 1951년 3월 30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으며,<sup>22)</sup> 1951년 4월부터는 국군 제8사단에게 호남지구 토벌작전을 인계하였다.<sup>23)</sup>

이 기간 동안 빨치산이 점령하고 있던 쌍치면을 비롯한 ‘미수복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빨치산에게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에 군경은 빨치산 점령지역 마을들을 소개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토벌작전 과정에서 빨치산은 도주하고 주민들은 마을에 남아 있게 됨에 따라 민간인이 희생되는 사건들이 발생하였다.<sup>24)</sup>

전라북도 임실군은 서쪽으로는 운암저수지와 묵방산(538m)을 사이에 두고 정읍시 산내면·산외면과, 서북쪽으로는 오봉산(513m)·경각산(659m)을 경계로 완주군 구이면과,

17) 『순창군정사지』에 따르면, ‘봉우리와 골짜기가 많아 첩첩산중으로 이루어진 회문산은 진안의 마이산 한 자락이 서남쪽으로 가다가 임실·전주사이를 지나 남쪽에 이르러 부흥산과 정읍 노령(蘆嶺)을 이룬 곳에 우뚝 서 있는 천혜의 요새로 알려져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쌍치면 피노리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 전봉준이 피체된 현장이며, 전라도의병 활동근거지, 빨치산 전북도당 유격대 사령부가 위치해 있었던 역사의 현장’으로 알려져 있다(순창군, 『순창군정사지』, 1998, 58쪽).

18) 전북전통문화연구소, 『순창의 역사와 문화』, 신아출판사, 2002, 457~464쪽.

19) 순창경찰서는 ‘1950년 10월 1일 아군반격으로 경남함안에서 순창서원 41명으로 수복’하였다가, ‘1950년 10월 10일 북한군 패잔병 및 좌익분자들의 습격으로 경찰서 청사가 완전 소실’된 사실이 있다(전북지방경찰청, 『전북지방경찰60년사』, 2005, 856~857쪽).

20) 『한국전쟁사료』에는, ‘연대 작명 제6호에 의거(1950.10.13), 1950년 11월 6일 담양군에 주둔하던 제11사단 20연대 1대대의 순창지구 섬멸 작전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59, 1987, 940쪽).

21) 전북지방경찰청, 『전북경찰60년사』, 2005, 856쪽.

22)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59』, 923~924쪽; 육본전사감실, 『공비토벌사』, 1954, 30~39쪽.

23) 육본전사감실, 『공비토벌사』, 1954, 52쪽.

24) 전라북도의회, 『6·25양민학살진상실태조사보고서』, 1994, 149쪽.

동북쪽에서 동남쪽으로는 성수산(875m)·영대산(666m)을 경계로 진안군·장수군·남원시와, 남쪽으로는 회문산(830m)을 경계로 순창군 구림면 및 동계면과, 북쪽으로는 완주군 상관면 및 진안군 성수면과 각각 접하고 있다. 또 강진면의 백련산(754m), 삼계면의 원통산(603m), 운암면의 나래산(544m), 오수면의 응봉(608m) 등 산악면적이 전체의 76.7%를 차지하여 주민들의 반 이상이 산간마을에 거주했던 지역이다.<sup>25)</sup>

임실군에서는 해방이후 성수면 출신의 좌익운동가에 의해 남로당 임실군당이 조직되었으며, 특히 1948년 2·7사건으로<sup>26)</sup> 전북의 도처에서 격렬한 시위와 파괴활동이 발생할 무렵 성수면에서는 지서를 습격하는 등 시위의 양상이 과격해져 쌍방이 모두 피해를 보는 유혈사태가 벌어졌다.<sup>27)</sup>

이 무렵 제주도 4·3사건과 여순사건이 발발하면서 임실경찰서는 관내 좌익운동가의 검거와 감시를 강화했으며,<sup>28)</sup> 이에 대항한 임실군당 역시 한국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저항을 지속해나갔다.<sup>29)</sup>

한국전쟁 발발 한 달 만인 7월 25일 인민군 제6사단은 임실에 진주하여 먼저 임실군 인민위원회 그리고 농민동맹, 청년동맹, 직업동맹, 부녀동맹 등을 조직하고 경찰서를 내무서로 고치는 등 사회 전반을 인민공화국 체제로 바꾸기 시작했다.<sup>30)</sup>

25) 임실군지편찬위원회, 『임실군지』, 1997, 250쪽.

26) 소위 '2·7사건'은, 1948년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 남북한 총선거 실시를 감시하기 위해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COTK)이 입국하자, 이를 반대하기 위해 남로당 등이 주도한 전국규모의 파업과 시위 사건을 지칭한다. 당시의 시위는 1948년 2월 7일에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2주일 이상 지속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위가 과격화되어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27) “전국에서 시위와 폭동이 일어나 치안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2월 25일 밤 좌익 청소년이 이끄는 주민 5백여 명이 성수지서에서 3Km 쯤 떨어진 삼청리 회치골에 집결했다. 이들은 죽창과 농기구 등으로 무장했으며 26일 새벽, 성수지서로 몰려가 지서를 포위하고 담을 넘어 습격해 들어갔다. 이에 지서장 박춘성 경사 등 5명의 경찰관들이 발포, 7명이 사살되었으나 지서는 점령당했다. 지서장 박경사와 1명의 경찰관은 탈출했으나 나머지 3명이 이들에게 붙잡혀 그중 2명이 현장에서 살해되고 1명은 부상을 입었으며 주민 2명이 이들에게 살해되었다. …(중략)… 임실경찰서는 무장경찰 10여 명을 현지에 급파, 죽창과 농기구로 무장한 주민들을 진압하고 그중 287명을 검거하여 조사한 뒤 주모자만 의법처리하고 단순 가담한 주민들은 모두 훈방했다.”(임실군지편찬위원회, 『임실군지』, 1997, 251쪽.)

28) “우리 중부님은 2·26사건(1948년 2월 26일 성수지서 습격 사건) 이후로 월평리의 이기탁씨와 함께 잡혀서 공주형무소에 잡혀계셨었는데, 전쟁이 나면서 그 지역 경찰이 후퇴하기 전에 형무소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고 하더군요.”(신청인 송병섭 진술조서, 2009.12.17); “1948년 2·7구국투쟁 때도 아버지가 임실경찰서에 연행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다시 나오셨는데, 하여튼 무슨 일만 생기면 치안유지법에 따라 예비검속으로 아버지와 같은 분은 경찰서에 연행되었어요.”(신청인 박봉자 진술조서, 2008.12.29.)

29) 삼계면의 향보단원 허은은 1949년 8월 30일 전북경찰국 기동대, 임실경찰서, 삼계지서 경찰들과 함께 삼계면 덕계리에서 임실군당과 교전하던 중 전사하였고, 덕치지서의 순경 윤한전과 최영암은 각각 1949년 9월 25일과 29일 지서에 내습한 임실군당과 교전 중 전사하였다(임실경찰서, 『경찰기본대장』, 1974).

30) 임실군지편찬위원회, 『임실군지』, 1997, 253쪽; 전라북도 경찰국, 『꽃피는 산하-6.25의 흔적을 찾아서-』, 조문규 증언, 1980, 136쪽.

그러나 9·28수복 이후 인민군이 퇴각하게 되자, 임실군당과 내무서는 그간 검거했던 우익 인사들과 그 가족들을 9월 27일 모두 집결시켜 학살한 뒤,<sup>31)</sup> 퇴각하는 인민군을 따라 북으로 후퇴하였지만, 또 일부는 지방 좌익들과 함께 관내의 회문산, 성수산, 원통산 등지로 입산하여 빨치산 활동을 시작하였다.

임실경찰은 10월 2일 임실읍에 진주하여 경찰서를 복구하였다.<sup>32)</sup> 그러나 초기 경찰의 수복작전은 각 지역에 잔류한 빨치산 등 지방 좌익세력의 강력한 저항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특히 빨치산 전북도당 사령부가 자리 잡았던 회문산이 위치한 강진면과 덕치면, 운암면 일대 그리고 성수산과 영대산이 위치하여 진안의 덕태산(1113m), 장수의 팔공산(1151m)을 통해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성수면 일대는 수복작전에 특히 많은 저항을 받았다.<sup>33)</sup> 그래서 국군은 1950년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에 제11사단 제13연대를 전주에 주둔시켜 전북 일대를 책임지게 했는데,<sup>34)</sup> 임실에는 먼저 제2대대 7·8중대를 주둔시키고,<sup>35)</sup> 1951년 3월에는 제1대대를 주둔시켜<sup>36)</sup> 경찰과 함께 빨치산 토벌작전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상과 같이 1948년 2·7사건 이후부터 한국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전개된 경찰의 남로당 임실군당에 대한 검거·감시와 그에 대한 임실군당의 저항과정에서, 또 인민군이 임

31) “수복될 때 임실 방공호에서 빨갱이들에게 사람들이 총격을 받고 희생되었는데, 저도 같이 방공호에 있었습니다. …(중략)… 임실 방공호에서 무려 283명의 시신이 발견됐어요. 국군들하고 주민들이 합세해서 그 시신을 발견했지요. 그때 살아 나와서 학도병으로 참전했어요.”(참고인 진○○ 진술조서, 2010.1.19.)

32) 전라북도 경찰국, 『꽃피는 산하-6.25의 흔적을 찾아서-』, 조문규 증언, 1980, 137쪽; “9·28 수복되고 10월 초에 서리가 올 때쯤 나하고 박만식이 임실경찰서 직원으로는 처음으로 미군부대를 따라서 임실로 돌아왔어.”(참고인 김○○ 진술조서, 2010.2.19.)

33) 임실군지편찬위원회, 『임실군지』, 1972, 252~257쪽.

34) 제13연대 1대대는 10월 18일 전주로 이동하고, 10월 23일 이후 연대 전방지휘소가 전주로 이동하며, 11월 6일 연대 후방지휘소까지 전주로 이동 완료하였다(육군본부, 『한국전쟁사』59, 1987, 575~579쪽); 국군 제11사단(사단장 육군준장 최덕신) 제13연대의 초대 연대장은 육군대령 유흥수(劉興洙)였으나 1950년 11월 6일 국군 제1사단으로 전출되고, 2대 연대장으로 육군대령 최석용(崔錫壙)이 부임한다. 그리고 1대대장에는 한동석(韓東錫) 소령, 2대대장으로 양춘근(梁春根) 소령, 3대대장으로 이승준(李承俊) 대위가 각각 임명되었다(육군본부, 『한국전쟁사』59, 1987, 573~574쪽). 초대 1대대장이었던 한동석 소령은 장교 자격표에 따르면, 1951년 1월 1일 제9연대 3대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되고(『장교 자격표』, 한동석의 군번 10704), 이준성(李準晟) 중령이 1대대장에 임명되었다(군사편찬연구소, 『이준성 증언록(HA02766)』, 1966). 이준성 중령은 그 뒤 1951년 4월 15일 제20연대 부연대장으로 부임한다(보병 제20연대, 『부대역사일지』, 1970; 『장교 자격표』, 이준성의 군번 10479). 그러나 기타 제2, 제3대대장의 배속 변경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초대 13연대장이었던 유흥수는, ‘거창사건을 일으켰던 한동석이 전주 주둔 초기 제13연대 1대대장이었는데, 전주 인근의 완주군 고산면에서도 거창에서처럼 민가를 소각하고 마을 청년을 사살하여 이를 저지시킨 일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군사편찬연구소, 『유흥수 증언록(HA04869)』, 1966).

35) 육군본부, 『한국전쟁사』59, 1987, 589~590쪽.

36) 육군본부, 『정기작전보고』제55~제69호(1951.3.9~3.23), 『한국전쟁사』21, 1987, 421~716쪽.

실에 진주하는 1950년 7월 25일부터 9월 말 퇴각 시까지 이어진 우익인사들에 대한 탄압 과정에서, 그리고 임실읍이 수복된 후부터 시작된 경찰과 국군 제11사단 제13연대에 의한 빨치산 토벌작전 및 부역자 색출과정에서, 임실지역의 민간인들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 2. 사건경위

### 가. 순창군 사건

#### 1) 팔덕면 덕천리 사건

##### 가) 사건개요

○ 사건번호: 다-582호, 다-4115호

○ 사건개요: 1949년 10월 순창경찰서 경찰은 순창읍 순화리 주민 박창휴와 적성면 내월리 주민 양관영을 좌익활동 혐의로 연행하여 팔덕면 덕천리 히여태재에서 총살하였다.

##### 나) 사건내용

신청인 박창윤의 주장에 의하면, 진실규명대상자 박창휴(朴昌休 · 1929)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중 방학기간이라 고향 순창읍 순화리에 내려와 있었는데, 1949년 10월경 순창경찰서 경찰이 연행하여 2~3일간 순창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다가 같이 구금되어 있던 7~8명과 함께 팔덕면 덕천리 히여태재로 끌려가 총살되었다고 한다.<sup>37)</sup>

신청인 박창윤은 당시 학교에 있어 형님 박창휴의 연행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했으나 부친을 통해 연행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건 이후 현장 인근 주민들이 소식을 알려주어 형수가 시신을 수습해 왔다고 진술하였다.<sup>38)</sup>

또 신청인 양병호의 주장에 의하면, 진실규명대상자 양관영(楊寬泳 · 1922)이 1949년 음력 8월 20일(양력 10월 11일) 적성지서 경찰에게 연행되었다가 이틀 후인 8월 22일(양력 10월 13일) 역시 히여태재로 끌려가 총살되었다고 한다.<sup>39)</sup>

37) 신청인 박창윤(당시 12세)은 당시 박창휴가 대학을 다니며 시위에 참가하여 사상범으로 지목되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신청인 박창윤 진술조서, 2008.3.21).

38) 신청인은 또 당시 박창휴와 함께 순창읍 남계리 주민 임홍락도 총살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신청인 박창윤 진술조서, 2008.3.21). 그러나 남계리에서는 주민 임홍락의 연고자는 물론 임홍락을 인지하고 있는 참고인도 파악할 수 없었다.

39) 신청인 양병호는 '숙부 양관영의 사망사실을 양관영의 동생 양유영에게 들어 알게 되었지만 더 구체적인

## 제 4 권

양관영의 동생 양유영(당시 19세)은 '당시 순창군 구림면에서 입산하여 빨치산 활동을 하던 일가친척으로 양윤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적성지서 경찰이 그 양윤영의 수첩에 양관영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함께 빨치산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1949년 음력 8월 20일(양력 10월 11일) 양관영을 연행해갔다'고 진술하였다.<sup>40)</sup>

양관영은 연행된 후 이틀 만에 히여태재에서 총살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참고인 양유영은 보름이 지나 현장에 가서 시신을 수습했다고 한다.<sup>41)</sup>

그러나 진실규명대상자 박창휴의 희생근거로는 전문 진술인 신청인 진술밖에 없고 진실규명대상자 양관영의 희생근거로는 전문 진술인 신청인 진술과 가족관계인 참고인 진술뿐이며, 더 나아가 신청인과 그 가족들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참고인이나 객관적 자료 등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진실규명대상자 박창휴, 양관영의 정확한 희생경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

### 2) 구림면 안정리 사건

#### 가) 사건개요

○ 사건번호: 다-7930호

○ 사건개요: 1951년 8월 13일 국군은 구림면 안정리 만일사 법당에 방화하였고 법당에 거주하던 이씨는 화상을 입어 사망하였다.

#### 나) 사건내용

신청인 박경자(당시 31세)는, 백모 이씨(李氏·1871)<sup>42)</sup>가 한국전쟁 이전 절터만 남아 있던 안정리 337번지와 541번지 등지에 만일사(萬日寺)<sup>43)</sup>를 재건하고 주지가 되어 거주

---

내용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고, 양관영의 제사를 그 아들 양병춘이 모시고 있는데 제사일이 음력 8월 21일 이라 사망일은 8월 22일이 맞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신청인 양병호 진술조서, 2008.3.27).

40) 참고인 양유영 진술조서(2008.3.27.)

41) 참고인 양유영 진술조서(2008.3.27): 한편 양관영의 제수 조연임(당시 16세)은 '시어머니를 통해 양관영이 1950년 음력 8월 22일(양력 10월 3일) 야경을 서러 나갔다가 적성지서 경찰에게 연행된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참고인 조연임 전화면담, 2008.11.18). 그러나 시기상으로 1950년 10월 3일에는 순창군 적성지서에 경찰이 진주할 수 없었던 시기였다. 이는 경찰이 순창읍에 1950년 10월 1일 처음 진주했지만 10월 10일 빨치산에게 습격을 받아 경찰서가 완전히 소실된 일이 있었을 정도로 당시는 순창읍마저도 치안이 확보되지 않았던 때였고(전북지방경찰청, 『전북지방경찰60년사』, 2005, 856~857쪽), 따라서 순창읍의 경찰들이 진주한 지 3일 만에 타 읍면의 지서로 인원을 보내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42) 제적부에도 진실규명대상자는 이름이 없이 '이씨'라고만 기재되어 있었고, 신청인도 그 이름을 알지 못했다.

43) '만일사는 백제 무왕(673년)때 처음 세워진 사찰로 조선 초기 이성계가 임금이 되기 전 무학대사에 의해 중건되었다. 만일사라는 명칭은 무학대사가 이성계를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하고자 1만일(萬日) 동안 이

했는데, 1951년 8월 13일 법당이 빨치산의 은거지가 된다는 이유로 국군이 방화하자 법당을 지키려던 백모도 법당과 함께 불에 타 사망했다고 진술하였다.<sup>44)</sup>

신청인은 ‘만일사 아래 산내마을 주민을 통해, 전쟁 중에 피난 갔다 와서 절에 들러보니 절터는 다 불에 타버렸고 불에 그슬려 사망한 스님의 시신을 발견하여 화장해서 절터에 뿌렸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데,<sup>45)</sup> 이에 반해 진실규명대상자의 조카 이근형(당시 19세)은, ‘고모님(이씨)이 스님이 아니라 보살이었고 당시 만일사에는 60여 세 되는 주지스님이 따로 있었으며, 전쟁이 발발하고 음력 7월 중순에서 8월 초 사이에 빨치산이 불을 질러 고모님이 대웅전 앞 행랑채에서 사망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sup>46)</sup>

그러나 산내마을 주민들은 당시 국군의 토벌작전 과정에서 만일사가 불에 탄 것은 확실하지만 여승이 사망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한다.

“6·25 나고 이듬해 음력 5월 초 무렵에, 절 안에 빨치산이 있으니까 군인들이 불을 지른 겁니다. 만일사는 6·25 전에는 아주 큰 절이었습니다. 전쟁 전에는 소실된 적이 없고, 할머니 스님이 계신 적도 없습니다. 노장스님이 80세로 전쟁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금담스님은 빨치산에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도 남자분이십니다. 11사단인가 8사단인가 군인이 절에 불을 지른 당시에 민간인 인명피해는 없었고 빨치산만 있었습니다. 할머니 스님의 불에 탄 시체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sup>47)</sup>

이상 신청인과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만일사 법당이 한국전쟁 시기 국군에 의해 소각된 것은 확실하다고 판단되나, 진실규명대상자 이씨의 사망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국군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곳에서 기도하였다는 데에서 유래되었다.’(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만일사’ 소개 참조.)

44) 신청인 박경자 진술조서(2007.10.30.)

45) 신청인은 전언자의 신원을 기억하지 못했다(신청인 박경자 진술조서, 2007.10.30.).

46) 참고인 이근형 진술조서(2008.10.1.)

47) 참고인 박선택 진술조서(2008.8.22): “비행기가 회문산을 폭격하고 그럴 당시였는데 빨치산들이 만일사를 근거지로 삼자 군인들이 와서 만일사를 불태웠습니다. …(중략)… 당시 만일사에 남자 주지스님(안노당스님) 한 분과 여자 보살 세 분 정도가 계셨는데 주지스님은 사건이 나기 몇 해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고, 여자 보살들만 계셨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만일사를 불 지르기 전에 만일사 주변 마을 주민들을 소개시켰는데 그 때 만일사 여자 보살들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 피난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자 보살들이 불타 죽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참고인 이기만 진술조서, 2008.9.3.)

### 3) 쌍치면 옥산리 사건<sup>48)</sup>

#### 가) 사건개요

○ 사건번호: 다-8864호

○ 사건개요: 1951년 4월 24일 국군은 쌍치면 옥산리 무동마을 주민 정씨를 옥산리 무동마을에서 사살하였다.

#### 나) 사건내용

신청인 김희곤(당시 15세)과 참고인 김용권(당시 18세)은 조모 정씨(鄭氏 · 1873)<sup>49)</sup>가 1951년 4월 24일 토벌작전을 나온 국군에게 사살되었다고 진술하였다.<sup>50)</sup>

인민군 후퇴 후 쌍치면에는 다수의 빨치산이 은거하고 있어 군경의 토벌작전이 자주 있었다. 1951년 4월 24일(음력 3월 19일) 주민들은 국군 제8사단 군인들이 총을 쏘면서 옥산리 마을로 들어오자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병약자를 집에 둔 채, 마을 뒷산으로 피신하였다. 당시 전북 순창군 쌍치면 옥산리 535번지에 거주하던 진실규명대상자 정씨는 79세의 고령으로 피신하지 못하고 집에 있던 중 토벌군인이 쏜 총격을 당해 사망했다. 시신은 배에 총상을 당해 마당에서 엎어진 채 발견되었다. 당시 15세였던 신청인 김희곤과 18세였던 참고인 김용권이 마당에서 사망한 정씨의 시신을 목격했으며, 시신은 숙부 김용기와 같은 마을 주민 김용철이 수습하여 원옥마을 앞산으로 이장했다. 진술인들은 당시 마을 인근에 빨치산 등은 없었으며, 빨치산은 무장부대로서 자신들의 작전계획에 따라 움직였을 뿐 주민들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었다고 하였다. 진술인들은 정씨의 희생사건 후 1951년 음력 11월경 토벌군인들에게 붙잡혀 2개월 동안 광주지역 등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풀려났으나 집이 모두 불에 타 없어져 얼마동안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고 한다.<sup>51)</sup> 진실규명대상자 정씨는 제적등본에 '1951년 6월 6일 사망, 1956년 6월 21일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한국전쟁사료』58권의 국군 제8사단 「전투상보」에 따르면, 1951년 4월 6일 국군 제11사단과 교체된 제8사단이 1951년 4월 20일과 21일 순창군 쌍치면에서 소탕작전을 전

48)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2010. 4. 13. 진실규명불능으로 결정하였으나, 김희곤의 이의신청이 있어 확인한 결과 일부 내용에 착오가 발견되었고, 추가진술이 확보되어 2010. 9. 14. 진실규명으로 결정결정하게 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결정」(2010.9.14)

49) 제적부에도 진실규명대상자는 이름이 없이 '정씨'로만 기재되어 있었고, 신청인도 이름을 알지 못했다.

50) 신청인 김희곤 진술조서(2008.4.3.)

51) 신청인 김희곤 진술조서(2008.4.3); 이의신청인 김희곤 진술조서(2010.9.2); 참고인 김용권 진술조서(2010.9.2)



개했음이 확인된다.

한국전쟁 당시 순창군 쌍치면에서 발생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이미 많은 부분이 확인되었고, 그중에는 신청인의 조모와 비슷한 유형으로 작전을 나온 군경의 무차별사격에 희생된 노인들도 다수 확인되었다.<sup>52)</sup>

신청인의 조모 정씨 역시 당시의 다른 쌍치면 희생자들과 마찬가지로 노구를 이끌고 마을을 떠나지 못하여 집에 남았다가 사망한 것은 참고인 김용권의 진술과 제적등본의 사망신고일, 시신 수습 사실로 보아 분명하며, 당시 인근 지역에서 전투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당시 국군의 사살행위는 비무장 민간인에게 가해진 위법한 행위였으며, 비록 급박한 전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노약자를 살해한 행위는 용서받기 힘든 반인륜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나. 임실군 진실규명 사건

### 1) 임실읍 임실경찰서 사건

#### 가) 사건개요

○ 사건번호: 다-228호, 다-269호

○ 사건개요: 1948년 10월 임실경찰서 경찰은 임실읍 주민 박세열과 박훈을 좌익활동 혐의로 연행하여 임실경찰서에 구금했다가 12월 1일 이후 총살하였다.

#### 나) 사건내용

임실군에서는 1948년에 발생한 2·7사건의 영향으로 성수면에서 2월 26일 지서 습격 사건이 벌어졌고,<sup>53)</sup> 이로 인해 좌익세력에 대한 경찰의 감시가 강화되었다.<sup>54)</sup>

그 뒤 4·3사건과 여순사건이 이어지면서 경찰은 관내 좌익세력들을 체포·연행하기 시작했는데, 해방 이후 좌익계열에서 활동했던 임실읍 성가리 주민 박세열(朴世烈·1913)<sup>55)</sup>과 사진관을 운영했던 임실읍 이도리 주민 박훈(朴薰, 일명 박남규·1919)<sup>56)</sup> 등

52) 진실화해위원회가 2008년 12월 24일 제89차 전원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한 「순창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에서는 모두 100여 명 이상의 쌍치면 주민이 군경에게 희생되었음을 확인했는데, 그중 61세 이상의 노인은 모두 22명이었고, 51세 이상까지 합치면 35명에 달했으며, 그중 군경의 작전 당시 피신하지 못하고 집에 남아 있다가 불에 타 죽거나 사살된 노인들은 모두 17명이었다.

53) 임실군지편찬위원회, 『임실군지』, 1997, 251쪽.

54) 참고인 전상하(당시 18세)는 '임실군 남로당이 여순사건과는 관련이 없이, 2·7사건 이후 이미 경찰의 감시를 피해 모두 지하로 들어갔고 그들을 모두 반란군이라 불렀다'고 진술하였다(참고인 전상하 진술조서, 2010.2.21).

은 그해 10월경 임실경찰서로 끌려갔다.

“1948년 9월 24일(양력 10월 26일) 어머니가 남동생을 낳고 제가 사식을 임실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된 아버지(박세열)한테 갖다드리면서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한복으로 하얀 옷을 입고 유치장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거였어요.”<sup>57)</sup>

경찰은 구금 중이던 박세열과 박훈을 포함한 좌익 혐의자 20여 명을 1948년 12월 1일 트럭에 태워 경찰서를 나섰고, 그 후 이들은 소식이 끊어졌다. 신청인 박봉자(당시 9세)는 이 소식을 당시 어머니를 통해 들었고, 정확한 날짜는 후에 할머니를 통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sup>58)</sup>

신청인 가족은 박세열과 박훈의 행방을 수소문하였는데, 신청인 박탁은 ‘남원방향으로 싣고 가서 죽였다는 말을 들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하였고,<sup>59)</sup> 박봉자는 ‘어머니가 전

- 55) “해방 전에 아버지가 대구사범을 다니다가 학생운동을 해서 졸업을 못 하고 임실로 오셨다고 하더군요. …(중략)… 해방 전에는 칼을 차고 장화를 신고 일본 순경들이 집에 와 신을 신은 채 방에 들어와서 집안을 뒤지며 아버지를 찾기도 했답니다. 우리는 무서워서 어머니 뒤에 숨고 했어요. …(중략)… 제가 8세 때 여운형 선생님이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서울에 가셨던 기억도 납니다. …(중략)… 아버지는 48년 2·7 구국투쟁 때도 임실경찰서에 연행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다시 나오셨는데, 하여튼 무슨 일만 생기면 치안유지법에 따라 예비검속으로 연행되었어요.”(신청인 박봉자 진술조서, 2008.12.29); “해방 후에 반일독립투사를 경찰들이 공산당이란 명목으로 잡아갔어요. 제가 나중에 듣기에 박봉자씨 부친도 그런 일에 휘말려 잡혀가셨다더군요. 해방이 되고 박세열씨는 몽양 여운형 선생님의 건국준비위원회에 가입했을 겁니다. 그 당시 호남 유지들이나 지식인들은 대부분 건준에 관계를 했으니까. …(중략)… 그땐 분명히 예비검속이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 치안유지법에 따라 경찰서장이 명령을 하면 29일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할 수 있었습니다. 주로 반일독립투사를 공산당 빨갱이란 명목으로 그렇게 구금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풀려나오고, 또 무슨 일만 있으면 다시 끌려가고 했습니다.”(참고인 이기형 진술조서, 2008.12.29.)
- 56) 신청인 박탁(당시 5세)은 ‘부친(박훈)이 사진업에 종사했고, 시를 쓰며 문학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다. 사상과는 전혀 관련 없는 분이었는데, 부친이 경찰에게 화를 당한 후부터 가족들이 좌익 쪽에서 일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신청인 박탁 진술조서, 2007.7.26).
- 57) 신청인 박봉자 진술조서(2008.12.29); 신청인 박봉자(당시 9세)는 또 ‘부친을 마지막으로 찾아갔던 날 박탁의 부친 박훈씨가 부친과 함께 구금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신청인 박봉자 진술조서, 2009.12.24); 또 박훈의 동생 박순애(당시 19세)도 ‘오빠가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경찰에게 잡혀갔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참고인 박순애 진술녹취, 2010.2.24).
- 58) “그날 아침 임실경찰서에 아버지랑 같이 감금되어 있던 사람들 20여 명을 용수를 씌워 트럭에 태워 어딘가로 보냈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날 경찰서에 갔더니 경찰서가 비어 있었고, 경찰서 옆에 살던 친척들이 그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때 같이 임실경찰서에 수감된 박탁씨 부친 박훈씨도 끌려갔어요. …(중략)… 날짜는 나중에 할머니가 음력으로 동짓달 초하룻날(양력 12월 1일) 끌려갔으니까 나중에 그 날짜에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해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신청인 박봉자 진술조서, 2008.12.29); 참고인 전상하는 ‘박훈씨는 원래 청운면 출신이고 숙부 전상순과 친구이며 사진사였다. 경찰이 빨갱이를 예비 검속하니까 임실군당의 강경한 사람들은 지하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하로 안 들어가고 그랬는데, 임실읍에서는 경찰이 지하에 있던 사람들을 잡으면서 명단이 나오거나 하면 다 데려가고 그랬다. 박훈씨도 지하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잡혀서 죽었다고 하더라.’며 박훈씨의 사망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참고인 전상하 진술조서, 2010.2.21).

주형무소 등으로 찾아다녔지만 끝내 찾지 못했고, 나중에 할머니를 통해 경찰이 부친의 유품을 전해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sup>60)</sup> 그러나 박세열과 박훈이 재판을 받았다는 기록은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당시 임실경찰서 사찰계에서 근무했던 김○○(당시 20세)도 박세열과 박훈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는 두 사람이 임실경찰서에 구금되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 사망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였고,<sup>61)</sup> 박훈의 이웃이며 그 동생 박완의 학교동창인 진○○(당시 14세)은 박훈이 여순사건 무렵 좌익에 협조한 혐의로 경찰에게 잡혀 총살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sup>62)</sup>

이상과 같이 박세열과 박훈은 좌익활동 혐의로 1948년 10월 임실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동년 12월 1일 어딘가로 끌려간 후 소식이 끊겼는데, 이들의 구체적인 사망경위는 더 이상 확인할 수 없었지만, 판결문이나 기타 이들의 수형과 관련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고 또 박훈은 총살당했다는 소문도 돌았으며 박세열은 경찰이 유품을 전해주었다는 진술도 있어, 이들은 1948년 12월 1일 이후 경찰에게 처형당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신덕면 월성리 사건

### 가) 사건개요

○ 사건번호: 다-7700호<sup>63)</sup>

○ 사건개요: 1950년 12월~1951년 3월 사이 신덕지서 경찰과 치안대는 신덕면 월성리 주민 김막동, 김해성, 이수복, 최창실, 하태학, 홍범순, 홍영표, 홍의표, 황소봉, 황중규, 황

59) 신청인 박탁 진술조서(2007.7.26.)

60) 신청인 박봉자 진술조서(2008.12.29.)

61) “여순반란사건 무렵 사건사를 하던 박훈과 박세열이 임실경찰서에 구금된 일이 있었지. 박훈이나 박세열이 실제로 활동했는지는 모르고, 임실경찰서에 구금됐던 것은 확실한데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참고인 김○○ 진술조서, 2010.2.19.)

62) “박완의 형이 아군 요인들 사진을 찍어서 전했다가 발각되어 경찰들이 총살을 시켰어요. 그래서 박완이나 그 가족들이 남로당 활동을 했어요. …(중략)… 임실군 성수면 2·26사건이 남로당하고 대한청년단하고 제일 처음 싸운 사건이고, 그리고 나서 여순사건이 일어나고 그해에 박완의 형이 죽었어요.”(참고인 진○○ 진술조서, 2010.1.19): 참고인 진○○은 박훈의 동생 박완과 임실초등학교 동창이고(임실초등학교 1949년 졸업생 명부 확인), 한국전쟁 발발 후 수복될 무렵 학도병으로 국군 제11사단 제13연대 제2대대 제7중대와 함께 토벌작전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63) 신청인 김성남(1964년생)은 신덕면 월성리에서 태어나 현재 전주에 거주 중으로, 부친 김종옥(金宗玉·1921)의 부역조작 의혹사건(진실화해위원회는 2008년 12월 16일 제89차 전원위원회에서 「김종옥·홍복동 부역조작 의혹사건」으로 진실규명 하였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향 마을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하여 알게 되어, 유족을 대신해서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고 한다.

현규 등 11명을 좌익 및 부역혐의로 운암면과 신덕면 일대에서 사살하였다. 또 1951년 2월 8일 주민 김종만을 임실경찰서로 연행했다가 전주교도소에 수감시켰는데, 김종만은 그 후 행방불명되었다.

#### 나) 사건내용

인민군 점령기에 신덕면 월성리의 인민위원회에서는 마을 청년들을 동원하여 야간 보초를 서게 했는데, 주민 백○○과 황○○이 이를 거부하고 마을에서 도망가자 황소봉(黃小鳳·1908)과 홍영표(洪永杓·1920), 그리고 하태학(河泰鶴·1929) 등 인민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백○○의 부모를 처형하였다.

수복 이후 신덕면에 다시 경찰이 들어오자 백○○의 3형제와 백○○의 처남 황○○ 그리고 주민 하○○ 등이 치안대로 활동하면서 백○○의 부모를 처형한 주모자들을 찾기 시작했고 또 마을에서 인민위원회 활동을 활발히 한 주민들을 체포하여 처형하기 시작했다.<sup>64)</sup>

경찰과 치안대는 먼저 홍영표와 하태학을 체포하여 신덕면 수천리 울치재에서 총살하였다. 당시 하태학은 현장에서 사망하였으나 홍영표는 어깨에 총상을 입고 현장을 빠져나와 마을에 돌아와 있었는데,<sup>65)</sup> 이 소식을 들은 이장 고○○가 홍영표의 가족에게 뇌물로 해결하자며 돈을 요구했고 이에 그 가족과 친척들은 고○○의 요구를 거부하며 그를

64) “인민군 점령기에 우리 마을에 백○○과 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빨치산들이 이 사람들을 보초를 세우자 도망을 갔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 집안이 반동으로 몰려 재산을 몰수당하고, 백○○의 부모는 우리 집 뒷방이 비어 있어서 그 방에서 살게 되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백○○씨 부모님과 연배가 같고 친구처럼 지내던 분들이라, 엄동설한에 방에서 떨고 있는 게 걱정이 되어, 큰형님에게 닭을 잡게 하여 그분들을 모시고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 소식이 면당위원장 신동오(신동호)의 귀에 들어가 마을 청년들을 동원하여 우리 가족 12명과 백○○의 부모를 함께 죽이려 했어요. 근데 마침 좌익 쪽에 있던 우리 외사촌 형님 홍순환씨가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가족은 살렸죠. 백○○씨 부모님은 그때 돌아가셨고, 그 뒤로 수복이 되고 나서 다시 백○○씨 형제들과 황○○, 하○○ 등이 치안대로 들어와 자기 부모를 죽이고 좌익으로 활동한 사람들을 잡기 시작했어요.”(참고인 김양근 진술조서(2009.12.16); 신덕지서 치안대원이었던 참고인 신○○은 ‘신덕면 월성리에서 치안대 직원들 중 한명의 부모가 죽은 것과 인민군들이 저녁에 한 외판 집에 와서 잠을 자고 기거하다시피 하는 것 때문에 치안대가 그 집에 불을 지르는 것을 보고 이를 저지했다’고 한다(참고인 신○○ 진술조서, 2007.10.25); 신청인 김성남 진술조서(2008.2.21).)

65) “아버지 홍영표와 하태학씨가 함께 울치재로 잡혀가서 아버지는 오른쪽 어깨에 총을 맞고 구타도 당했는데, 하태학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하태학씨가 솜옷을 입고 있었는데 총을 맞고는 그 솜옷에 불이 붙어서 아버지가 눈으로 그 불을 끄면서 하태학씨의 이름을 부르며 보니까 벌써 죽었더라고요.”(참고인 홍지성 진술녹취, 2009.12.18); 참고인 조옥단(당시 25세)도 ‘홍영표와 하태학이 함께 총에 맞았는데 하태학은 현장에서 죽고 홍영표는 살아 돌아왔다. 현장 인근에 친척이 있어서 홍영표가 그 집에 들어가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고, 그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가서 데리고 왔다’고 하였다(참고인 조옥단 진술녹취, 2010.1.14); 그리고 하태학의 사망 당시 임실경찰서에 잡혀 있다가 풀려나온 주민 하명호(당시 18세)도 ‘임실에 갔다 오니까, 그 가족들이 울면서 하태학의 사망 소식을 전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참고인 하명호 진술녹취, 2010.1.13).

구타하였다. 그러자 고○○는 홍영표가 집에 있다는 소식을 치안대에 알렸고, 치안대는 재차 홍영표를 체포하여 1951년 1월 23일 신덕면 빈채재의 움막에서 총살시킨 후 움막과 함께 불태워버렸다. 홍영표의 시신은 그 모친이 소식을 듣고 현장에 직접 가서 수습하였다고 한다.<sup>66)</sup>

경찰과 치안대는 또 황소봉과 그 동생 황중규(黃中奎 · 1921), 황현규(黃顯奎 · 1926), 그리고 홍영표의 부친 홍범순(洪範淳 · 1890), 이수복 등이 월성리 뒷산 옥녀봉(578m)에 숨은 것을 발견하여 1950년 12월 31일 모두 운암면과 완주군 구이면 경계부근의 속칭 못지라는 계곡으로 끌고 가 총살하였다. 당시 이들의 사망 소식이 마을에 전해져 그 가족들이 현장에서 모두 시신을 수습하였다고 한다.<sup>67)</sup>

치안대에서 활동했던 참고인 황○○(당시 24세)의 진술에 따르면, 못지는 빨치산이 신덕면으로 넘어올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길목이었고, 신덕지서에 근무할 당시 가장 많이 작전을 나갔던 곳이었다고 한다.<sup>68)</sup> 즉 신덕지서 경찰이 굳이 월성리 옥녀봉에서 잡은 황소봉 등 부역자와 그 가족들을 못지까지 끌고 가서 총살한 것은, 그곳에 수시로 출몰하는 빨치산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려는 까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당일 경찰과 치안대가 옥녀봉에서 사람들을 끌고 나오는 것을 목격한 주민 김막동(金莫同 · 1922)과 김해성(당시 20대)은 인민군 점령기에 인민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일 때문에 경찰과 치안대를 피해 몸을 숨기다가 발각되어 마을 안에서 총살되었다. 참고인 김양근(당시 18세)은 마을에서 이들의 시신을 수습할 때 직접 참여했다고 한다.<sup>69)</sup>

66) 참고인 홍지성 진술녹취(2009.12.18); 참고인 조옥단 진술녹취(2010.1.14); 한편 홍영표와 하태학의 이름은 임실경찰서의 『대공전산화자료』의 '6·25 당시 처형자' 명단에 기록되어 있고(임실경찰서, 『대공전산화자료』, 1979), 제적부상에도 홍영표는 1950년 12월 16일(양력 1951년 1월 23일)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67) “사실 주민들이 못지에서 죽었다는 걸 몰랐는데, 그때 운암지서에 경찰하던 사람의 친척(이수복)이 여기에 살았어. 그 사람도 못지로 끌려가서 죽었는데, 그 경찰이 소식을 전해주어 사람들이 못지에 가서 시신을 찾아왔다고 그래.”(참고인 하명호 진술녹취, 2010.1.13); “조부 홍범순은 틀니를 하고 있었는데, 조모께서 그 현장에 가서 틀니를 가지고 조부님을 확인하고 시신을 모시고 왔다고 하더군요.”(참고인 홍지성 진술녹취, 2009.12.18); 참고인 김양근 진술조서(2009.12.16); 신청인 김성남 진술조서(2009.12.16); 제적부상인 결과, 홍범순의 사망일자 1950년 11월 22일(양력 12월 30일)로 기록되어 있었다.

68) “거기가 한쪽은 구이면, 한쪽은 운암면인 곳인데, 빨치산들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거기가 운암면 오봉산 줄기로 오봉산에서 더 남쪽에 있어요. 못지가 골짜기 이름인데, 거기를 점령하면 빨갱이들이 신덕으로 넘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네들이 자주 왔고, 우리도 거기서 자주 교전을 했죠. 구이지서는 계네들한테 몇 번이나 습격을 당했는데, 신덕은 한 번인가 밖에 안 당했어요.”(참고인 황○○ 진술조서, 2010.1.13.)

69) “그날 옥녀봉에서 사람들이 잡혀 마을로 내려올 때 그 모습을 보고 김막동과 김해성씨가 겁을 먹고는 경찰과 치안대를 피해 몸을 숨기는데 그 모습이 발각되어 현장에서 총살되었어요. 내가 나이는 어려도 그때 그 두 분의 시신 매장까지 도왔어요.”(참고인 김양근 진술조서, 2009.12.16); “김막동, 김해성씨도 같이 잡혀서 마을에서 총 맞고 죽었어. 성한 사람들은 못지로 끌려갔고, 그 사람들은 여기서 총에 맞아 죽었고.”(참고인 하명호 진술녹취, 2010.1.13.)

한편 월성리에는 당시 전주시당, 신덕면당, 상관면당, 구이면당 등이 모두 집결해 있었고 그래서 이들을 토벌하기 위해 국군이 직접 작전을 펼쳤는데,<sup>70)</sup> 그해 12월 국군이 마을로 작전을 들어오자 주민들은 몸을 피했지만, 참고인 하명호(당시 18세)는 최창실(당시 20대), 홍의표(洪義杓·1924)와 함께 국군에게 잡혔고, 완주군 구이면과 전주시를 거쳐 임실경찰서로 이송되었다고 한다. 당시 상황을 참고인 하명호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군인들이 마을에 와서 우리가 군인들한테 잡힌 거야. 그래서 처음에 구이면으로 갔다가 전주북중학교, 지금의 전주고등학교로 잡혀갔었어. 거기서 조사를 받았어. 거기서 석방시킬 사람은 석방시키고, 이송시킬 사람은 따로 분류를 했는데, 노인들을 따로 모이게 하고 청년들을 따로 모이게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청년들 쪽에 있다가 전주경찰서로 이송됐어. 거기서 1주일 정도 있었는데, 난 그때 전주경찰서 서장이 집안 형님이라 걱정은 안 했어. 그리고는 전주경찰서에서 다시 임실경찰서로 이송됐어. 그렇게 임실경찰서에 와서 1주일인가 15일인가 지나서 난 석방이 된 거야. 그게 양력설을 지난 다음이었어. 집에 돌아와서 내가 가족들에게 그 두 사람 소식을 전해주었지. 근데 그 가족들이 임실경찰서에 가보니까 없더라.”<sup>71)</sup>

홍의표의 형수 조옥단(당시 25세) 역시 홍의표가 임실경찰서에 잡혀 있다가 1951년 3월 30일(음력 2월 23일)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간 후 더 이상 소식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sup>72)</sup>

즉 국군에게 잡혔던 하명호, 최창실, 홍의표 중 하명호는 석방되었으나 최창실과 홍의표는 1951년 3월 30일 임실경찰서를 나간 후 더 이상의 소식이 없었다는 것인데, 참고인 하명호는 그중 최창실의 경우 인민군 점령기에도 인민위원회의 자위대에 가입할 것을 강요받고 거부했다가 심한 폭행과 구타를 당했던 사람이라며,<sup>73)</sup> 그의 죽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최창실씨는 참말로 억울해. 이 양반 아버지가 의병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표창장까지 받았거든. 그래서 경찰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새끼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70) 참고인 하명호 진술녹취(2010.1.13): “당시 전주시 인민위원회 당본부가 월성리 너덕골에 있었습니다.”(참고인 황○○ 진술조서, 2008.11.30.)

71) 참고인 하명호 진술녹취(2010.1.13.)

72) “동짓달에 피난 가다가 잡혔는데, 그 뒤로 소식이 없다가 시아버지가 수소문을 해서 이듬해 음력 2월에 임실경찰서에 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임실경찰서를 가보니까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 날은 아무 준비도 없이 빈손으로 갔기 때문에 3일 후에 떡 좀 하고 해서 다시 가보니까 사람이 없더라고요. 경찰들이 그 전날 트럭에 태워서 어디론가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소식이 끊어졌고, 그래서 경찰서를 나간 날짜인 음력 2월 23일로 해서 제사를 지내왔어요.”(참고인 조옥단 진술녹취, 2010.1.14.)

73) 참고인 하명호 진술조서(2007.10.25.).

묶어놓고 고춧가루 물을 먹이고 두들겨 패더라고. 그때 내가 풀려나는데 홍의표와 최창실은 안 나오기에 담당 형사한테 왜 두 사람은 안 나오느냐고 물었더니, ‘야! 이 자식아, 너 혼자 나갔으면 됐지, 다른 사람은 뭐 하러 찾아’라고 하더라고. 그 뒤로는 소식이 끊겼어. 죽었지!”<sup>74)</sup>

신청인 김성남은 또 홍의표를 치안대원 황○○씨가 살해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황○○씨가 홍의표씨를 죽이고는 그분의 옷과 시계를 차고 와 홍의표씨의 형님인 홍동표씨에게 ‘내가 의표를 죽였고, 이 옷과 시계가 의표 것이네’라고 했다더군요. 황○○씨의 말에 따르면, 당시 홍의표씨가 자기를 빨갱이로 몰아 죽이려고 했답니다. 마침 이장 고○○씨가 반대 증언을 해주어 살아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로 해서 홍의표씨를 죽였답니다.”<sup>75)</sup>

그러나 황○○은 ‘다른 치안대원들은 부역자를 처형한 일이 있었지만 자신은 주로 고지 근무만 했기 때문에 부역자 처형에 참여한 일이 없었고’<sup>76)</sup> 그래서 ‘홍의표나 최창실도 같은 마을 사람인 것은 알지만 어떻게 사망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sup>77)</sup>

이와 같이 황○○은 비록 자신이 직접 홍의표나 최창실을 살해했다는 혐의는 부인하였지만, 다른 치안대원들에 의해 살해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고, 또 황○○에게 직접 살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신청인의 진술과 임실경찰서에 함께 잡혀 있으면서 구타와 고문당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는 참고인 하명호의 진술 등에 근거하면, 홍의표나 최창실은 임실경찰서 경찰이나 치안대원에 의해 살해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밖에 참고인 김양근은 형 김종만(金鍾萬·1921)이 백○○의 부모 처형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1951년 2월 8일 치안대에게 잡혀 지서 인근의 보루대로 끌려간 후 행방불명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백○○의 부모가 죽은 일 때문에, 대한민국의 치안이 돌아오고서 일이 터졌어요. 1951년 음력 정월 초사흘(양력 2월 8일)일 겁니다. 우리 작은 형님(김종만)이 경찰과 대원들에게

74) 참고인 하명호 진술녹취(2010.1.13.)

75) 신청인 김성남 진술조서(2009.12.16.)

76) 참고인 황○○은 ‘치안대가 월성리에 들어가기 시작한 1950년 11월 중순부터 처형이 시작되었고, 정확히는 않지만 월성리 주민 약 7~8명이 처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참고인 황○○ 진술조서, 2008.11.13.).

77) 참고인 황○○ 진술조서(2010.1.13.)

붙잡혀가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당시 나는 설이라 집안 어른들에게 인사를 다녔기 때문에 집에 없었는데, 어머니 말씀으로는 ‘밖에서 형님을 부르는 소리가 났고 형님이 나가자 대원들이 형님을 데려갔다’고만 하시더군요. 그렇게 잡혀서 가신 곳이 신덕지서 뒷산에 있던 보루대 고지였어요. 당시 고지가 1, 2, 3고지가 있었는데, 2고지에 잡혀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때 나도 야경을 서라고 불려간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백○○의 형인 백○○과 하○○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보루대로 불러서는 ‘자기 부모의 죽음에 우리 집안이 관계되지 않았냐’고 캐물으면서 때리고 그러더군요. 나야 오히려 우리가 밥을 대접했다가 더 죽을 뻔 했다면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했죠. 그래서 나는 풀려났는데, 작은 형님은 더 이상 소식이 없었죠.”<sup>78)</sup>

참고인 하명호 역시 김종만이 임실경찰서로 잡혀갔다가 더 이상의 소식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sup>79)</sup> 신청인은 ‘김종만이 인민위원회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잡혀 신청인의 부친 김종옥과 함께 전주교도소의 같은 방에 수감되었다가 어느 날 밤에 불려나간 후 소식이 끊어졌다는 말을 부친에게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였다.<sup>80)</sup>

그러나 김종만이 재판을 받았다는 판결문이나 전주교도소에 수감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수형자인명부, 수용자신분장 등 일체의 행형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게다가 참고인 김양근은 당시 부친이 전주법원에 있는 친구를 통해 전주교도소의 수감자를 확인해보았지만 형 김종만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sup>81)</sup>

이상 신청인과 참고인들의 진술에 근거하면 김종만은 부역혐의로 경찰과 치안대에게 연행되어 임실경찰서를 거쳐 전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재판 등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형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덕면 사건은 임실경찰서(서장 기우대)와 신덕지서의 경찰<sup>82)</sup> 및 예하의 치안대원에

78) 참고인 김양근 진술조서(2009.12.16.)

79) “김종만씨는 임실경찰서에 잡혀가서 소식이 끊어졌어.”(참고인 하명호 진술녹취, 2010.1.13.)

80) “그분은 백○○의 부모가 돌아가실 때 인민위원회의 명령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현장에서 그 일을 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복 이후에 경찰과 치안대에게 잡혀서 전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답니다. 그분이 재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시 우리 아버님(김종옥)과 같이 전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건 확실합니다. 내가 어려서 우리 아버님께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게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인민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것이 사실로 들어나 어느 날 밤에 불려나간 후 소식이 끊겼다고 하시더군요.” 신청인 김성남 진술조서(2009.12.16.).

81) 참고인 김양근 진술조서(2009.12.16.)

82) 참고인 황○○은 ‘당시 지서에 주임 강칠성(姜七星·1923) 경사와 이춘양 순경, 이병만 순경 등 정식경찰 3명과 전투경찰 40~50명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참고인 황○○ 진술조서, 2010.1.13), 참고인 김양근과 하명호는 ‘수복 초기 신덕지서에 들어온 경찰 중에 강칠성이 있었는데, 후에 주임까지 승진했다고 진술했다’(참고인 김양근 진술조서, 2009.12.16.; 참고인 하명호 진술녹취, 2009.12.2). 한편 인사프로필을 확인한 결과, 강칠성은 1950년 10월 20일 순경으로 신덕지서에 발령받았다가 1951년 4월 25일 경사로 승진하였고,



의해 벌어진 사건인데, 신덕면의 치안대는 1950년 11월경 면소재지인 수천리에서 신덕면장 신창학, 소방대장 라기환 등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졌고, 면내 청년들이 이에 가담하여 관할 지역의 치안과 부역자 색출, 그리고 토벌작전까지 담당하였다.<sup>83)</sup> 특히 신청인과 참고인들은 월성리 출신의 치안대원인 백○○ 형제들과 하○○, 황○○ 등을 이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로 지목하였는데,<sup>84)</sup> 이들 중 백○○ 형제들은 이미 모두 사망하였고 하○○은 행방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황○○은 상술했던 바와 같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다. 그러나 역시 신덕면 치안대에서 활동했던 참고인 이○○(당시 25세)은 “1950년 11월 10일경부터 치안대에서 활동했는데, 의용경찰이라 간부급은 아니었고, 그냥 치안대원으로 활동했으며, 전북 인민위원회 당본부 도살명부를 가지고 다니면서 도살명부에 있는 자들을 체포하기도 하고 처형하기도 하였습니다. 같이 치안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 현재 황○○과 신○○이라는 사람이 생존해 있는데 황○○은 월성리 지역을 담당하였고, 신○○은 수천리 지역을 담당하였습니다.”<sup>85)</sup>라고 진술하였다.

이상 신청인과 참고인들의 진술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황○○과 하○○, 백○○ 형제 등 월성리 출신 치안대원들 그리고 신덕지서 경찰에 의해 좌익 및 부역 혐의 등으로 재판이나 기타 적법절차 없이 살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3) 운암면 학암리 사건

#### 가) 사건개요

○ 사건번호: 다-8079호

○ 사건개요: 1951년 3월 18일 임실경찰서 경찰과 국군은 임실을 성가리 주민 구복순을 빨치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운암면 학암리에서 살해하였다.

---

1951년 9월 30일에는 신덕지서 주임이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강철성 이전에 신덕지서 주임이 누구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83)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8.11.20); 참고인 황○○ 진술조서(2008.11.13): “1950년 11월 중순경 신덕면장 신창학, 소방대장 라기환씨와 같이 신덕면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 면소재지인 수천리로 들어왔습니다.”(참고인 신○○ 진술조서, 2007.10.25.)

84) 신청인 김성남 진술조서(2009.12.16); 참고인 김양근 진술조서(2009.12.16): “가해자가 황 뭐라고 하는 분을 포함한 세 분이라고 들었어요. 아버지(홍영표)가 끌려가실 때 나하고 모친도 끌려가 죽을 뻔 했는데, 한참을 가다가 그중 한 명이 두 살짜리를 죽여서 뭐 하냐고 하면서 말리더라고요. 다른 두 명은 그래도 죽이지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만 두자고 우겨서 나하고 어머니는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참고인 홍지성 진술녹취, 2009.12.18.)

85)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8.11.12.)

## 나) 사건내용

신청인 박봉자(당시 12세)의 부친 박세열은 1948년 10월 경찰에게 연행되어 임실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12월 1일 이후 소식이 끊어졌고,<sup>86)</sup> 그 일로 인해 모친 구복순(具福順·1920)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여성동맹에서 활동하다가 수복 무렵 입산하였다. 한동안 산에서 모친과 함께 생활했던 신청인은 산 속에서 모친이 재봉틀로 옷을 만들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고, 상황이 위험하다는 판단 하에 모친은 자신을 마을로 내려 보냈는데 그 후로 모친과 연락이 끊어졌다고 한다.<sup>87)</sup>

사건 당시 구복순과 함께 입산하여 활동했던 임실을 이도리 주민 박순애(당시 22세)는 청웅면 남산리 폐금광에 숨어 있다가 군경의 작전<sup>88)</sup>을 피해 폐금광을 나와 구복순 등 다른 입산자들과 함께 운암면 학암리 뒷산으로 피신하였다. 군경의 토벌작전이 학암리까지 이어지자 박순애는 학암리를 빠져나왔으나 구복순은 1951년 3월 18일 학암리 뒷산에서 군경에게 생포되었다. 군경은 생포한 구복순을 살해한 후 시신을 방치하였고, 그 시신은 학암리 주민들이 수습하여 매장하였다.<sup>89)</sup>

사건 당시 구복순의 시신을 목격한 참고인 임방규(당시 20세)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그때 임실군 유격대(빨치산)는 전투하다가 이동하던 때였고, 구복순씨 등 여성동맹 사람들은 운암면 그쪽에 있다가 일을 당했어요. 임실유격대는 (삼계면 학정리) 원통산 뒤로 해서 운암면, 임실읍을 지나 성수산으로 이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가운데 운암면 어느 골짜기를 지날 즈음 구복순씨가 군경에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정말 처참한 모습으로 살해당해 있더군요. 사실 입산했다가 죽은 사람들이 어디 한 두 명인가요! 근데 그중에서도 몇몇은 정말 잔인하게 살해되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고, 그중에 구복순씨도 있었던 거죠. 그때 우리는 급히 성수산으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면당 사람들에게 뒷수습을 맡기고 그냥 떠났어요.”<sup>90)</sup>

86) 박세열 사건은 본문 ‘나. 임실군 사건’의 ‘1) 임실을 임실경찰서 사건’ 참조.

87) “모친은 한국전쟁 당시 인공치하에서 임실군의 여맹원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국군이 수복하자 10월 초쯤에 피난을 가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10월 말경에 어머니를 찾아가서 삼계면 학정리 사촌마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마을에서 재봉틀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마을에 있는 것이 위험하다 하여 어머니가 나를 다른 곳으로 보내서 어머니와 헤어졌는데, 그 뒤로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신청인 박봉자 진술조서, 2008.1.13.)

88) 군경의 폐금광 작전은 본문의 ‘나. 임실군 사건’의 ‘10) 청웅면 남산리(강진면 부흥리) 폐금광 사건’ 참조.

89) 참고인 박순애는 ‘당시 구복순이 학암리에서 부상을 당해 혼자 남겨졌고, 후에 현장을 목격한 학암리 주민들을 통해 구복순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참고인 박순애 진술녹취, 2010.1.7); 신청인 박봉자 진술조서(2008.1.13.)

신청인은 모친의 사망경위를 1990년대가 되어서야 박순애를 통해 듣게 되었고, 그래서 모친의 시신을 찾거나 사망신고를 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전혀 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sup>91)</sup>

이상 신청인과 참고인들의 진술에 근거하면, 인민군 점령기에 여성동맹에서 일하다가 군경이 임신했을 수복할 무렵 임신한 임신했 주민 구복순은 토벌작전을 수행하던 군경에게 생포된 후 현장에서 살해된 것으로 판단된다.

#### 4) 청웅면 구고리 박완식 사건

##### 가) 사건개요

○ 사건번호: 다-8760호

○ 사건개요: 1950년 12월 7일 청웅지서 경찰은 청웅면 향교리 수품마을 주민 박완식을 부역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청웅면 구고리에서 총살하였다.

##### 나) 사건내용

박완식(朴完植 · 1927)은 좌익에 관여한 일이 없었으나, 그 형 박경식(朴庚植 · 1913)은 인민군 점령기에 구고리에 거주하며 인민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좌익활동을 하였고, 그로 인해 청웅면이 수복될 무렵<sup>92)</sup> 청웅면 남산리 폐광광으로 피신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박완식은 형의 좌익활동이 자신에게도 화를 불러올 것이라 판단하여 처가인 운암면 선거리로 피신했다가 결국 지역 우익세력에게 발각되어 청웅지서<sup>93)</sup>로 잡혀왔고, 1950년 12월 7일 지서 인근 청웅국민학교 뒷산에서 경찰에게 총살되었다.<sup>94)</sup> 박완식의 사촌동생 박연

90) 참고인 임방규는 의용군으로 낙동강까지 갔다가 후퇴하면서 임실군 유격대에 합류했는데, 1950년 12월말 임실군당과 임실군 여성동맹 그리고 임실군 유격대가 모두 같은 마을(삼계면 학정리, 덕치면 물우리)에 있었기 때문에 여성동맹원이었던 구복순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참고인 임방규 진술조서, 2010.2.18).

91) 신청인 박봉자 진술조서(2008.1.3): 신청인 박봉자는 모친의 사망일자와 사망경위를 박순애와 그 언니 박선애를 통해 들었다고 하였으나 박선애는 이미 병환이 깊어 진술이 불가능했다. 한편 구복순은 제적부에 여전히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

92) 청웅면에는 먼저 우익청년들이 중심이 된 치안대가 10월 10일 처음으로 들어왔다가 4일 만에 철수했고, 그 뒤 10월 30일에 재차 진주했지만, 경찰의 진주는 그보다 훨씬 뒤였다(전라북도 경찰국, 『꽃피는 산하 - 6.25의 흔적을 찾아서-』, 한병우 증언, 1980, 329~330쪽).

93) 당시 청웅지서 주임은 임학중(林學鍾 · 1921)으로, 인사프로필에 따르면 1950년 11월 24일부터 1951년 8월 17일까지 청웅지서 주임으로 근무하였다.

94) “백부 박경식이 좌익활동을 많이 했다고 들었으며, 수복 무렵 청웅면 석두리 폐광에 피신하였다가, 경찰이 폐광입구에 고춧대를 태워 연기로 질식사시켜 사망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친은 백부의 동생이라는 이유로 동네 우익들이 살려주면 안 된다고 하였고, 그래서 형 박경식이 폐광으로 피신하자, 뒷동네 선거리로 피신하였는데, 여기는 처갓집 동네이고 산동네라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경찰한테 잡혀서 석두리 산에서 총살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신청인 박병호 진술조서, 2008.2.26.)

식(당시 13세)은 부친이 박완식의 시신을 수습했다며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당시 큰형님 박경식이 폐광에 들어가자 작은 형님(박완식)은 뒷동네인 선거리 처가로 피신했습니다. 형님 일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갔던 거죠. 그러다가 선거리에서 경찰에게 잡혔고 청웅지서로 끌려왔다가 이틀인가 지나서 청웅국민학교 뒷산 속칭 노루목에서 총살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가서 시신을 수습했는데, 갔다 오셔서 ‘총을 얼마나 쏘는지 가슴에 구멍이 뽕뽕 뚫려 있더라.’고 하시더군요.”<sup>95)</sup>

향교리 수풍마을 주민 허장(당시 19세) 역시 “그 사람(박완식)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 사람 형(박경식)이 좌익활동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지. 그 사람 형이 인공 때 면에서 선전부장을 했거든. 그 일로 해서 수복된 다음에 그 사람 처가가 있던 선거리로 피신했는데, 거기서 잡혀가지고 경찰한테 죽었어. 그 사람 동생(박장식)은 또 경비대 시절에 군에 갔다가 전쟁 때 전사했어요. 그 형님은 자수 안 하고 있다가 또 경찰한테 죽고, 참 형제들 간에 이상하게 죽었지”라며 박완식의 사망과 그 형제들의 사연을 술회하였다.<sup>96)</sup>

한편 박완식의 사망일자에 대해, 신청인 박병호(당시 5세)는 족보에도 1950년 10월 27일(양력 12월 7일)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제사도 10월 26일(양력 12월 6일)로 모시고 있다고 진술하여,<sup>97)</sup> 사건은 1950년 12월 7일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자료와 신청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에 근거하면, 박완식은 좌익활동을 한 형 박경식 때문에 청웅지서 경찰에게 총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5) 청웅면 향교리 사건

### 가) 사건개요

○ 사건번호: 다-9032호

○ 사건개요: 1950년 11월 7일 국군은 청웅면 향교리 수풍마을 주민 최재의와 박영술의 처를 수풍마을에서 사살하였다.

95) 참고인 박연식 진술조서(2009.12.9.)

96) 참고인 허장 진술조서(2009.12.9); 참고인 최경남도 박완식이 형 때문에 경찰에게 총살당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참고인 최경남 진술조서, 2009.12.10).

97) 신청인 박병호 진술조서(2008.2.26); 박완식은 또 『대공전산화자료』의 ‘6·25 당시 처형자’ 명단에도 이름이 올라 있다(임실경찰서, 『대공전산화자료』, 1979).

## 나) 사건내용

청웅면은 회문산이 위치한 강진면, 덕치면, 운암면과 임실읍의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임실읍에 주둔한 군경이 회문산으로 작전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통로였다. 특히 임실읍에서 청웅면으로 들어가는 가장 주요한 길목이 모래재였는데, 이 모래재만 확보하고 있으면 임실읍의 군경이 회문산으로 들어갈 수 없어 항상 다수의 빨치산들이 모래재를 지키고 있었고, 양측의 교전도 항상 모래재에서 시작되었다.<sup>98)</sup>

임실읍에 주둔한 국군은 회문산 토벌작전을 위해 먼저 회문산으로 통하는 길목인 청웅면을 수복해야 했고, 그래서 빨치산과 국군은 자주 임실읍과 청웅면을 연결하는 길목인 모래재에서 교전을 벌였다.<sup>99)</sup>

향교리 수풍마을은 모래재에 인접한 마을로 주민들은 모래재에서 총격 소리가 들리면 마을 뒷산으로 피신했는데, 이는 수차례에 걸친 군경의 토벌작전 과정에서 피신하지 않은 주민들이 군경의 총격을 받았기 때문이었다.<sup>100)</sup>

사건이 발생한 1950년 11월 7일 역시 국군은 모래재에서 일차로 교전을 했고, 주민들은 마을 뒷산으로 피신했는데, 국군은 수풍마을이 길가에 위치한 관계로 마을 안으로 들어와 먼저 마을 안의 무 밭에서 주민 박영술의 처(장수댁, 당시 20대 중반)를 사살하였다.<sup>101)</sup> 당일 최재의(崔在儀·1913) 역시 총격 소리를 듣고 산으로 숨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군인들이 이미 마을을 빠져나갔다고 생각하고는 산에서 내려왔으나 채 마을을 빠져나가지 않았던 군인에게 발각되어 마을 안 개천 옆에서 사살당했다.<sup>102)</sup>

사건을 목격한 최재의의 딸 최경남(당시 13세)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98) 모래재 인근에 위치한 청웅면 향교리 수풍마을 주민들은 ‘당시 항상 모래재에서 먼저 총소리가 들리면서 군경의 작전이 시작되었고, 그렇게 청웅면에 들어온 군경은 마을을 거쳐 면소재지인 구고리 방향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참고인 허장 진술조서, 2009.12.9; 참고인 최경남 진술조서, 2009.12.9).

99) “(수복 후) 한 달인가 지나서 11사단이 들어왔는데 모래재 방면에서 박격포가 구고리로 무지하게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겁에 질려서 피난을 갔어요.”(참고인 박연식 진술조서, 2009.12.8.)

100) “군인들이 도로를 따라 갔으면 마을에서 피해가 없었지. 그게 아니고 마을 안으로 들어와서 살살이 수색을 다 하면서 지나갔어. 그러니까 피해가 생겼지.”(참고인 허장 진술조서, 2009.12.9); “당시 군인들이 들어오면 사람을 죽인다고 그래서 마을의 청년들이 다들 피신을 했어요.”(참고인 양병옥 진술조서, 2009.12.8.)

101) “그분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박영술씨 부인인데, 성도 모르고, 장수댁으로만 불렀어요. 그 사람은 무 밭에 가다가 총탄에 맞았네요.”(참고인 최경남 진술조서, 2009.12.10.)

102) “우리가 그 당시 모래재에서 총소리만 들리면 산으로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그날도 그렇게 산으로 도망을 갔던 거야. 그러고는 군인들이 지나가고 조용해지니까 마을로 내려왔지. 내려와서 보니까 벌써 ‘아이고’ 소리가 나면서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보니까 최재의씨가 죽었더라고. …(중략)… 박영술씨 부인이 같은 날 죽었어요. 그분은 군인들의 총소리가 안 들릴 즈음 다 끝이 난 줄 알고 채소밭으로 일하러 가다가 총탄에 맞았어요.”(참고인 허장 진술조서, 2009.12.9); 신청인 최연남 진술조서(2009.12.10.)

## 제 4 권

“뒷산으로 숨었다가 군인들이 다 간 줄 알고 내려오시는데, 그 모습을 본 우리 어머니가 ‘왜 벌써 내려오느냐, 아직 안 끝났는데’라고 하셨어요. 그 소리를 듣고도 아버지는 군인들이 다 갔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웃으면서 내려오셨는데 집 앞의 도랑을 건널 즈음에 총소리가 나더니 폭 쓰러지시더군요. 어머니가 아버지더러 내려오지 말라고 ‘저쪽에서 여자 하나 죽고, 소도 하나 죽었는데, 왜 벌써 내려오느냐’고 하셨는데도 그렇게 내려오시다가 총에 맞았죠.”<sup>103)</sup>

신청인 최연남(1951년생)은 모친에게 ‘사건 이후 부친을 살해한 군인이 재차 마을을 찾아와 당일의 사건을 언급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sup>104)</sup>

당시 임실군에는 임실읍에 제13연대 2대대 8중대가, 오수면에 7중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한국전쟁사료』59권의 기록에 따르면, 1950년 11월 6일 ‘제2대대는 현재 임실, 오수에 주둔 중인 제8, 7중대로 하여금 (강진면) 갈담(리)을 확보함과 동시에 부근 일대의 적을 서남방으로 압축한 결과 인민군 완(전)무(장) 120명과 교전’하였고,<sup>105)</sup> 또 11월 8일에도 ‘제2대대는 현재 오수 및 임실에 주둔 중인 제7중대 및 제8중대로 하여금 운암(면) 및 갈담 일대를 제1, 3대대와 협동하여 부근 일대의 잔비를 소탕’하였다.<sup>106)</sup> 이는 즉 1950년 11월 초 임실읍과 오수면의 7, 8중대가 강진면의 빨치산 토벌을 위해 자주 출동했다는 기록이고, 상술했던 바와 같이 이들이 강진면을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먼저 청운면을 통과해야 했을 것이다. 따라서 최재의와 박영술의 처를 사살한 사람들은 국군 제13연대 2대대 7, 8중대 소속의 군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sup>107)</sup>

### 6) 임실읍 오정리 사건

#### 가) 사건개요

○ 사건번호: 다-10008호, 다-10009호

○ 사건개요: 1951년 5월 1일 국군은 운암면 학암리 주민 곽동섭, 김학식, 신창록, 이막

103) “아들이 없어서 작은 집에서 양자를 들였는데, 거기서 제사를 모셔요. 날짜는 음력 9월 27일입니다. 산날로 제사를 모시니까 돌아가시기는 음력 9월 28일(양력 11월 7일)이죠.”(참고인 최경남 진술조서, 2009.12.10.)

104) “어머니 말로는 그 군인이 나중에 다시 마을에 찾아와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 동네에서 여자 하나하고 남자 하나가 죽지 않았냐?’고 물어보면서 그 총을 쏜 사람이 바로 자기였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신청인 최연남 진술조서, 2009.12.10.)

105)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59, 1987, 589~590쪽.

106)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59, 1987, 592쪽.

107) 향교리의 최재의는 『대공전산화자료』의 ‘6·25 당시 처형자’ 명단에도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임실경찰서, 『대공전산화자료』, 1979). 한편 박영술 일가는 이미 마을을 떠나 더 이상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

동을 부역혐의로 임실을 오정리에서 총살하였다.

#### 나) 사건내용

1951년 4월경 국군 제11사단을 대신하여 임실에 주둔한 국군 제8사단<sup>108)</sup>은 운암면 학암리 인근에서 활동하던 빨치산 1명이 자수하자 그를 앞세워 각 마을에서 빨치산에게 협조했던 사람들을 색출하였다.<sup>109)</sup>

당시 학암리 광석마을 구장이었던 김학식(金學植 · 1907)은 빨치산의 요구에 부득이 식사도 제공하고 그들에게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자수한 그 빨치산이 김학식과 주민 김남식을 빨치산 협조자라 지목하여 국군에게 끌려가게 되었다. 도중에 김남식은 국군에게 자신이 외아들이라 자기가 죽으면 대가 끊긴다고 사정하여 풀려났으나 김학식은 그렇지 못하였다.<sup>110)</sup> 이에 대해 참고인 전경용은 ‘김남식이 원래 인민군 점령기에 세 포위원장을 하는 등 인민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이라 죄가 더 큰데 김남식이 안 죽고 오히려 김학식이 죽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sup>111)</sup>

당일 광석마을에서 김학식을 연행한 국군은 인근 학산마을로 이동하여 학산마을 주민 곽동섭(郭棟燮, 일명 곽동식 · 1907), 신창록(申昌祿, 일명 신창식 · 1926), 이막동(당시 20대 초반)도 함께 끌고 갔다. 신창록과 이막동의 경우, 수복 이후에 입산했다 마을에 돌아와 지서에 자수한 상태였는데, 그들은 국군 앞에 서 있는 옛 동료를 보고 이들이 국군 복장을 한 빨치산이라 판단하여 ‘동무’라 하며 악수를 청했고, 그들의 반응을 확인한 국군은 즉시 그들을 체포하였다.<sup>112)</sup>

108)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59, 1987, 742쪽; 또 『정기작전보고』126호(1951년 5월 19일자)에 따르면, 국군 제8사단 21연대는 4월 8일부터 전주로 이동하여 국군 제11사단 13연대와 임무를 교대하고, 1개월여에 걸쳐 토벌작전을 수행하다가 5월 19일 미제10군단의 예비대로 편성되어 제천으로 이동하였다(『한국전쟁사료』22, 1987, 892쪽).

109) 신청인 곽준상의 누나 곽옥희(당시 13세)는 ‘빨치산 1명이 생포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참고인 곽옥희 진술조서, 2009.12.2), 참고인 전경용(당시 26세)과 이강암(당시 25세)은 그가 자수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참고인 전경용 진술조서, 2009.12.4; 참고인 이강암 진술조서, 2008.2.22).

110) “낮에 군인들이 자수한 빨치산을 데리고 다니면서 마을 사람들을, 죄 없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았습시다. 나중에 듣기로는 군인들이 후퇴하면서 그 자수한 빨치산도 죽였다고 하더군요. 김학식은 빨치산 그 사람이 말해서 그렇게 연행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시 사람들이 무서워서 나오질 못했는데, 저는 집에서 멀찍하게 군인들이 김학식을 데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략)… 제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잘 기억 나지는 않지만, 김학식이 끌려 간 것은 확실하고, 한 명은 독자라고 하소연해서 풀려난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참고인 이강암 진술조서, 2008.2.22); “우리 당숙 김남식씨도 잡혀가다가 아들도 없고, 죄도 없는데 나를 왜 잡아 가냐고 울며 사정해서 놓아주었다고 하더군요.”(신청인 김용주 진술조서, 2009.12.3.)

111) 참고인 전경용 진술조서(2009.12.4.)

112) “이막동과 신창록은 나중에 산에서 내려와 자수해서 살았는데, 그 당시 함께 산에 있었던 다른 빨치산 한 명은 자수해서 군인에 들어갔답니다. 어느 날 군인들이 그 자수한 빨치산을 데리고 마을에 들어와

그리고 광동섭은 마을에서 이발 일을 하였는데, 마을 인근의 빨치산들이 이발을 부탁하자 처음에는 이발을 해주다가<sup>113)</sup> 나중에는 기계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는 등 빨치산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다.<sup>114)</sup> 참고인 광옥희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국군과 함께 왔던 빨치산이 자신들에게 협조하지 않던 부친(광동섭)에게 양심을 품고 있었는지, 부친까지 빨치산 협조자라고 지목하여 함께 끌고 갔다고 한다.<sup>115)</sup>

김학식, 광동섭, 이막동, 신창록 등은 임실읍으로 끌려간 다음 날인 1951년 5월 1일<sup>116)</sup> 임실읍 오정리 오정마을 뒤편의 속칭 여시골에서 국군에게 총살되었고, 그 소식은 곧바로 마을로 전해져 가족들이 현장에 가서 시신을 수습하였다.

“잡혀간 다음날 돌아가셨답니다. 음력 3월 26일이 장날이었는데, 당시 우리 어머니가 돈을 마련해서 임실경찰서로 찾아가는 중에 벌써 돌아가셨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당시 오정마을 사람들이, 새벽에 마을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는데, 한 남자가 내 이름(광준상)을 그렇게 부르며 끌려가더라고요. 그러고는 여시골에서 총소리가 들렸고 그래서 광준상의 아버지가 여시골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장터에 나온 사람들에게 퍼져, 그 얘기를 들은 어머니가 삼촌과 함께 그 장소를 찾아가 시신을 확인했답니다.”<sup>117)</sup>

“그때 8사단 군인들이 임실읍에 주둔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끌고 간 사람들을 잡아간 다음날 바로 임실읍 오정리 여시골이라는 곳으로 끌고 가서 죽였다고 하더군요. 임실읍에 살던 사람들이 마을로 연락을 해주었는데, 여시골에서 총소리가 무지하게 났다고 합니다.

---

서는 입산했던 사람들을 찾아 이막동과 신창록이 불러나왔는데, 이막동과 신창록이 밖으로 나와보니 제일 앞에 함께 산에 있던 사람이 있어, 이들을 국군 복장으로 가장한 빨치산이라고 판단하고는 ‘동무’라고 하며 악수를 했습니다.”(참고인 배창원 진술조서, 2009.12.3); 신창록의 외사촌으로 같은 마을에 거주했던 손홍양(당시 11세)은 당일 신창록이 군인에게 잡혀가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고 한다(참고인 손홍양 진술조서, 2009.12.3).

113) 참고인 황성래(당시 17세)는 ‘광동섭씨는 마을에서 이발을 하던 분으로, 집이 마을에서 제일 갓 집인데 한두 번 빨치산들이 그 집에 가서 이발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참고인 황성래 진술조서, 2009.12.3).

114) “광동섭씨가 세상이 하수상하니 겁도 나고 해서 이발 기구를 어디다 치우고 기구가 없어 이발을 못 해주겠다고 했대요.”(참고인 배창원 진술조서, 2009.12.3.)

115) “그 빨치산이 우리 아버지가 이발 안 해준 게 마음에 양심이 남았는지, 아니면 그런저런 협조를 안 했던 것에 양심을 품었던 건지 군인들에게 우리 아버지까지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잡혀간 겁니다.”(참고인 광옥희 진술조서, 2009.12.2.)

116) 김학식의 제적부에는 사망일이 1951년 3월 25일(양력 4월 30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신청인 김용주는 부친 김학식의 제사를 음력 3월 25일에 모시고 있어, 사망일자는 음력 3월 26일(양력 5월 1일)이 맞다고 진술하였다(신청인 김용주 진술조서, 2009.12.3). 이는 사망신고 당시 제사 일자를 사망일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신창록의 제적부에도 사망일자는 1951년 3월 26일로 기록되어 있어, 사건발생일과 일치하고 있다.

117) 신청인 광준상 진술조서(2009.12.2.)



그래서 집안에서 여시골로 사람들을 보내 시신을 수습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sup>118)</sup>

당시 임실읍에는 국군 제8사단 수색대대가 주둔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당시 임실과 그 인근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부대에 대한 기록에 근거한 것이다. 『한국전쟁사료』에는 제8사단 수색대대가 4월 15~16일 임실군 관촌면에서, 그리고 4월 20~21일에는 순창군 쌍치면에서 교전했다는 전투상보가 있고,<sup>119)</sup> 또 1951년 5월 4일부터는 제10연대 1대대와 함께 정읍의 국사봉 전투에 참여했는데, 당시 수색대대는 임실을 출발하여 정읍으로 이동했다고 기록되어 있다.<sup>120)</sup> 임실군 관촌면은 임실군의 동북방 끝에 위치하고 순창군 쌍치면은 임실군의 서남쪽 끝과 경계를 이루는 지역이며 정읍은 임실군과 서쪽으로 경계를 이루는 지역이다. 즉 8사단 수색대대는 1951년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임실과 순창 그리고 정읍 등지에서 작전을 수행했는데, 임실은 지리적으로 이 세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수색대대는 작전의 편의상 임실지역에 주둔하면서 지역의 치안과 빨치산 토벌을 담당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1951년 5월 1일 임실읍 오정리에서 국군 제8사단 수색대대가 운암면 학암리 주민 김학식, 광동섭, 이막동, 신창록 등을 부역혐의로 총살한 사건으로 판단된다.<sup>121)</sup>

## 7) 성수면 왕방리 사건

### 가) 사건개요

○ 사건번호: 다-10010호<sup>122)</sup>

○ 사건개요: 1951년 3월 20일 국군은 성수면 주민 송주동 외 다수를 부역혐의로 성수면 왕방리 속칭 문바위에서 총살하였다.

118) 신청인 김용주 진술조서(2009.12.3): 당시 오정리 오정마을에 거주했던 참고인 김영철은 ‘부친을 통해 김용주의 부친이 오정마을 앞 냇가에서 사망하여 그 가족이 시신을 찾아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참고인 김영철 진술녹취, 2009.12.13), 참고인 손홍양은 신창록, 광동섭, 이막동의 시신을 그 가족들이 함께 찾아왔다고 진술하였다(참고인 손홍양 진술조서, 2009.12.3).

119)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58, 1987, 528~532쪽.

120)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57, 1987, 47~48쪽.

121) 이막동은 마을에서 머슴을 살던 사람으로 가족이 없어 더 이상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

122) 다-10010호는 신청인 송병섭(희생자 송주동)이 유족 태재춘(희생자 태종섭)·노지홍(희생자 노종남, 노종완, 노종선)·심학순(희생자 심진문)·송완섭(희생자 송달섭)·최춘섭(희생자 최순형)·송해섭(희생자 송화섭)·정인영(희생자 정인학)을 대표하여 신청한 사건이다(각주 9] 참조).

## 나) 사건내용

임실읍 수복 초기 성수지서 경찰은 임실읍의 향교와 임실역 인근에 임시 지서를 설치하고, 성수면 출신의 청년들을 의경으로 모집하여 낮에는 성수면에 들어가 수복작전 및 부역자 색출을 하고 밤이면 다시 임실읍의 임시 지서로 철수하다가 1951년 초에 비로소 성수면소재지인 양지리에 지서를 설치할 수 있었다.<sup>123)</sup>

당시 지서 주임 오갑수(吳甲洙, 1924년생, 망)<sup>124)</sup>는 주민들 중 수복 이전에 좌익활동을 했거나 자의든 타의든 관계없이 부역했던 사람들은 모두 지서에 나와 자수하게 하였다. 성수면 주민들은 대부분 당시 오갑수 주임이 부역자들을 처벌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훈방시켜 빨치산과의 관계를 끊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알고 있었다. 당시 성수지서에서 의경으로 근무했던 참고인 진○○(당시 21세)도 ‘오갑수 주임이 예전에 부역을 했던 사람들이든, 사상범이든, 무엇을 했든 상관없이 누구나 자수만 하면 양민으로 인정하겠다’고 선포하여 매일 사람들이 지서에 와서 ‘고백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하였다.<sup>125)</sup>

그렇게 자수한 주민들은 지서 유치장에 임시로 구금되어 있었는데, 속칭 ‘백골부대’라는 국군부대가 성수면의 성수산, 그리고 성수면에 접해 있는 진안군 백운면의 덕태산, 시루봉(1120m) 등지로 토벌작전을 가기 위해 면소재지를 통과하여 백운면으로 이동했다가 예상하지 못했던 큰 피해를 당하고는 성수면으로 돌아와 그 화풀이로 지서에 구금되어 있던 주민들을 총살하였다.<sup>126)</sup>

123) “임실읍이 수복되면서 임실역 근처에 성수지서가 임시로 설치되어 있었어. 그곳에 가 보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이 대한청년단 특공대장으로 계시더라고. 그분이 나를 보고는 와서 일하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특공대 대원으로 일하면서 총대를 메고 빨치산 토벌을 다닌 거야. 나중에 지서를 완전히 복구 해서 성수면으로 옮겨와 계속 활동했지.”(참고인 진○○ 진술녹취, 2009.12.13); “처음에 성수지서가 임실 향교에 만들어졌다가 임실역전으로 옮기기도 했고, 그때는 지서가 향교와 역전을 오갔는데, 역전이 불안 하면 향교로 갔다가 괜찮아지면 역전으로 가고 그러면서 낮으로 성수면에 들어왔다가 밤이면 임실로 나가고 그랬지. 그때부터 지서에서 근무했어.”(참고인 박○○ 진술녹취, 2010.1.12); “성수지서가 원래 임실역전에 있었는데, 난 지서가 성수면에 들어온 다음에 의경이 됐어. …(중략)… (성수지서는) 전쟁 난 이듬해 봄에 들어왔어.”(참고인 서○○ 진술녹취, 2010.1.12.)

124) 오갑수는 인사프로필에 따르면 1950년 12월 20일 성수지서 주임으로 발령받아 1951년 3월 25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25) 참고인 진○○ 진술녹취(2009.12.13); 참고인 정문조 진술조서(2009.12.11); 한편 현재 임실경찰서와 성수치안센터를 관할하고 있는 오수지구대에는 당시 오갑수 지서주임이 받았다는 ‘고백서’가 보존되어 있지 않았다.

126) 신청인 송병섭(당시 9세)은 1980년대 성수면에서 학교에 근무하며 당시 임실군 유지들의 모임에 총무를 맡고 있었는데, 모임의 회원들 중에 사건과 관련된 사람인 홍환표(전쟁 당시 성수면장), 오갑수(전쟁 당시 성수지서 주임), 양해갑(전쟁 당시 성수면 청년대장) 등이 있어 이들의 얘기 속에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하고(신청인 송병섭 진술조서, 2009.12.17), 참고인 박○○(당시 28세) 역시 ‘백골부대가 진안군 백운면에서 빨치산에게 패퇴한 후 그 화풀이로 성수면 주민들을 살해했다’고 진술하였다(참고인

당시 오갑수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군인들이 총을 꺼내며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자 힘을 쓸 수 없었고,<sup>127)</sup> 군인들은 1951년 3월 20일 감금되어 있던 주민들을 성수면 왕방리의 속칭 문바위로 끌고 가 구덩이를 파게하고는 모두 총살시킨 후 재차 학인사살도 하였고, 마지막에는 귀를 잘라 그 숫자까지 확인해갔다고 한다.

“해가 질 무렵 사람들을 차에 싣고, 한 차에는 삽과 곡괭이를 싣고 오봉리와 왕방리의 경계가 되는 문바위라는 곳에 가서는 삽과 곡괭이를 나눠주며 땅을 파라고 했습니다. 그때 문바위 인근 여러 곳에 몇 개의 구덩이를 파고는 그 안에 들어가게 했고, 지휘관의 신호가 떨어지자 그 구덩이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동시에 총격을 가하여 모두 총살시켰다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군인들이 사람들의 왼쪽 귀를 잘랐습니다. 그 귀를 모아서 전과보고를 하여, 나중에 그 대장이 훈장을 탔다는 얘기가 있더군요.”<sup>128)</sup>

“우리 마을의 설동신씨를 비롯한 수십 명이 문바위로 끌려갔는데 그 골짜기에 몰아넣고는 빙 둘러 서서 총을 쏘더군요. 사람들이 다 쓰러지는데, 설동신씨는 어깨에 총탄을 맞고 다른 시신들 옆에 죽은 듯이 누워서 꿈쩍을 안 했데요. 1차 총격이 끝난 뒤에 군인들이 죽은 사람들을 들썩이면서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 사람들을 재차로 학인사살하더군요. 그런 속에서도 죽은 듯이 꿈쩍하지 않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물러가고 날이 밝자 마을로 돌아왔다고 하더군요.”<sup>129)</sup>

박○○ 진술녹취, 2010.1.12).

127) “백골부대 지휘관들이 오갑수 지서주임에게 (고백서의) 명단을 내놓으라는 거야. 지서장은 그때 지서 지하를 파서는 그 안에서 사무를 보았는데, 먼저 왜 그 명단을 달라고 하냐고 따졌어. 그랬더니 자기네가 빨치산을 토벌하러 왔는데, 작전을 하면 자기네는 빨치산에게 당해서 그 숫자가 줄어들고, 빨치산은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야. 그게 다 마을에서 빨치산과 선을 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선을 대는 그 사람들을 다 죽여야겠으니 명단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어. 그 말을 듣고 지서주임이 어떻게 그걸 내놓겠어. 절대로 못 내놓는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총을 겨누면서 내놓으라는 거야. 그래도 지서장이 ‘날 죽여도 그럴 수는 없다고 버텼어. 그러고는 임실경찰서 서장에게도 연락을 하면서 버텼는데, 당시에 경찰이 군인한테 이길 수가 있나. 결국 그 명단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지.’(참고인 진○○ 진술녹취, 2009.12.13); “오 주임이 보니까 군인들이 사람들을 죽일 것 같거든. 그래서 세 명인가를 빼냈어. 정말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그 지휘관이 세 명이 빈다고 하면서 오 주임한테 권총을 들이대면서 사람이 왜 비냐고 찾아내라고, 안 그러면 너를 죽인다고 그랬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도 데리고 왔지. 그 사람들이 숫자를 세 보니까 몇 명이 비거든. 그래서 총을 빼든 거야. 너도 죽인다고.”(참고인 박○○ 진술녹취, 2010.1.12.)

128) 신청인 송병섭 진술조서(2009.12.17); “그 사람들이 문바위에서 사람을 죽이고는 빨치산 죽였다고 증거로 삼는다면서 귀를 잘라갔다고 하는 소문이 돌았어요.”(참고인 김종열 진술조서, 2009.12.11); “마을에서 최순형씨 가족들이 현장에 가서 시신을 수습해 왔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들은 말로는 총을 쏘고 난 다음에 또 칼로 찌르고 그랬데요. 그래서 얼굴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옷으로 겨우 찾은 거였습니까.”(참고인 송이섭 진술조서, 2009.12.11); “그렇게 잡아가다 하루 저녁에 죽이고는 그걸 빨치산 죽였다고 전과 보고를 한 거야.”(참고인 진○○ 진술녹취, 2009.12.13.) 그러나 『한국전쟁사료』 등 공간사의 기록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전과보고는 확인할 수 없었다.

신청인과 참고인들은 모두 당시 가해부대가 ‘백골부대’라는 이름의 국군이었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사단 명칭이나 연대 명칭은 알지 못했는데, 사건이 발생했던 1951년 3월 중순 임실군 성수면지역에 주둔하며 작전을 수행했던 부대는 국군 제11사단에 배속된 제2경비대대(부대장 김병욱)뿐이었다. 제2경비대대는 원래 유격사령부 예하의 제5유격대를 개칭하여 1950년 11월 24일 편성된 부대인데,<sup>130)</sup> 1951년 3월 3일 육본작전명령 263호에 의거 국군 제11사단에 배속되었고<sup>131)</sup> 동월 12일에 전주에 도착하였으며<sup>132)</sup> 15일에는 임실군으로 이동하여<sup>133)</sup> 주둔지 인근을 수색·토벌하다가 19일부터 27일까지 성수면의 성수산과 그에 인접한 진안군 백운면 덕태산에서 집중적인 빨치산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sup>134)</sup>

당시 성수산의 속칭 북당골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한 원증이 마을과 대판이 마을은 소위 빨치산들의 해방구였고,<sup>135)</sup> 성수산은 회문산과 지리산을 연결하는 주요 통로 중 하나였다. 그러한 지리적 요인 때문에, 1951년 1~2월 국군 제11사단의 회문산 토벌작전이 강화되자<sup>136)</sup> 이를 피해 전북도당은 3월 중순 회문산을 출발하여 성수산, 삼각산, 덕태산, 무

129) 도인리 주민 이기만(당시 17세)은 ‘마을주민 중 김용희와 설동신이 왕방리로 끌려갔다가 설동신은 살아 돌아왔는데, 그 설동신이 당시의 얘기를 해주어 알게 되었고, 설동신씨는 당일의 충격 때문이었는지, 3년 후 같은 날짜에 돌아가셨다’고 진술하였다(참고인 이기만 진술조서, 2009.12.14).

130) 1950년 11월 24일 국일명 제108호에 의거, 후방의 공비토벌 및 도로경비 등 후방치안확보 그리고 포로정비를 위하여 강원도 울진의 제3유격대를 제1경비대대로, 경남 밀양의 제5유격대를 제2경비대대로, 경북 의성의 제6유격대를 제3경비대대로 개칭하였다(육본 군사감실, 『병과별 부대역사』, 1959, 16쪽). 한편 현재 확인 가능한 국방부의 『일반명령철』에는 11월 24일자 ‘국일명 제108호’가 빠져 있어 더 이상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일반명령철(1949~1950)』; 국가기록원 부산문서고 소장 『일반명령철(1949~1952)』).

131) ‘제1, 제2, 제10경비대대를 제11사단장이 지정하는 제11사단 담당지구 내 목적지 도착과 동시에 통합 지휘하라’, ‘제2경비대대는 대구 도착과 동시에 남원 부근으로 계속 이동할 준비를 갖추라. 최후 목적지 도착과 동시에 제11사단장에게 배속한다.’(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63, 1987, 715~716쪽.)

132) 『육본 작전일지』(1951.3.12)에는, ‘제2경비대대(400명)는 부대장 김병욱 지휘 하, 3월 12일 12시 50분에 전주에 무사히 도착하였음’이라는 11사단장의 부대행동보고가 있다(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91, 1990, 775쪽).

133) 『정기작전보고』제61호(1951.3.15)에 따르면, ‘제1경비대대는 15일 08시 전주에 도착 완료. 제2경비대대는 전주에서 전주경비임무를 교대. 15일 10시 임실에 이동’하였다(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21, 1987, 544쪽).

134) 『육본 작전일지』(1951.3.20), 『한국전쟁사료』91, 1990, 1113쪽; 『정기작전보고』제66~73호(1951.3.20~3.27), 『한국전쟁사료』21, 1987, 653~797쪽.

135) “그때 여기에 빨치산이 꼭 들어찼었어. 그래서 왕방리, 오봉리, 삼청리가 다 불탔어. 빨치산들 살지 못하게 한다고 군인들이 마을을 다 불태웠어.”(참고인 서○○ 진술녹취, 2010.1.12); “(성수면의 빨치산들은 주로) 왕방리 원증이 마을, 대판이 마을에 많이 있었어요. 그쪽이 산골짜기였거든.”(참고인 김종열 진술조서, 2009.12.11); “빨치산들이 성수산 북당골에 많았어.”(참고인 진○○ 진술녹취, 2009.12.13); “대판이, 원증이 바로 그 위가 북당골이야. 석문동이라고도 하지. 거기서 빨치산들이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참고인 박○○ 진술녹취, 2010.1.12).

136) 사건이 발생한 1951년 1~2월은 국군 제11사단 13연대와 20연대의 회문산 토벌작전이 대규모로 집중되던 시기였다. 『한국전쟁사료』와 『미8군 정기작전보고』에 따르면, 1951년 1월 15~18일 사이에 13연대 1대대 4개 중대가 회문산을 공격하였고(『한국전쟁사료』59, 1987, 640~642쪽), 동월 31일에도 13연대와 20

주를 지나 지리산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회문산의 전북도당을 외곽에서 경계하던 임실군 유격대도 삼계면 학정리를 출발하여 성수산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sup>137)</sup> 이들을 쫓아 제2 경비대대가 19일부터 성수산과 덕태산에서 토벌작전을 벌였던 것이다.

그러나 제2경비대대가 바로 ‘백골부대’였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확인된 것이 없다. 다만 ‘군인들의 짐을 지고 성수산으로 따라가다 자기네가 백골부대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삼청리 주민 정문조(당시 30세)의 진술이나,<sup>138)</sup> 성수산에서 빨치산으로 활동했던 참고인 임방규의 ‘당시 그 군인들이 철모에 해골마크를 달았던 모습을 기억한다’는 진술,<sup>139)</sup> 그리고 제2대 국회의원이었던 김정두(金正斗, 지역구 순창군) 의원이 195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전남북 지역의 피해상황을 언급하며 ‘11사단의 맹호부대, 쌍룡부대, 호림부대, 백골부대가 그야말로 석화전광(石火電光)과 같이 한 번 다녀가는 마당에는’ 이라며 11사단 예하에 ‘백골’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부대가 있었음을 밝히는 발언<sup>140)</sup> 등에 근거하면, 11사단에 배속되어 성수면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제2경비대대가 바로 참고인들이 말하는 소위 ‘백골부대’였던 것으로 판단된다.<sup>141)</sup>

한편 참고인 진○○(당시 21세)은, ‘사건 이후 백골부대는 성수면을 떠났지만 오갑수

연대 일부 병력이 회문산을 공격하였으며(『미8군 정기작전보고』, 610호(1951년 2월 1일자), 2월 9~16일 사이에는 20연대 1, 2대대가 함께 회문산에서 작전을 수행하였고(『한국전쟁사료』59, 1987, 1025쪽), 2월 21일에는 또 13연대와 20연대 일부 병력이 함께 회문산 소탕전을 벌였다(『한국전쟁사료』59, 1987, 1028쪽). 그 후 3월 5일에도 20연대 1대대는 순창군 구림면 장군봉과 회문산에서 토벌작전을 벌였다(『한국전쟁사료』59, 1987, 1052쪽).

137) “1951년 3월 중순에 회문산이 넘어가면서 전북도당 본부가 성수산, 삼각산, 덕태산, 무주를 지나 지리산으로 이동했어요. 회문산 외곽경계를 했던 우리 임실 유격대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졌죠. 그래서 우리도 3월 중순에 운암면을 지나 성수산으로 갔어요. …(중략)… 당시 우리 유격대는(삼계면 학정리의) 원통산 뒤로 해서 운암면, 임실읍을 지나 성수산으로 이동했어요.”(참고인 임방규 진술조서, 2010.2.18.)

138) “(백골부대를) 직접 봤지. 내가 그때 양지리에서 집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어딘가 들에서 그 백골부대 사람들에 붙잡혔어. 나하고 몇몇 젊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붙잡혀서 그 사람들 짐을 지고 갔는데, 가보니 까 성수산이었어. …(중략)… 자기네가 백골부대라고 얘기했어. 몇 사단이라고 했는지는 잊었어.”(참고인 정문조 진술조서, 2009.12.11.)

139) “(몇 사단인지) 그런 건 모르겠고, 백골부대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어요. 포로로 잡은 군인 중에서 헬멧에 해골마크를 달고 있는 사람도 봤어요.”(참고인 임방규 진술조서, 2010.2.18.); 삼청리 구곡마을 주민 송이섭(당시 13세) 역시 ‘사건이 있기 전에 마을 앞으로 백골부대가 지나가는 걸 본 적이 있는데, 해골에 다다 빼를 그려 넣은 마크를 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참고인 송이섭 진술조서, 2009.12.11.).

140) 안건 명: ‘공비로 인한 전라남북도 지방 피해실정 조사보고’(국회사무처, 『제10회 국회정기회의의 속기록, 제68호』, 1951.4.29.)

141) 참고인 이강영(당시 17세)도, ‘당시 백골부대가 11사단 소속의 어느 부대였다는 전언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참고인 이강영 진술조서, 2009.12.13). 한편 한국전쟁 당시 ‘백골’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국군부대로는 또 유격부대로 편성되었던 ‘백골병단’이 있기는 하나, 사건 당시 백골병단은 강원도 일대에서 작전을 수행했다(조성훈,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109쪽).

주임이 그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였고, 결국 육군본부에까지 소식이 전해져 특무대가 성수면에 파견되었으며 특무대의 조사를 통해 당시 백골부대의 지휘관들은 처벌받았고, 부대는 해체되었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진술하였다.<sup>142)</sup>

그러나 당시의 제2경비대대 부대장인 김병욱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그를 비롯한 기타 지휘관들이 실제 처벌을 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sup>143)</sup>

참고인들은 당시 희생된 사람들이 30여 명에서 70여 명, 심지어 100여 명까지 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했으나,<sup>144)</sup>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람은 23명뿐이었고, 그들 중에는 실제 부역을 했거나 좌익활동을 했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 외에 부역자의 가족도 있었고, 또 좌익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도 있었다.<sup>145)</sup>

삼청리 천동마을에서는 송주동(宋柱東, 일명 송계동(宋桂東) · 1917), 정인학(鄭寅學 · 1921), 최동우(崔東雨 · 1923), 최재섭(崔在燮 · 1928)이 총살당했다. 신청인 송병섭은 부친

142) 참고인 진○○ 진술녹취(2009.12.13): 한편 참고인 박○○은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엄병학(嚴秉學 · 1917~1997, 지역구 임실군)이 성수면 사건을 국방부에 항의했고, 그로 인해 해당 부대 책임자가 문제를 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참고인 박○○ 진술녹취, 2010.1.12). 그러나 엄병학은 1950년 12월 25일 '부역 행위특별처리법중개정법률안'의 심의 과정에서 '부역자 처벌과정에 양민이 섞여 있는 경우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형(私刑)이 자행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취지의 발언만 했을 뿐이고(국회사무처, 『제10회 국회정기회의 속기록, 제5호』, 1950.12.25), 성수면 사건이 발생한 후인 동년 5월 29일에 있었던 '전북지방의 치안상태에 관한 질문'에서도 성수면 사건에 대한 발언은 찾아볼 수 없었다(국회사무처, 『제10회 국회정기회의 속기록, 제90호』, 1951.5.29).

143) 참고인 박○○은 '백골부대' 책임자가 대대장에 계급이 대령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참고인 박○○ 진술녹취, 2010.1.12), 참고인 서○○(당시 28세)은 '백골부대'의 지휘관이 대위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참고인 서○○ 진술녹취, 2010.1.12). 참고인들의 진술에서 이렇게 지휘관의 계급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국군 제11사단에 이어 임실지역에 주둔했던 제8사단의 1개 중대가 성수면 소재지에 주둔한 일이 있었고, 주민들은 그 8사단 1개 중대의 최고 지휘관과 '백골부대'의 지휘관을 서로 혼동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로 판단된다.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백골부대'는 성수면에 주둔지를 마련하지 않은 채 2~3일 사이에 스쳐지나갔고, 8사단의 1개 중대는 성수면 소재지 인근의 강변에 주둔하고 활주로까지 만들어 한 달 이상을 주둔하였다고 한다(참고인 이옥용 진술조서, 2009.12.14; 참고인 송병섭 진술조서, 2009.12.17; 참고인 박○○ 진술녹취, 2010.1.12; 참고인 서○○ 진술녹취, 2010.1.12).

144) 참고인 박○○은 희생자 숫자를 30여 명으로 기억하고 있었고(참고인 박○○ 진술녹취, 2010.1.12), 참고인 서○○은 100여 명이라 진술하였으며(참고인 서○○ 진술녹취, 2010.1.12), 참고인 송이섭은 60여 명(참고인 송이섭 진술조서, 2009.12.11), 신청인 송병섭은 원래 40여 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주민들을 통해 희생자가 모두 72명이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신청인 송병섭 진술조서, 2009.12.17). 그러나 신청인과 참고인 모두 희생자 전체의 정확한 신원은 알지 못했다.

145) "그때 죽은 사람들이 부정자(不正者) 가족이라고 좌익 가족도 있었지만, 우익 가족도 있었어. 죄 없는 사람도 있었지."(참고인 박○○ 진술녹취, 2010.1.12); "그 당시 부역한 사람들이 자기 뜻으로 한 사람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했던 사람들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면 되겠어! 사람을 죽이려고 해도 그 죄의 경중에 따라 갑, 을, 병을 나누어서 정말 중한 사람은 죽이더라도 죄가 가벼운 사람은 놓아주어야 하는데, 가리지를 않고 모두 데려가서 죽인거야."(참고인 진○○ 진술녹취, 2009.12.13); 참고인 서○○은 '김수곤이 마을의 민청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지서에 있었고, 그 부친 김점동은 아들을 살리려 쫓아가다가 함께 사살 당했다'고 진술하였다(참고인 서○○ 진술녹취, 2010.1.12).

송주동이 건국준비위원회에서 활동한 중부 송계철의 영향을 받아 활동하다가 전쟁 당시 좌익으로 몰렸고, 수복 이후 지서에 자수했는데 결국 백골부대에게 총살당했다고 진술하였다.<sup>146)</sup> 천동마을 주민 김종열(당시 17세)은 또 나머지 3명의 사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우리 천동마을에서 정인학, 최동우, 최재섭 세 분이 죽었어요. 세 집에 제사가 모두 음력 2월 12일(양력 3월 19일)이야. 그 가족들이 다 가서 시신을 수습하여 모시고 왔어요. 묘 쓰고 하는 것도 다 봤어요.”<sup>147)</sup>

삼청리 구곡마을에서도 최순형(崔順亨 · 1926)과 한영태(韓永泰 · 1929)가 총살당했는데, 이들의 사망에 대해 참고인 송이섭(당시 13세)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우리 구곡마을에서 한영태, 오봉춘은 아주 유명했어요. 이 사람들은 2·26 사건 때부터 좌익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예요. 전쟁이 터지니까 자기네 세상이 되었다고 그렇게 활동을 했죠. 오봉춘씨는 나중에 병사하셨고, 한영태씨는 문바위에서 돌아가셨어요. 또 최순형씨도 죽었고.”<sup>148)</sup>

양지리에서는 서오복(徐五福 · 1923), 심익만(沈益萬 · 1928), 이존갑(李存甲, 일명 이존용 · 1925) 등 3명이 총살당했는데, 이존갑의 동생 이옥용(당시 9세)은 이들의 사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우리 형님 이존갑이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마을에서는 형님뿐이고 옆 마을에서는

146) “우리 중부님(송계철)이 일제 때 민족운동을 하시고 해방 후에는 건준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우리 아버님(송주동)도 중부님을 따라 심부름을 하러 다니셨답니다. …(중략)… 그래서 아버님은 전쟁 때 좌익 쪽으로 몰리던 상황이었죠. 그러다 아버님은 수복 이후에 지서에 자수를 했는데 백골부대에게 그런 일을 당한 겁니다.”(신청인 송병섭 진술조서, 2009.12.17); “(양지리) 학당마을에 살던 송병섭씨 부친(송주동)도 거기서 죽었다고 하더군요. 이름은 모르는데, 원래 천동마을 살았던 사람이라고는 하더군요.”(참고인 노향순 진술조서, 2009.12.14.)

147) 참고인 김종열 진술조서(2009.12.11); “가까운 마을인 천동마을에서도 정인학, 최동우, 최재섭, 송주동이라는 분들이 돌아가셨고.”(참고인 송이섭 진술조서, 2009.12.11); “천동마을에서 최동우, 정인학, 최재섭이 죽었어요. …(중략)… 시신들은 가족들이 찾아왔답니다. 가족들이 가니까 백골부대가 사람들을 죽이고 신작로 가에다가 그냥 물어놔데. 그걸 파서 다시 모시고 왔다고 하더군요.”(참고인 정문조 진술조서, 2009.12.11); “큰형님(정인학)이 백골부대에게 돌아가셨고, 둘째형님(정인수)은 군대에 가서 전사했어요. …(중략)… 또 송주동, 최동우, 최재섭씨도 큰형님과 함께 죽었고.”(참고인 정인해 진술조서, 2009.12.10.)

148) 참고인 송이섭 진술조서(2009.12.11); “(구곡마을) 최순형과 한영태도 거기서 죽었어.”(참고인 김종열 진술조서, 2009.12.11); 한편 최순형의 제적부 상 사망일자는 1951년 2월 11일(양력 3월 18일)로 사건발생일인 3월 20일과 이들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심씨 집안에서 두 명이 죽은 걸로 알고 있고, 지서에서 자수를 하면 죄를 묻지 않는다고 해서 자수를 했데요. 우리 동네에 심씨 형제들이 좌익활동을 열심히 했다더군요. 그래서 형님이 그 심씨들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하니까 거기에 휩쓸려 다니면서 물이 들었는지도 모르죠. 나는 시신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그때 아버지하고 둘째형님하고 형수가 현장에서 시신을 모셔왔다고 그래요.”<sup>149)</sup>

봉강리의 희생자는 모두 5명인데, 그중 구계월마을에서는 노종남(魯鍾南 · 1919), 노종선(魯鍾善 · 1934), 노종완(魯鍾完 · 1922) 3형제가 총살당했다. 이들은 모두 형제간으로 원래 4형제였는데 그중 한 명(노종문)이 의용군으로 갔다가 빨치산 활동을 했고, 그 때문에 나머지 3형제가 지서에 끌려가 백골부대에게 총살당했다.<sup>150)</sup> 그리고 신계월마을에서는 송달섭(宋達燮 · 1922)과 송화섭(宋化燮 · 1921)이 총살당했다.

“우리 마을에서 형님(송화섭)과 송달섭이가 함께 끌려갔어. 두 분 다 시신은 찾아왔어. 우리 형님은 내가 찾아서 지고 왔고, 총을 가슴에 무지하게 맞았더라고. (사건현장에) 시체가 겁나게 많았어.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송달섭씨 시신도 봤는데, 그 사람은 총만 맞은 게 아니고 돌덩이로 때렸는지 턱이 깨져 있더라고.”<sup>151)</sup>

월평리의 희생자는 수월마을의 송상섭(당시 30대)과 송재섭(당시 30대),<sup>152)</sup> 월굴마을의

149) 참고인 이옥용 진술조서(2009.12.14): “나야 시집 와서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들은 건데, 우리 큰 시아제의 부인(서오복)과 그 아래 시아제(심익만)가 그때 죽었다고 그래요. …(중략)… 두 분의 시신은 찾아와서 모셨다고 해요. 지금도 산소가 있어요. 제사를 지금은 합쳐서 지내는데 예전에는 음력 2월 12일에 지냈어요. …(중략)… 행촌마을의 이존갑씨도 거기서 죽었다는 말을 들었어요.”(참고인 노향순 진술조서, 2009.12.14): 한편 심익만과 서오복의 제적부 상 사망일자는 1950년 3월 20일로 사건발생일과 일치한다.

150) “우리 구계월 마을에 노종남, 노종완, 노종선이 한 형제인데 싹 죽었어. 그 아버지(노성규)는 나중에 명대로 살고 집에서 돌아가셨어. …(중략)… 그 집이 원래 4형제인데, 그중 하나(노종문)가 의용군으로 갔다가 빨치산으로 활동했어. 나머지 3형제는 그런 활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고, …(중략)… (시신은) 그 아버지가 늙어갔고 갈 생각도 안 했고, 동네 사람들도 무서워서 갈 엄두를 못 냈지. 그래서 못 찾아온 걸로 알아.”(참고인 송주옥 진술조서, 2009.12.12): “우리 친척인 노종남, 노종완, 노종선이 왕방리 문바위에서 죽었어요. 빨치산들 밥해줬다고 백골부대 군인들이 총살시켰다고 들었습니다. …(중략)… 그 일가가 다 죽어서 손이 없어요.”(참고인 노지홍 진술조서, 2007.7.25.)

151) 참고인 송만섭 진술조서(2009.12.12): “시집 와서 시아제(송달섭)가 왕방리에서 죽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중략)… 시신은 찾아와서 묻었다가 나중에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시아버지가 파다가 화장해 버렸어요.”(참고인 정숙자 진술조서, 2009.12.12): “신계월 사람들은 시신도 찾아왔는데, 송화섭, 송달섭 두 사람이 죽었어.”(참고인 송주옥 진술조서, 2009.12.12): 한편 송화섭의 제적부 상 사망일은 1951년 2월 12일(양력 3월 19일)인데, 이는 제사날짜를 사망일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152) 참고인 이금단(당시 21세)은 ‘월굴마을에서 태어나 16세에 수월마을로 시집와서 2·26사건도 겪고 전쟁도 겪었다며, 송재섭과 송상섭 형제가 전쟁 중에 왕방리에서 사망했다’고 진술하였다(참고인 이금단 진술녹취, 2009.12.12).



심진문(沈鎭文·1926)과 이기태(당시 30대 초반) 등 4명이다.<sup>153)</sup> 이들 중 이기태는 원래 성수면 인민위원장으로 입산하여 활동했으나 그 부친의 간곡한 자수 권유로 산을 내려와 지서에 자수했는데 결국은 백골부대에게 총살당했다고 한다.<sup>154)</sup>

그밖에 도인리에서는 김용희(金鏞希·1901)와 태종섭(太鍾燮·1925) 등 2명<sup>155)</sup>, 오류리에서는 류갑열(당시 20대 후반)<sup>156)</sup>, 왕방리에서는 김점동(金占同·1897)과 김수곤(金壽坤·1934) 부자<sup>157)</sup> 등이 총살되었다.

한편 이상 23명 중 ‘송달섭, 송주동, 송화섭, 심익만, 이준갑, 정인학, 최동우, 최순형, 최재섭, 태종섭, 한영태’ 등 11명은 『대공전산화자료』의 ‘6·25 당시 처형자’ 명단에도 이름이 올라 있었다.<sup>158)</sup>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왕방리 문바위가 오봉리 효촌마을 바로 위에 있어서, 사건 이후 효촌마을 사람들이 사건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었지만,<sup>159)</sup> 백골부대

153) “요 옆의 월굴마을에서도 한 명이 죽었어. 이름이 심진문이야.”(참고인 진○○ 진술녹취, 2009.12.13): “조 모님과 어머니를 통해 부친 심진문이 전쟁 때 왕방리 문바위에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중략)… 음력 2월 12일에 제사를 모시는데 그 날 동네에서 저희 말고 또 한 집에서도 제사를 모셔요. 돌아가신 분이 이기태씨입니다. …(중략)… 두 분의 시신은 천동마을 인근에 같이 매장했답니다.”(참고인 심학순 진술조서, 2009.12.17): “심진문, 이기태씨는 월평리 월굴마을 사람으로 왕방리에서 죽은 다음에 시신을 우리 마을(천동마을) 옆에다가 묘를 썼어.”(참고인 정문조 진술조서, 2009.12.11): “심진문, 이기태씨도 사실은 자수해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백골부대가 와서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자기네 실적으로 삼았던 거지.”(참고인 이강영 진술조서, 2009.12.13): 한편 심진문의 제적부 상 사망일자 1951년 3월 19일인데, 이는 제사날짜를 사망일자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154) “성수면 월평리의 이기태씨가 성수면 인민위원장이었는데, 그분도 왕방리 사건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가 하도 이기태씨를 찾아서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못하고 자수를 했는데, 결국 군인들에게 잡혀서 죽은 겁니다.”(참고인 임방규 진술조서, 2010.2.18.)

155) 참고인 이기만은 ‘도인리에서 신흥촌의 김용희와 당당마을의 태종섭 등 2명이 사망했다’고 진술하였고(참고인 이기만 진술조서, 2009.12.14), 태종섭의 아들 태재춘(당시 1세)은 ‘마을어른들이 시신을 수습해 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참고인 태재춘 진술조서, 2009.12.17). 한편 『6·25사변 피살자명부』에도 당시 나이 50세의 김용희가 왕방리에서 피살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공보처 통계국, 『6·25사변 피살자명부-기1』, 1952, 576쪽). 그리고 태종섭의 사망신고는 아들 태재춘이 1967년에 직접 하였는데, 사망연도는 신고연도인 1967년이지만 날짜는 3월 20일로 신고하였다. 이는 독자인 태재춘(1951년생)이 사망신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후 신고를 하면서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 연도를 수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156) “오류리에 살던 류갑열씨도 거기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참고인 송이섭 진술조서, 2009.12.11.)

157) “왕방리에서 김수곤이 민청위원장이었거든. 그 사람이 끌려가니까 그 아버지 김점동이 군인들을 쫓아가서 항의하다가 마참가지로 총에 맞았어.”(참고인 서○○ 진술녹취, 2010.1.12): 한편 김점동의 제적부 상 사망일자는 1959년 2월 14일로 비록 사망연도는 다르지만 사망일은 사건발생일인 음력 2월 13일(양력 3월 20일)과 1일의 차이밖에 나지 않고, 김수곤도 사망연도는 1959년으로 김점곤과 같지만 사망일은 2월 13일로 사건발생일과 일치하고 있다. 사망연도를 1959년으로 신고한 것은, 사망신고 당시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피하려는 의도였다고 판단된다.

158) 임실경찰서, 『대공전산화자료』, 1979.

159) 참고인 송이섭 진술조서(2009.12.11.)

가 성수면에 있을 때는 엄두를 못 내다가 사건 이후 금방 성수면을 떠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족들이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다고 한다.<sup>160)</sup>

#### 8) 청웅면(임실경찰서·청웅지서) 사건

##### 가) 사건개요

○ 사건번호: 다-10011호, 다-10012호, 다-10014호, 다-10182호

○ 사건개요: 1948년 12월 임실경찰서 경찰은 청웅면 석두리와 남산리 주민 백길동 등 20여 명을 좌익 및 부역혐의로 연행하여 임실경찰서에 구금하였고, 1949년 2~3월경 남산리 주민 전상우 등 3명을 좌익 및 부역혐의로 연행하여 임실경찰서에 구금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총살 혹은 행방불명되었다. 또 1951년 4월 7일 청웅지서 경찰은 석두리 주민 이영자와 백점자를 부역혐의로 청웅면 구고리 청웅국민학교 인근에서 총살하였다.

##### 나) 사건내용

임실군에서는 1948년에 발생한 2·7사건의 영향으로 좌익세력에 대한 경찰의 감시가 강화되었고 그로 인해 임실군의 남로당은 지하로 내려갔다.<sup>161)</sup> 당시 청웅면에서도 일부 좌익세력은 남산리에 아지트를 만들고 숨어 지냈는데, 석두리와 남산리에는 이들에게 동조하여 아지트 구축이나 식사 대접 등 이들을 돕는 일부 주민들이 있었다. 그러던 중 10월에 여순사건이 발발하면서 임실경찰서 경찰들은 관내의 좌익세력에 대한 체포·연행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결국 경찰에게 남산리의 아지트가 발각되면서 몇몇 좌익활동가들이 체포되었는데, 이들을 통해 정보를 취득한 경찰은 1948년 12월부터 임실군당 당원을 포함하여 석두리와 남산리에서 이들을 돕던 주민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sup>162)</sup>

신청인(다-10012호) 전홍열(당시 11세)은 ‘부친 전상옥(全相玉·1910)이 경찰에게 연행되어 청웅지서에 있다가 3일 후 임실경찰서로 갔다’고 진술하였고,<sup>163)</sup> 신청인(다-10014

160) “사람들을 백골부대가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가족들은 백골부대가 성수를 떠날 때까지는 꿈쩍하지 못 했고, 며칠인가 지난 다음에 백골부대가 떠났다는 소식이 들리고 나서 현장에 가 시신을 찾아왔어.” (참고인 정문조 진술조서, 2009.12.11.)

161) 본문 ‘나. 임실읍 사건’의 ‘1) 임실읍 임실경찰서 사건’ 참조.

162) “임실군당이 지하로 들어가 있다가 잡혀간 거야. 임실군당이 지하에 아지트를 파고 있다가 나무를 하러 갔던 사람들에게 위치가 발각되어 경찰에게 신고가 들어가 잡혀갔어. 그런데 그 아지트에서 남로당에 가입했던 사람들 명단이 나와서 (석두리) 중신마을하고 석두마을에서 사람들이 붙들려가게 된 것이지.” (참고인 전상하 진술조서, 2010.2.21.)

163) “제가 학교 다녀오다가 신작로 길가에서 보았는데, 부친 전상옥을 포함하여 동네 사람 7~8명이 끌려가는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신청인 전홍열 진술조서, 2008.2.22); “음력 동짓달에 희생되었어. 왜 그 양반

호) 전상운(당시 8세)은 ‘부친 전용순(全龍淳 · 1913)을 포함하여 7~8명이 잡혀갔는데 임실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sup>164)</sup> 신청인(다-10011호) 백점이(당시 3세)는 ‘조모를 통해 부친 백길동(白吉同 · 1928)이 동짓달 보름에 잡혀갔다는 말을 들었는데, 당시 부친 외에 마을의 여러 어른들도 함께 잡혀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sup>165)</sup> 그리고 신청인(다-10182호) 전기열(당시 5세)도 ‘숙부 전상현(全相鉉 · 1916)이 경찰에게 끌려간 후 소식이 끊어졌다’고 진술하였다.<sup>166)</sup>

석두리와 남산리의 참고인들은 이상의 4명 이외에도 10여 명 이상이 비슷한 시기에 임실경찰서로 끌려갔고 그 후로 모두 소식이 끊어져 경찰에게 살해당했을 것으로 추측했는데, 그중 석두리 중신마을과 만지메마을에서는 김경연(당시 20대), 박병문(朴炳文 · 1901), 박용석(朴龍碩, 일명 박용기 · 1928), 이광진(李光鎭, 일명 이병광 · 1918), 임병옥(林炳玉 · 1915)이 끌려갔다고 하고,<sup>167)</sup> 석두마을에서는 김기생(당시 20대), 박병만(당시 20대), 이기

들이 죽었는가 하면 당시 공산당하는 양반들이 가жат굴이라고 산 속에 굴을 파고 있었어. 밤이면 회의하고 쌀 달라고 하면 쌀 주고, 장 달라고 하면 장을 줬는데, 그 가жат굴에 있던 사람들이 잡혀서 전상옥도 붙들려 간 거야. …(중략)… 사랑방에서 회의하고 했던 사람들은 다 같은 날 잡혔다니까. 전판철, 전상백, 전상표, 김기생, 박병만, 전상옥 등이 함께 붙들려갔어. …(중략)… 굴 사진이 나서 도망가는 사람을 경찰이 쏘서 죽이고 잡힌 다음날 그 사람들하고 함께 활동했다고 명단에 들어 있던 사람들이 잡힌 거지.”(참고인 박만진 진술조서, 2010.2.19.)

164) 신청인 전상운 진술조서(2009.9.22): “전용순은 전상옥하고 같이 한 무렵에 잡혀갔어. 전용순씨는 잡혀간 날짜가 조금 다를 거야. 날짜는 같지 않아도 비슷하게 붙들려갔어. 임실경찰서로 붙들려갔지.”(참고인 박만진 진술조서, 2010.2.19): “전상옥이 행방불명되었을 때 전용순도 며칠 사이에 임실경찰서로 붙들려갔다가 행방불명되었어요. 같은 건으로 연루가 된 것 같아요. …(중략)… 그 뒤로는 죽었다고 추측을 하는 거지.(참고인 전재영 진술조서, 2010.2.19.)

165) “할머니 말로는 ‘금구덩이에 있다가 나와서 하룬가 이틀인가 너희들을 보며 예뻐하다가 잡혀갔다’고만 하셨어요. …(중략)… 우리 옆집에 두 사람하고, 만지메마을에서 두 사람이 잡혀갔다고 하더군요. 김영자씨 부친(김경연), 이경희씨 부친(이광진)이 우리 옆집 사람이고, 만지메마을에서는 임정희씨 부친(임병옥)이 갔고, 또 하나는 모르겠네요.”(신청인 백점이 진술조서, 2009.12.5): “그 사람들이 밤이면 마을에 와서 식량을 얻어 가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은혜 갚는다고 명단을 적어놓거든, 근데 그놈들이 잡히면서 그 명단을 없애버려야 하는데, 그게 경찰한테 들어간 거야. 그래서 경찰이 그 명단에 든 사람을 가만히 안두는 거였지. …(중략)… 백길동씨 말고도 중신마을에서 여러 사람 잡혀간 걸로 알고, 만지메마을에서는 한 사람 있었다고 그래.”(참고인 이○○ 진술조서, 2009.12.5.) 한편 신청인 백점은 사건이 1949년에 발생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지만, 신청서에는 1948년으로 기록하였고 또 참고인 전상하(당시 18세) 역시 ‘이 사건은 본인이 18세였던 1948년에 발생했고, 당시 백길동, 전상옥, 전용순 등 마을의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잡혀갔다’고 진술하였다(참고인 전상하 진술조서, 2010.2.21).

166) 신청인 전기열 진술조서(2009.9.22): “전상현은 전상우(일명 전상호)의 동생인데, …(중략)… 전상우는 여순사건 일어나고 음력 1월 아니면 2월에 임실경찰서로 끌려갔어요. 동생 전상현은 비슷한 무렵인데 같은 날 붙들려간 것은 아니야.”(참고인 전상묵 진술조서, 2010.2.20): “전상현은 여순사건 나고 붙들렸는데 전상우보다 먼저 붙들려갔어요. 반란군들 심부름을 해줬다고 경찰서에서 데려가서 죽었어.”(참고인 전규열 진술조서, 2010.2.20): “남산리의 전상현은 전상옥과 비슷한 시기에 경찰에게 끌려갔어요. …(중략)… (남산리 아지트 권과 관련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비슷한 시기에 끌려갔어요. …(중략)… 전상현은 전상옥하고 친밀한 사이였어요.”(참고인 전재영 진술조서, 2010.2.19.)

성(당시 30대), 전상백(당시 20대), 전상채(당시 40대), 전상표(당시 20대), 전판철(당시 20대) 등이 잡혀갔다고 한다.<sup>168)</sup>

이렇게 잡혀간 석두리와 남산리 주민들은 임실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12월 25일 트럭에 실려 경찰서를 나간 후 소식이 끊어졌다. 당시 신청인 전홍열의 당숙 전상권(1924년생, 망)도 다른 주민들과 함께 임실경찰서에 잡혀 있다가 석방되었는데, 마을로 돌아와 당일의 일을 주민들에게 전해주었다고 한다.

“같이 연행된 당숙 전상권에게 들었습니다. 여순사건이 있고 나서, 전상권도 부친과 함께 경찰서에 연행되었다가 살아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부친은 집에 있다가 경찰이 연행하여 청운지에서 3일정도 있다가 임실경찰서로 갔는데, 1948년 음력 11월 25일(양력 12월 25일) 밤에 트럭으로 실려 나갔다고 하더군요. 당시 전용순도 아버지와 같이 연행되어서 그렇게 트럭에 실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일 전상권은 실려 나가지 않고 유치장에 있다가 나중에 풀려나와서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sup>169)</sup>

한편 신청인 전기열의 부친 전상우(全相佑, 일명 전상호 · 1913)는 1949년 음력 1~2월 사이에 임실경찰서로 끌려갔다가 삼계면 오지리에서 총살당했는데, 전상우가 끌려간 이유 역시 그 동생 전상현 등 1948년 12월에 행방불명된 사람들처럼 임실군당에 동조하여 그들에게 협조했기 때문이었다.<sup>170)</sup>

전상우가 임실경찰서 경찰에게 잡혀갈 당시 주민 박상옥, 전판상 등도 함께 임실경찰

167)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12.5); 참고인 전상하 진술조서(2010.2.21); 한편 참고인 전상하는 이상 5명 이외에 ‘전홍대(당시 40대)와 전동바우(당시 40대) 형제도 당시 함께 임실경찰서로 끌려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참고인 이○○(당시 18세)은 ‘이들이 1951년 3월에 폐금광에서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더 이상 이 두 명의 사망경위를 파악할 자료나 진술을 확인할 수 없었다.

168) 참고인 박만진 진술조서(2010.2.19); 참고인 전재영(당시 20세)은 ‘상술한 사람들 이외에도 마을주민 10여명 이상이 남로당 혹은 청년연맹 등 마을 내의 조직과 관련되어 비슷한 시기에 행방불명되었는데, 지금은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참고인 전재영 진술조서, 2010.2.19). 한편 이상의 미신청 희생자들은 그 유족을 찾을 수 없어 더 이상의 신원확인이 불가능하였다.

169) 신청인 전홍열 진술조서(2008.2.22): “석두리에서 아버지를 포함하여 7~8명이 잡혀갔는데 임실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습니다. 함께 잡혀갔던 집안 형님 한 분은 나오셨는데, 그날 저녁에 유치장에 남아 있던 사람들을 트럭에 싣고 어디론가 갔답니다. 제삿날은 음력 11월 24일에 모십니다. 그때 희생되었던 마을 어른들의 제사가 모두 동짓달 24일입니다.”(신청인 전상운 진술조서, 2009.9.22.)

170) “전상우는 여순사건 일어나고 음력 1월 아니면 2월에 임실경찰서로 끌려갔어요. …(중략)… 사상관계로 경찰에게 불려갔어. 억울하게 죽었지. 굴도 파주고, 보조도 해주고 그랬다고, 명부가 있었나봐. 반란군들 역할을 해줬다고 사상가라고 불려다가서 죽었다고 들었어. 전상우씨 집안이 사상가 집안이었거든.”(참고인 전규열 진술조서, 2010.2.20); “전상우는 전상호로 불렸는데, 동생 전상현이 끌려간 이후에 남산리 한청사무실로 야경을 나갔다가 그 후로 안 돌아왔어.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임실경찰서 형사들이 한청 사무실에서 붙들어갔다고 그래.”(참고인 전상하 진술조서, 2010.2.21.)

서로 끌려갔는데,<sup>171)</sup> 약 1개월 정도 지나 경찰이 이들을 총살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의 상황을 참고인 전상묵(당시 21세)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내가 당시 전상우의 시신을 찾았어. 삼계면 오지리 화촌마을 밑에서 시신을 찾았어. 화촌마을 사람이 시신을 수습해줬다가 화촌부락에 살고 있던 고모에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에게 연락이 됐어. 끌려가고 1개월 정도 있다가 시신을 찾았는데, 전상우가 얼굴이 검고 키가 컸어. 그리고 흰 조끼를 입고 흰 단추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시신을 확인했어.”<sup>172)</sup>

즉 남산리의 전상우, 전판상, 박상옥은 다른 주민들보다 약간 늦은 1949년 2~3월경 좌익 혹은 부역혐의로 임실경찰서로 연행되었고, 1개월여가 지난 1949년 3~4월경 전상우는 삼계면에서 총살당한 것이다. 그리고 참고인 전규열(당시 20세)은 전판상의 시신도 그 가족이 수습하여 매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다.<sup>173)</sup> 그러나 박상옥의 시신수습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역시 더 이상의 소식이 없었다는 점에서 다른 두 명과 마찬가지로 총살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174)</sup>

또 전상우 등 3명보다 먼저 임실경찰서에 끌려갔다가 1948년 12월 25일 임실경찰서를 출발한 후 소식이 끊어진 백길동, 전상옥, 전용순, 전상현 등을 비롯한 20여 명의 청웅면 석두리·남산리 주민들도 비록 그 구체적인 사망경위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그 후로 소식이 끊어졌고 판결문이나 기타 이들의 수형과 관련된 기록도 확인되지 않아, 전상우 등 3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실경찰서 경찰에 의해 임실군의 어딘가에서 총살당했을 것으

171) “(전상우는) 박상옥, 전판상이 붙들려가던 즈음에 함께 붙들려갔어. …(중략)… 전판상은 양식을 토굴에 줬다고 붙들려갔다가 한번은 풀려났는데 다시 끌려갔어. 그러고는 돌아오지 않았지.”(참고인 전규열 진술조서, 2010.2.20.)

172) 참고인 전상묵 진술조서(2010.2.20): “전상우씨가 얼굴이 시커멓고 수염이 많았거든. 그래서 전상우가 어디서 죽었다는 게 알려졌어. 그래서 전상우는 시신을 찾았는데 삼계면에서 찾았어. 내가 전상우의 시신을 찾으러 갈 때 전상우의 아들 전기열, 전상우의 친구하고 삼계면으로 갔었어. 전상우의 체격이 크고 어금니가 특이했거든 그래서 유골을 분간해냈지. 그 장소에 유골이 12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 흙이 덮여 있었는데 걷어내고 보니까 12명이었지. 말 듣기로 그때 당시 전상옥, 전상현이나 이분들처럼 붙들린 분들은 임실경찰서 경찰들이 어딘가로 데려가서 주변 마을 주민들을 동원해서 땅을 파고 그 안에 넣어서 총을 쏘서 죽인 후 주민들보고 흙을 덮게 하고 그랬다고 그래.”(참고인 전상하 진술조서, 2010.2.21): “경찰이 모팔마을 사람들에게 한 구덩이에 몰아넣고 묻으라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아하니 나중에 시신을 찾아갈 것 같아서 따로따로 묻었다고 하더군요. 당시 제 고모할머니댁의 아들이 제 아버지의 시신을 확인하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문이 났습니다.”(신청인 전기열 진술조서, 2009.9.22): 참고인 전상묵은 시신 발견 장소를 ‘화촌마을 밑’이라 진술하였고, 신청인은 ‘모팔마을’이라 진술했는데, 모팔마을은 삼계면 덕계리 음지마을에 딸린 자연마을로 삼계면 오지리 화촌마을과 이웃하고 있어, 동일한 장소로 판단된다.

173) 참고인 전규열 진술조서(2010.2.20.)

174) 전판상과 박상옥은 그 유족을 찾을 수 없어 구체적인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

로 추정된다.<sup>175)</sup>

그리고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백길동의 사건과 연관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백길동의 처 이영자(李英子·1929)와 그 딸 백점자(白点子·1948)가 경찰에게 총살된 사건인데, 이들은 청웅면이 수복될 무렵 회문산으로 피난 갔다가 청웅지서 경찰에게 잡혀 청웅면 구고리 청웅국민학교에 설치된 수용소에 감금되었고, 1951년 4월 7일 남편 백길동의 일 때문에 청웅지서 경찰에게 수용소 인근에서 총살당했다. 당시의 상황을 신청인 백점이(당시 6세)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전쟁이 나고서 회문산으로 가족이 피난을 다녔던 기억도 있고 할머니가 우리를 업고 다녔던 기억도 있는데, 그러다가 군경에게 잡혀 청웅국민학교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어머니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고 따로 가둬놓았답니다. 동생은 어려서 엄마 곁을 안 떠나려고 하니까 엄마가 데리고 있었고, 그러다가 엄마와 동생을 데리고 나가 죽여버렸다고 하더군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동생이 한 번에 안 죽었는지 총을 한 번 더 쏘았다고 하더군요. 그때 어머니가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았을 것인데, 애 아빠를 어디로 데려갔냐고 따졌더니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엄마를 따로 죄 있는 사람들 쪽으로 몰아냈다고 하더군요.”<sup>176)</sup>

참고인 이○○도 ‘백점이의 가족이 피난을 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걸 잡아서 수 수용소로 데려다놓았고, 3~4일 후에 그 엄마를 죽였는데, 수용소에서 4km 정도 떨어진 공동묘지에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고, 동네어른들이 현장에 임시로 시신을 묻었는데 나중에 시신을 이장할 때는 본인도 직접 거들었다’고 진술하였다.<sup>177)</sup>

당시 청웅국민학교에는 좌익활동을 했거나 부역했던 사람들의 가족들 그리고 마을을 떠나 회문산 등 빨치산 근거지로 피신했다가 잡힌 사람들이 수용되었는데,<sup>178)</sup> 그들은 경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피해를 당했다. 청웅지서 의경으로 활동했던 참고인 정○○(당시 16세)도, ‘부모가 남산리 폐금광으로 피난 갔거나 빨치산이 된 사람들의 가족

175) 사건 이후 주민들은 군내 도처에서 경찰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죽였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당시의 분위기가 시신을 찾을 엄두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신청인 전상운 진술조서, 2009.9.22).

176) 신청인 백점이는 ‘조모를 통해 시신을 주민 조홍용과 김점동이 수습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신청인 백점이 진술조서, 2009.12.5). 한편 이영자는 『대공전산화자료』에도 ‘6·25 당시 처형자’ 명단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임실경찰서, 『대공전산화자료』, 1979).

177)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12.5.)

178) “그때 청웅국민학교 수용소에는 죄가 있거나 피신을 했었거나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놓았어요.”(참고인 이○○ 진술조서, 2009.12.5); 청웅면 향토방위대 대원으로 활동했던 한○○(당시 21세)도 ‘그 무렵 부역자 가족들을 모두 구고리의 청웅국민학교에 모아놓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참고인 한○○ 진술조서, 2009.12.5).

을 청웅국민학교에 많이 가두어놓았는데, 가족이 빨치산이 되었다고 고초를 많이 당했다'고 진술하였다.<sup>179)</sup>

이상과 같이 석두리 주민 이영자는 수복 무렵 군경을 피해 회문산 등지로 피난을 다니다가 경찰에게 잡혀 청웅국민학교에 수용되었고, 결국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는 어린 딸 백점자와 함께 1951년 4월 7일 청웅지서 경찰에게 총살된 것이다.

## 9) 신덕면 금정리 사건

### 가) 사건개요

○ 사건번호: 다-10017호

○ 사건개요: 1951년 2월경 임실경찰서 경찰은 신덕면 금정리 주민 김정목을 임실경찰서로 연행하였고, 김정목은 동년 4월 27일 이후 행방불명되었다.

### 나) 사건내용

신덕면 금정리 주민 김정목(金正穆, 일명 김정민·1920)의 동생 김정현은 인민군 점령지에 좌익활동을 하고 입산하여 빨치산 활동을 하였다.<sup>180)</sup> 임실경찰서 경찰은 김정현을 자수시키기 위해 1950년 1월경 그 형 김정목 부부와 1세의 아들, 또 김정현의 처와 역시 1세의 아들까지 모두 5명을 체포했고, 김정목은 임실경찰서로 나머지 4명은 신덕지서로 연행하여 구금시켰다.<sup>181)</sup>

신덕지서에 구금된 지 3개월여 후 김정목의 처와 김정현의 처 그리고 두 아이는 석방되었다. 그러나 김정목은 여전히 임실경찰서에 구금되어 있었다. 신청인 김규식(당시 8세)의 조모는 자주 임실경찰서로 면회를 갔는데, 4월 26일 면회한 뒤 이튿날도 경찰서를 방문하자, 경찰은 구금되어 있던 사람들을 모두 풀어주어 유치장에 사람이 없다는 말만

179) 참고인 정○○ 진술조서(2007.7.26.)

180) “김정현씨가 재주꾼이었어요. 일정 때 일본 항공학교(공군학교)를 졸업했던 걸로 기억해요. …(중략)… 빨치산 활동을 했다고 들었어요. 창인리에서 돌아가셨다는데, 안 그랬으면 군수 할 사람이었지.”(참고인 박준희 진술조서, 2009.12.15); “김정현씨가 빨치산의 임실 총책임자였다는 말을 들었어요.”(참고인 배양주 진술조서, 2009.12.15.)

181) “음력 1월경에 잡혀가셨다고 합니다. 그때 자수 권유기간을 두어서 작은 아버지(김정현)를 자수시키려고 아버지(김정목)하고 어머니 그리고 숙모님까지 모두 잡아갔다고 합니다. 당시 아버지는 임실경찰서로 잡혀갔고, 어머니와 숙모는 신덕지서에 한 살짜리 동생들을 하나씩 데리고 같이 잡혀갔어요. 그러다가 어머니와 숙모님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풀려나셨는데, 작은 아버지가 그래도 자수를 안 하니까 형인 우리 아버지를 희생시킨 거죠.”(신청인 김규식 진술조서, 2009.12.15); “김정목씨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바가 없고, 김정현씨 때문에 경찰서로 잡혀갔었다고만 알고 있습니다.”(참고인 배양주 진술조서, 2009.12.15.)

하였다고 한다.

“할머니 말씀이 음력 3월 21일(양력 4월 26일) 경찰서에 가서 아버지(김정목)를 만나고, 그 다음날 또 면회를 가서는 어제 밤에 사람들이 끌려 나갔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근데 경찰은 할머니에게 ‘어제 밤에 여기 있던 사람들 다 석방했는데 집에 안 갔느냐’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3월 22일에 돌아가신 걸로 생각하고 21일에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sup>182)</sup>

김정목과 비슷한 시기에 임실경찰서에 구금되어 있었던 참고인 박준희(당시 25세)는, ‘석방된 후 마을에 돌아와보니 본인이 잡혀간 후 김정목도 경찰서에 끌려가 총살되었다는 얘기가 주민들 사이에 퍼져 있어 김정목의 일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sup>183)</sup>

신청인의 가족은 경찰이 당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사람들을 총살시켰을 것으로 판단하여 당시 자주 처형장소로 이용됐던 경찰서 뒤쪽의 임실을 오정리 골짜기 등을 다니며 시신을 찾으려 하였으나 끝내 찾지 못했다고 한다.<sup>184)</sup>

김정목의 사망을 목격하거나 시신을 수습한 사람은 없지만, 그가 재판을 받았거나 혹은 형무소에 수감되었다는 기록도 확인할 수 없었고, 경찰서를 나선 뒤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도 않아, 김정목은 당시 임실경찰서 경찰에게 처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10) 청웅면 남산리(강진면 부흥리) 폐금광 사건

##### 가) 사건개요

○ 사건번호: 다-10022호, 다-10179호, 다-10180호, 다-10183호

182) 신청인 김규식 진술조서(2009.12.15.)

183) “우리 마을로 토벌작전을 나온 경찰한테 잡혀서 3개월 정도 있다가 풀려났는데, 집에 돌아와 얘기를 들어보니 내가 잡혀 있을 무렵 김정목씨도 경찰서에 잡혀 있었다고 하더군요. 내가 먼저 잡혀갔고 그 사람은 나중에 잡혀온 것 같고, …(중략)… 경찰서에서 풀려나와 마을에 돌아왔는데 마을이 우리 집을 포함한 몇 채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소각되었더군요. 그래서 우리 집이 완전히 무슨 수용소 같았는데 그때 마을에 소문이 퍼져서 주민들이 다 얘기를 하더군요. 김정목씨가 경찰서에 잡혀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중략)… 사실 나는 우리 집안이 우익 집안이라 풀려날 수 있었지만, 김정목씨는 동생이 그런 일을 했으니 죽기가 더 쉬웠을 거야. 그때는 경찰이나 법이나 제대로 된 게 없는 세상이었거든.”(참고인 박준희 진술조서, 2009.12.15.)

184) “임실을 오정리의 골짜기 어디에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는 소문이 돌기는 했어요. 지금 원불교 교회가 들어서 있는데, 그 자리가 원래 임실경찰서 자리입니다. 그 경찰서 뒤쪽의 골짜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소문은 돌았죠. 그래서 할머니가 아버지 시신을 찾으려고 많이 애를 쓰셨는데 결국은 못 찾았어요.”(신청인 김규식 진술조서, 2009.12.15.) 한편 오정리 주민 김영철(당시 9세)은 ‘오정리 골짜기가 좌익과 우익이 모두 처형장소로 이용했던 곳이었다’고 진술하였다(참고인 김영철 진술녹취, 2009.12.13.).



○ 사건개요: 1951년 3월 14~16일 군경은 청웅면 남산리(강진면 부흥리) 폐금광에 피신해 있던 인근 지역 주민 박완 등 다수를 좌익, 부역자 혹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폐금광 안팎에서 질식사 및 총살시켰고, 국군은 또 현장 생존자 50여 명을 연행하여 10여 일 후 강진면 회진리에서 총살시켰다.

#### 나) 사건내용

임실읍이 수복되고 군경에 의한 회문산 토벌작전이 진행되면서 청웅면, 강진면, 덕치면 등지에서는 인민군 점령기에 좌익활동을 했거나 부역한 자, 그리고 그 가족들과 군경의 피해를 두려워한 주민들이 남산리의 폐금광으로 피신하기 시작했다.<sup>185)</sup>

폐금광은 청웅면 남산리 방향과 강진면 부흥리 방향으로 난 큰 입구 2개를 포함하여 모두 32개의 입구가 있었고, 내부에는 마치 벌집처럼 많은 작은 굴이 퍼져 있었다. 피난민들은 가족끼리 모여 마을에서 가져온 식량으로 끼니를 해결하며 군경의 작전을 피했는데 피난기간이 길어지자 가져온 식량이 떨어진 가족들은 재차 마을에 내려가 식량을 가져오게 되었다.<sup>186)</sup>

피난민들이 마을을 다녀가면서 군경은 폐금광에서 마을로 이어진 피난민들의 흔적을 발견하여,<sup>187)</sup> 강진지서와 청웅지서가 중심이 된 경찰과 당시 임실지역에 주둔했던 국군이 양쪽 입구를 찾아갔는데, 처음 청웅면 남산리 쪽 입구에서는 군경이 접근하자 빨치산의 반격이 있었고,<sup>188)</sup> 강진면 부흥리 쪽에서는 반격이 없었다.<sup>189)</sup> 양쪽의 입구를 포함한

185) “피난 들어간 거여. 동네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겁에 질려 들어가게 된 거지. 그 때는 무조건 죄가 있든지 없든지 그냥 쏘아 죽이고 하던 때라 무조건 굴속으로 피한 거야.”(참고인 박순남 진술조서, 2007.7.26): “당시 면당위원장을 하던 사람과 몇몇 면당유격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죽기는 했데요. 그 사람들이 총을 갖고 있었던 건 확실해요. 그 안에서 발견됐다는 총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총일 겁니다.”(참고인 전상하 진술조서, 2009.12.6.)

186) “그 안이 벌집 같아서 한번 들어가면 안내 없이는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오빠만 가을걷이 해놓은 식량을 가져오려고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했어요. …(중략)… 그 안에서는 째깍해서 누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안에 들어가면 자기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호롱불 하나 켜놓고 그렇게 있었어요.”(참고인 박순남 진술조서, 2009.12.7); 참고인 전상하(당시 21세)는 ‘백부의 가족을 찾기 위해 두 번을 폐금광 내부에 들어갔으나 내부가 너무 복잡하여 안내자가 없이는 다시 나올 수도 없었고, 안에서는 가족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있었으며, 자기 가족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하였다(참고인 전상하 진술조서, 2009.12.6).

187) 강진면 향토방위대원으로 작전에 참여했던 참고인 이○○(당시 19세)는, ‘당시 눈이 온 상태여서 발자국이 눈에 남았는데, 그 발자국을 따라가니 부흥광산으로 이어져 있었다’고 하였다(참고인 이○○ 진술조서, 2009.12.6).

188) 당시 13연대 2대대 7중대 소속 학도병으로 작전에 참여했던 참고인 진○○(당시 17세)은, ‘처음에는 우리가 첩보하려고 금굴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에서 총을 쏘서 들어가지 못하고 나중에 굴 안에 집중 화기를 쏘고 나오라고 부르고 그래도 안 나오고 그래서 군인 상사들이 이놈들 죽여버리게 불을 지르라고

32개의 입구 모두를 확보한 군경은 먼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밖으로 나와 자수할 것을 권유하였다.<sup>190)</sup>

당시 청웅면소재지인 구고리의 청웅국민학교에는 입산자와 부역혐의자의 가족들 혹은 피난처에서 잡혀온 주민들이 수용되어 있었는데, 군경은 그들을 동원하여 자신의 가족을 불러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난민들은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다. 이는 피난민들이, 자수하면 살려준다는 군경의 말을 믿지 않았던 점도 있고,<sup>191)</sup> 또 폐금광의 내부가 너무 깊고 넓어 바깥의 말이 내부까지 전해지기 어려웠던 점도 작용했던 것 같다.

“당시 굴속에 있던 사람들 가족을 구고리 청웅국민학교에 모두 모아놓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폐광으로 데려가서 자기 가족을 불러서 나오게 했어요. ‘누구야, 자수해라. 자수하면 살려준다.’ 이런 식으로. 근데 한 명도 안 나왔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불러도 하나도 들리지 않겠더라고. 워낙 굴이 깊어서.”<sup>192)</sup>

군경은 수용소에서 데려온 주민들과 함께 양쪽의 입구에서 3월 14일부터 3일간 마른 고춧대와 솔잎을 태우기 시작했고,<sup>193)</sup> 연기를 못 견디고 밖으로 뛰쳐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무차별총격을 가했다.<sup>194)</sup> 참고인 정진호(당시 16세)는 숙부 정삼암(鄭三岩 · 1922)이

---

명령했다’고 진술하였고(참고인 진○○ 진술조서, 2010.1.19), 또 청웅면 향토방위대원으로 작전에 참여했던 한○○(당시 20세)는 ‘경찰하고 대원들이 폐광으로 몇 번 올라갔는데 조금만 가면 그놈들이 따꿍총을 쏘서 올라갈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또 폐광으로 올라가는데 보초서든 놈이 잠을 잤는지 반응이 없어서 우리가 굴 안으로 연막탄을 던지고 수류탄을 몇 개 던졌다. 그리고는 안으로 들어가 보니 보초서든 놈 하나가 죽었더라.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불을 땀다’고 진술하였다(참고인 한○○ 진술조서, 2009.12.5).

189) 참고인 이○○는, ‘불 때기 전에 우리 측의 작전도 없었고, 그 쪽의 반격도 없었다. 강진면 입구 쪽에서는 총을 한 번도 안 쏘다’고 진술하였다(참고인 이○○ 진술조서, 2009.12.6).

190) “경찰들이 빨치산 가족들을 데려다가 굴속을 향해서 ‘이제 곧 불을 땀 거니까 누구야 나와라. 자수하면 살려준다.’ 그렇게 했는데 반응이 없었어요. 아무도 안 나왔어요. 경찰도 불을 땀 건데 자수하면 살려준다고 경고방송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아무도 안 나와서 결국 불을 땀죠.”(참고인 이○○ 진술조서, 2009.12.6.)

191) 참고인 진○○은 ‘첩보원들을 통해 같은 마을에 살던 학교 동창 박완이 폐금광 내부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쳤지만, 박완은 군경이 자기들을 살려주겠느냐며 나오지 않았다’고 하였다(참고인 진○○ 진술조서, 2010.1.19).

192) 참고인 한○○는 불이 꺼진 후 폐금광 안으로 들어가 생존자를 수색하면서 내부가 깊고 복잡한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참고인 한○○ 진술조서, 2009.12.5).

193)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12.5); 신청인 박홍길 진술조서(2009.12.30.)

194) “매캐한 연기가 굴속으로 들어가자(62시간) 과연 공비들이 뛰쳐나왔고 이들은 문자 그대로 일망타진당할 수밖에 없었다.”(전라북도 경찰국, 『꽃피는 산하-6.25의 흔적을 찾아서-』, 한병우 증언, 1980, 330-332쪽); “3일간 계속된 오소리작전으로 굴 안의 사람들은 대부분 질식사했으며 연기를 이기지 못해 굴 밖으로 뛰어나온 사람들은 사살되었다.”(임실군지편찬위원회, 『임실군지』, 1972, 258쪽.)

폐금광에 피신했다가 군경의 작전이 시작되자 폐금광을 빠져나와 작전 당시 폐금광 내부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군경이 불을 때자 연기가 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굴 안에 있던 애들이 먼저 죽 더랍니다. 엄마 따라 들어온 젖먹이 애들이나 조금 더 큰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 애들이 먼저 죽었고, 또 폐가 안 좋은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죽었고, 그렇게 연기가 들어오니까 숙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연기가 굴속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작은 틈 같은 게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그 틈 쪽을 향해 힘을 쓰니까 그 굴벽이 깨지면서 사람 하나 빠져나갈 정도의 구멍이 생겼어요. 우리 숙부가 체격이 굉장히 좋고 힘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구멍으로 빠져 나오니까 지키고 있던 군경이 총을 쏘기 시작하더래요. 그때 구멍 밖으로 눈이 쌓여 있어서 구멍을 나와서는 그 눈 위를 쪽 미끄러져 백련리 마을까지 내려갔어요. 그렇게 총을 쏘는데도 다행히 맞지 않았다고 하더군요.”<sup>195)</sup>

불이 꺼지고 연기가 가라앉자 경찰은 직접 내부에 들어가 질식사한 사람들은 버려두고 숨이 붙어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어 함께 작전했던 군인에게 인계하였다.<sup>196)</sup>

당시 작전에 참가했던 국군은 폐금광에서 살아남은 주민들을 주둔하고 있던 강진면 갈담리로 끌고 와 10여 일에 걸쳐 조사한 후, 강진면 회진리 장동마을과 덕치면 회문리 망월마을의 경계부근인 속칭 멧골이라는 곳에서 총살시켰다.<sup>197)</sup>

195) 참고인 정진호의 숙부는 마을에 숨었다가 결국 치안대에게 발각되어 1951년 12월 24일 회진리 오두목마을에서 사살당했다고 한다(참고인 정진호 진술조서, 2009.12.6).

196) “연기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정신을 잃었죠. 내 생각에는 물을 찾아 헤매기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공기가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서 경찰들이 들어와 산 사람들을 끄집어내더군요. 나도 그때 아직 안 죽은 상태라 끌려 나왔어요. 그때 연기를 많이 마셔서 그런지 그 이후로 계속 폐가 안 좋았어요.”(참고인 박순남 진술조서, 2009.12.7); “그때 우리가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다들 지방민들이었어요. 가족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 밖으로 살아온 사람도 상당히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오면 콧물이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길게 늘어뜨린 채 나왔어요. 처음에는 20~30명 정도 나왔는데, 점점 그 숫자가 줄었어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군인들에게 다 인계했어요.”(참고인 이○○ 진술조서, 2009.12.6); “경찰들이 앞에 들어가고 청년단이 뒤를 따라갔지. 시체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는데 비린내가 많이 나더라고. …(중략)… 안으로 들어가니까 조그만 구멍을 담요로 막아놓은 곳이 있어서 그걸 뚫어서 보니까 그 안에 우리 작은 외숙하고 그 친구 그리고 다른 사람 하나가 있더군요. 며칠을 먹지도 못하고 연기에 고생을 해서 사람 얼굴이 아니더군요. 그 세 사람을 다 데리고 밖으로 나오니까 산 위에서 보초서든 군인들이 데리고 갔어요.”(참고인 한○○ 진술조서, 2009.12.5.)

197) “처음에는 굴에서 50여 명이 나와서 모여 있었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줄고, 또 하룻밤 자고 나면 줄더니 나중에는 30여 명만 남았는데, 간수가 하는 말이 ‘며칠 지나면 여기 사람들이 다 풀려난다. 이 중에 네가 제일 어리니 넌 꼭 살려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후 며칠이 지나 나를 알고 있던 군인 한 명이 찾아와 나를 풀어줬어요. 그 군인이 나를 차에 태우고 가면서 나에게 ‘넌 참 운이 좋다. 저기 남은 사람들은 내일 이면 다 죽을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나는 풀려나서 전주의 그 군인 집으로 가서 살았죠. 나중에

신청인과 참고인들은, 당시 군경이 불을 피울 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일부 빨치산들은 곧 폐금광을 빠져나갔지만 피난민들은 여전히 내부에 남아 있다가 화를 당했는데 그 숫자는 약 370여 명이고, 갈담리로 끌려갔다가 멧골에서 총살된 숫자도 50여 명에 이를 것이라 추정하였다.<sup>198)</sup>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하여 임실경찰서는 '1951년 3월 14일 06시부터 15일 22시까지 청웅면 남산리의 적과 교전하여 217명을 사살하고 24명을 생포하였으며 일부 무기를 포획하였다'며 상부에 보고하였고,<sup>199)</sup> 내무부 치안국은 1952년에 『대한경찰전사』를 편찬하면서 '회문산의 빨치산이 청웅면 남산리 폐금광에 숨어들어 모두 250명의 빨치산이 숨어 있는

애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함께 잡혀 있던 사람들이 정말로 회문리 망월마을 어디선가 모두 총살되었다고 하더군요.”(참고인 박순남 진술조서, 2009.12.7); 신청인 박홍길(당시 21세)은 '청웅면에서 의경으로 활동했던 후배 양재일을 통해 누나를 포함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이 강진면 갈담리로 끌려가 군인들에게 조사를 받고 멧골에서 총살당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신청인 박홍길 진술조서, 2009.12.30). 한편 1970년대에 사건현장인 멧골에 추사를 건축한 참고인 정진열(1948년생)은 '추사 건축 당시 유골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주민들을 통해 그 유골이 부흥리 금굴에서 살아나왔다가 군인한테 총살당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군인들은 두 차례에 걸쳐 사람들을 트럭에 싣고 와 총살하고는 마을 구장을 불려다가 뒤처리를 하라고 시켰는데, 주민들은 땅을 팔 특별한 장비도 없고 또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도 너무 많아, 보리타작하고 남은 보릿대로 시신을 덮는 것으로 처리를 끝냈다고 한다. 그 후 세월이 흐르면서 골짜기의 토사가 쏟아져 내려 시신들을 자연히 덮어버린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참고인 정진열 진술녹취, 2009.12.9).

- 198) 신청인 박홍길은 '폐금광 내부의 한 굴에서만 모두 약 60여 구의 시신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신청인 박홍길 진술조서, 2009.12.30), 참고인 정진호는 '숙부의 시신을 찾으러 갔던 부친을 통해, 내부에 300여 구의 시신이 있더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참고인 정진호 진술조서, 2009.12.6), 참고인 정○○(당시 16세)은 '당시 경찰이 먼저 들어가고 청년단이 따라 들어갔는데 시체는 치우지 않았고, 유가족에게 찾아가라고 했지만 찾아간 시체는 얼마 안 되었다. 당시에는 약 300명 정도가 죽었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370명이라는 말을 들었다. 전쟁이 끝나고 23세(1958) 무렵 다시 금을 캐기 위해 굴속에 있는 시체를 치웠는데 그 당시에도 약 200여 구의 유골을 꺼내어 입구 인근에 매장했다'고 진술하였다(참고인 정○○ 진술조서, 2007.7.26). 또한 1994년 전라북도 의회에서 발표한 「6·25양민학살진상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수복 후 강진면장을 역임했던 이권형(조사 당시 79세)은 '폐금광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내부구조를 잘 알았고, 수복 후 면장을 하면서 피해 상황을 조사한 결과 사망자가 약 370여 명에 달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보고서의 희생자 명단에는 '강진면 부흥리의 노병기와 임막동, 회진리의 정인묵 외 3명(남자 3명 여자 1명), 방현리의 전광열, 조명옥, 전종열, 전원조, 정인기 등' 11명만 기재되어 있다(전라북도의회, 「6·25양민학살진상실태조사보고서」, 1994, 221쪽). 한편 멧골로 잡혀간 사람들의 경우, 참고인 이○○는 '내부를 수색한 첫날에는 20~30명 정도가 살아나왔는데 점차 그 숫자가 줄었다'고 진술하였고(참고인 이○○ 진술조서, 2009.12.6), 참고인 박순남은 '자신을 포함해 모두 50명이 함께 갈담리에 잡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참고인 박순남 진술조서, 2009.12.7), 참고인 정진열은 '추사 건축 당시 현장에서 정확한 숫자는 세어보지 않았으나 무수한 유골이 이곳저곳에 널려있었다'고 진술하였다(참고인 정진열 진술녹취, 2009.12.9).

- 199)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빨치산자료집3』, 『한국경찰대 일일보고서1』, 1951년 3월 18일 보고, 359쪽; 그리고 「정기작전보고」 제65호(1951년 3월 19일자)에도, '14일 06시부터 임실경찰서 공격대는 청웅면 남산리 부근에서 적을 포위공격 중에 있으며 15일 20시 현재 전투는 계속되고 있음(사살 217명, 생포 20명, 중기 2정, 총 16정)'이라 기록되어 있다(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21, 1987, 630~631쪽).

것을 발견한 청웅지서 경찰들이 3월 14일에 작전을 전개하였는데, 4개의 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28개의 입구를 폐쇄시킨 후 먼저 무조건 항복을 권고하였고, 빨치산이 이에 응하지 않아 오전 9시부터 입구에서 소나무 가지를 태우는 분화작전(焚火作戰)을 시작하였다. 연기가 들어가자 이를 참지 못한 빨치산들이 출구로 나왔고, 이때 좌우 양쪽 고지에 미리 매복시켜 두었던 경찰들이 집중사격을 가하여 사살당한 시체가 출입구를 폐쇄시킬 정도였다. 당시 경찰은 임실경찰서장 기우대(奇宇大)가 지휘하였고, 전과로는 217명을 사살, 79명을 생포하였다'고 기록하였다.<sup>200)</sup>

경찰은 이렇게 이 사건을 빨치산과의 교전 과정에서 대단한 전과를 올린 훌륭한 작전으로 묘사했지만, 그 큰 전과에 비해 군경 측에서는 사망자는 물론 단 1명의 부상자도 없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작전 당시 폐광광 내부에 군경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무장 빨치산이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무장 수준이 미미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불을 다 때고 나중에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무장대는 하나도 없더군요. 불을 땀다고 하니까 이미 다 도망을 갔던 모양이에요. 밤이고 낮이고 지키긴 했는데. 그 안에서 살아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sup>201)</sup>

“작전이 끝나고 폐광에 들어갔을 때 보초가 갖고 있던 총 한 자루밖에 보지 못했어요.”<sup>202)</sup>

200) 이 기록에서는 『한국경찰대 일일보고서1』의 보고보다 생포자가 55명 더 늘었고, 노획 무기는 '일부'에서 '경기 2정, 장총 5정, 다발총 4정, M-1 1정, 카빈 2정, M-1 실탄 118발, 수류탄 10개'로 늘어났다(내무부 치안국 대한경찰전사발간회, 『대한경찰전사, 제1집, 민족의 선봉』, 1952, 223~224쪽). 20여년이 흐른 1974년 임실경찰서는 『경찰기본대장』의 '경찰연혁'을 작성하면서, 역시 이 사건에 대하여 '1951년 3월 15일 임실군 청웅면 남산리 광산에 완전무장과 비무장 241명이 잠복 중임을 탐지. 아(我) 병력 70명이 포위 작전을 전개, 완전섬멸. 사살 217명, 생포 24명, 경기 2정, 소총 16정'이라고 기록하였다(임실경찰서, 『경찰기본대장』, '경찰연혁', 1974). 한편 작전에 참여했던 청웅면 치안대장 한병우는 전라북도 경찰국이 발간한 『꽃피는 산하-6.25의 흔적을 찾아서-』에서, '1월경 회문산의 빨치산이 지리산과 덕곡산으로 이동하던 중 이동경로 상에 위치한 남산리 폐광에 집결하였고, 이를 확인한 경찰이 15일 후 1차로 불을 피워 빨치산을 잡으려 하였으나,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한 빨치산들은 이미 다른 통로로 폐광을 빠져나가버렸다. 그 뒤 3월 8일 덕치, 삼계, 청웅, 강진의 좌익들과 부역자들이 폐광에 집결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경찰과 치안대 그리고 주민들을 동원하여 모두 300여 명을 모아 3개조로 편성한 뒤 굴 주위를 포위하고 3월 14일 새벽 6시 30분에 작전을 개시하였다. 이번에는 도망갈 구멍을 막기 위해 모두 32개 입구 중 4개만을 남긴 채 나머지는 봉쇄하고, 그 입구에서 불을 지르는 작전이었다. 불을 지르기 전에 먼저 손을 들고 나오면 생명은 보장하겠다고 항복을 권고하는 방송을 몇 차례 하였고 일부 가족들을 들여보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게도 하였으나 반응은 없었다. 결국 경찰과 치안대는 62시간에 걸쳐 불을 붙였고, 그 결과 사살 275명, 생포 79명, 무기와 탄약 다수 노획 등의 전과를 올렸다'고 증언하였다. 한병우는 또 자신이 당시 청웅지서 주임이었던 임학중과 함께 이 작전을 계획하였고, 또 임실경찰서장 기우대의 승인도 이미 받은 상태였다고 증언하였다(전라북도 경찰국, 『꽃피는 산하-6.25의 흔적을 찾아서-』, 한병우 증언, 1980, 330~332쪽).

201)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12.6.)

그래서 전쟁 이전 임실경찰서 사찰계에서 근무했고, 수복 후에도 임실경찰서로 복귀하여 토벌작전에 참여했던 참고인 김○○(당시 23세)은 ‘수복되고 나서 청웅면 금광굴에서 고추연기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요. 그 자리에는 부녀자도 있었고, 애들도 있고 해서 애매한 사람들이 희생된 것이지. 사건이 일어나고 몇 년 뒤에 내가 금광굴까지 들어가서 직접 조사를 해봤어요. 수직으로 조금 내려가는 길도 있고 그러는데 동료들하고 함께 전등을 가지고 들어가 봤어요. 근데 나는 끝까지 안 들어가고 ⅓정도 들어가다 기분이 나빠서 돌아 나왔어요.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수가 굉장히 많았어요’라며 당시의 상황을 술회하였다.<sup>203)</sup>

그리고 부흥리 입구에서 불을 땀던 청웅면 석두리 주민 이○○(당시 18세)은 ‘그때는 어려서 그냥 좋다고 불 때려 갔던 거지. 불 났을 때 안에서 반격도 없었고, 사실 사람이 죽을 거라거나 안에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도 못 했어. 그저 어른들과 경찰들이 시키니까 해야 되는 건가보다 하고 했던 거지. 어리니까 재미있는 일이었지’라며 당시를 회고하였다.<sup>204)</sup>

공간사의 기록에만 근거하면 청웅면·강진면의 폐금광 사건은 임실경찰서의 지휘 하에 청웅지서와 강진지서 경찰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되나, 참고인들의 진술에 근거하면 당시의 작전에는 경찰 이외에 임실지역에서 주둔·활동했던 국군도 참여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생포된 후 뗏목에서 살해된 사람들은 강진면 갈담리에 주둔하던 국군에게 희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sup>205)</sup> 그러나 국군 제13연대 제2대대 제7중대<sup>206)</sup> 이외에 작전에 참여했던 다른 중대, 특히 강진면 갈담리에 주둔했던 부대가 구체적으로 몇 중대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한국전쟁사료』에는 제13연대 제1대대 본부가 1951년 3월 9일부터 동월 23일까지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에 주둔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 폐금광 사건에 1대대 일부 병력도 참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sup>207)</sup>

202) 참고인 한○○ 진술조서(2009.12.5.)

203)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2.19.)

204)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12.5.)

205) 신청인 박홍길은 ‘청웅지서에서 의경으로 근무한 후배 양재일이 강진면 갈담리에서 사람들을 죽인 건 11사단 소속이었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신청인 박홍길 진술조서, 2009.12.30).

206) 작전에 참여했던 참고인 진○○은 ‘본인이 국군 제11사단 제13연대 제2대대 제7중대 화기소대에 배속된 학도병이었다’고 진술하였다(참고인 진○○ 진술조서, 2010.1.19).

207) 『정기작전보고』제55~69호(1951.3.9~3.23), 『한국전쟁사료』21, 1987, 421~716쪽: 당시 1대대 각 중대가 어느 지역에 주둔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강진면 갈담리는 강진면의 면소재지이고 옥정리는 강진면의 서쪽 끝에 위치하여, 갈담리의 치안은 옥정리에 주둔한 1대대본부가 예하 중대를 파견하여 담당하게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참고인 이○○의 ‘당시 강진국민학교에 군인들이 주둔했고, 학교 관사에 배치되어 위생병들의 부상병 치료도 도왔으며, 당시 옥정리 민재 고지에 주둔하던 군

금번 조사를 통하여 당시 폐금광에서는 다-10022호의 박완(朴垸 · 1936)<sup>208)</sup>, 다-10179호의 전상수(全相守 · 1927) · 전상구(全相玖 · 1934) · 전상옥(全相沃 · 1937),<sup>209)</sup> 다-10183호의 박홍철(朴泓喆 · 1916) · 박홍복(朴泓福 · 1919) · 이점성(李占性 · 1931) · 박윤식(朴潤植 · 1947)<sup>210)</sup>, 그리고 신청하지 않은 사람으로 청웅면 구고리의 박경식(朴庚植 · 1913)<sup>211)</sup> · 박신용의 모친(당시 50대) · 박종철(당시 20대) · 정인철(鄭寅哲, 일명 정판철 · 1902) · 그 아들 정원모(鄭元謨 · 1934)<sup>212)</sup> · 한명수(韓明洙, 일명 한선수 · 1916)<sup>213)</sup>, 청웅

인들에게 공급할 부식을 메고 군인들을 따라갔다 온 일도 있었다’는 진술(참고인 이○○ 진술조서, 2009.12.6)과 당시 1대대장이었던 이준성 중령(자력표에 따르면 이준성 중령의 1대대장 재임기간은 1951.1.25~4.10이다)의 ‘재임 당시 임실군 갈담에 주둔하며 옥정리의 수문을 지켰다’는 증언(군사편찬연구소, 『이준성 증언록(HA02766), 1966)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 208) 참고인 진○○은 ‘당시 첩보원들을 통해 폐금광 내부에 학교동창(1949년 임실초등학교 졸업)인 박완이 있다는 것을 알아 자수를 권유했지만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참고인 진○○ 진술조서, 2010.1.19).
- 209) “중신마을 사람들 중에 전상호씨 부친과 형님들(전상수, 전상구, 전상옥), 누나까지 거기서 죽었어요.”(참고인 이○○ 진술조서, 2009.12.5): “그때 군경이 오면 사람들을 죽인다는 말이 돌아서 겁이 나니까 거기를 들어갔어요. …(중략)… 5명 모두 폐광에 있다가 형님 세 분은 폐광에서 돌아가시고, 부친과 누나는 폐광에서 나와 강진면으로 끌려갔다가 뱃골에서 총살되었습니다. …(중략)… 사건 이후에 우리 당숙과 마을 분 2명이 함께 굴에 가서서 형님 세 분의 시신을 찾아왔어요. 아버지와 누나의 시신은 못 찾았고.”(신청인 전상호 진술조서, 2009.12.4): “할아버지 말씀이 백부님 가족들이 폐광에 있고, 전상호씨 가족도 폐광에 있다고 하니 다시 한 번 들어가서 확인해보라고 하시더군요. 할아버지는 굴속이 길 하나로 뚫린 줄 아셨던 모양입니다. 사실 굴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었거든요.”(참고인 전상호 진술조서, 2009.12.6.)
- 210) “시신을 찾으러 직접 들어가서 보니까, 6호 굴이라고 청웅면 쪽 입구에 가까운 굴이 있는데 그곳에 둘째형님(박홍복)과 조카(박윤식)가 죽어 있었어요. 둘째형수(이점성)는 당시 임신 중이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시신이 둘째형과 같은 굴에 있지 않고 강진면 입구 쪽에 있더군요. 그리고 둘째형과 조카는 총상이 없었는데, 형수는 이마에 총상이 나 있었어요. …(중략)… 그때 큰형(박홍철)과 누나(박홍순)는 6호굴에 없었어요. 6호 굴에만 시신이 한 50~60구 이상 있었던 것 같은데, 큰형은 결국 시신을 못 찾았어요. …(중략)… 그때 양재일(신청인의 후배)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군경이 불을 다 떼고서 굴 안에 들어가 살아 있는 사람들을 몰아서 밖으로 내보내는데, 한 20여 명이 몰려가다가 우리 형수가 임신 중에 연기를 많이 마셔서 제대로 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솔하던 사람들이 중간에서 총살시켜 버리고 나머지 사람들만 데리고 나갔다고 하더군요. …(중략)… 굴속에서 살아남은 한준수, 정일모 이 두 사람한테서 큰형이 굴속에 같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어요.”(신청인 박홍길 진술조서, 2009.12.30). 한편 이상 4명은 제적부에 1951년 2월 6일(양력 3월 13일) 청웅면 남산리 산79번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제사날짜를 사망일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박홍철은 『대공전산화자료』의 ‘6·25 당시 처형자’ 명단에도 이름이 올라 있다(임실경찰서 『대공전산화자료』, 1979). 또 신청인 박홍길 가족의 사망 사실은 구고리 주민 양병옥도 기억하고 있었다(참고인 양병옥 진술조서, 2009.12.8).
- 211) 박경식의 사촌동생 박연식은 ‘박경식의 시신을 본인의 부친이 직접 폐금광에서 수습해 왔다’고 진술하였으며(참고인 박연식 진술조서, 2009.12.9), 향교리 주민 허장도 ‘박경식이 수복 무렵 경찰에게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참고인 허장 진술조서, 2009.12.9). 또 임실경찰서의 『대공전산화자료』에도 박경식이 전쟁 중 처형자로 기록되어 있다(임실경찰서, 『대공전산화자료』, 1979).
- 212) 신청인 박홍길은 ‘정인철과 그 아들 정영모, 정원모가 모두 폐금광에서 사망했고, 그중 정인철과 정원모의 시신은 본인이 직접 폐금광 내부에서 목격했다’고 진술했다(신청인 박홍길 진술조서, 2009.12.30). 정

면 남산리의 김사일·김사일의 처·김사일의 아들 김철수(金哲洙·1923)·김철수의 처<sup>214)</sup>·박순기(1934)<sup>215)</sup>·이봉화(李鳳嬋·1895)·그 아들 박동순(朴東淳, 일명 박삼룡·1927)·박동순의 처(전씨·당시 20대)<sup>216)</sup>·최회구(崔回狗·1913)·그 아들 최정남(崔貞男, 일명 최정기·1935)<sup>217)</sup>·전상룡(全相龍·1929)<sup>218)</sup>, 청웅면 석두리의 박용기(朴龍基·

원모는 『대공전산화자료』의 '6·25 당시 처형자' 명단에도 이름이 올라 있다(임실경찰서, 『대공전산화자료』, 1979). 그러나 정영모의 경우, 제적부에 따르면 1989년 2월 11일 일본에서 사망하였고, 자녀 정화자가 1960년에 일본에서 출생하여 1975년에 일본의 나고야 총영사관에 정영모가 직접 신고한 것으로 기록되어 폐광장에서 사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 구고리 주민 양병옥도 '당시 구고리 사람들 중 정판철과 그 아들 1명, 그리고 박종철, 박경식, 박신용의 모친, 박홍길의 가족 몇 명이 폐광장에서 사망했다'고 진술하였다(참고인 양병옥 진술조서, 2009.12.8).

- 213) “당시 백부님이 자수하면 살려준다는 경찰의 말을 폐광에 전하라고 아버지(한명수)을 보내셨답니다. 그렇게 아버님은 폐광으로 갔다가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참고인 한명서 진술조서, 2010.1.18): “그리고 한명수라고 박탁씨 이모부인데 그 사람 시신도 봤어요. 당시 형님들 시신을 찾을 때 6호굴에서 시신을 꺼내 평평한 곳에 모두 퍼놓고 확인을 했었거든요.”(신청인 박홍길 진술조서, 2009.12.30). 또 『대공전산화자료』의 '6·25 당시 처형자' 명단에서도 한명수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임실경찰서, 『대공전산화자료』, 1979).
- 214) 청웅면 향토방위대로 활동한 참고인 홍○○(당시 25세)는 ‘타지에서 들어와 살던 일가 4명이 굴속에 들어가서 죽었는데, …(중략)… 마을에 정착해서 살다가 전쟁이 나니까 자기 세상 만났다고 설치다가 결국 굴속에 들어가서 죽었지. 그 집 부모 내외하고 자식 내외하고 그렇게 4명이었어. 김사일이 아버지이고 아들이 김철수라고 그랬어’라고 진술하였고(참고인 홍○○ 진술조서, 2009.12.7), 참고인 전상하도 ‘원남산마을의 김사일 일가 4명이 폐광에서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다(참고인 전상하 진술조서, 2009.12.6). 이들 중 김철수는 『대공전산화자료』의 '6·25 당시 처형자' 명단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임실경찰서, 『대공전산화자료』, 1979).
- 215) 신청인 박탁(당시 8세)은 ‘남산리에 거주하던 당숙 박순기가 폐광에서 사망했다는 말을 들었으나 이미 멸문되어 아무도 조사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신청인 박탁 진술조서, 2009.12.1).
- 216) “막내오빠가 입산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때는 군인이나 경찰이 오면 협조한 사람들은 다 죽인다고 해서 굴속에 들어갔어요. …(중략)… 어머니(이봉화)와 오빠(박동순), 올케가 같이 폐광에 들어갔었어요. 올케는 그때 임신 중이었는데. …(중략)… 당시 큰오빠는 굴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큰오빠는 그때 구고리로 분가해서 살면서 청방으로 활동했어요.”(참고인 박순남 진술조서, 2009.12.7.) 한편 1994년 전라북도의회가 ‘6·25양민학살진상실태’를 조사할 당시 박순남의 큰오빠 박시순(당시 35세)은 ‘폐광 안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 구출하러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6·25양민학살진상실태조사자료』, 전라북도의회 제공). 이봉화와 박동순은 제적부상 사망일자가 1951년 2월 6일(양력 3월 13일)인데, 이는 제사날짜를 사망일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박동순의 처는 당시 혼인신고가 안 되어 제적부에 올라 있지 않았다.
- 217) “당시 부친(최회구)과 형님(최정남)만 폐광에 들어가고 나머지 가족들은 집에 있었어요. 어머니는 군경이 청운국민학교로 끌고 가 있었고. …(중략)… 어머니가 동네 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시신을 찾아보게 했더니, 어른들이 폐광에 가서 아버지의 시신을 모시고 왔답니다. 그날 나도 아버지 시신 있는 곳으로 불러갔는데 동네 분들이 나를 보고 ‘네 아버지 시신이 맞는지 확인해 봐라’고 하시기에 보니까 정말 아버지가 맞더라고요. 그날 시신을 매장했죠. 형님 시신은 못 찾았어요.”(참고인 최원주 진술조서, 2009.12.7): “불을 때기 전에 우리 가족이 폐광으로 피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가족들을 찾아보려고 폐광에 들어갔는데, 당시 최원주씨 부친(최회구)와 이영희씨 부친의 안내를 받아서 굴속에 들어갔죠. …(중략)… 그분들이 일제 강점기에 폐광에서 노동을 하시던 분들이예요. 그래서 광산에 대해 잘 아셨고, 그분들이 제일 먼저 폐광에 들어가셨어요. …(중략)… 최원주씨 가족 2명도 폐광에서 죽었어요.”(참고인 전상하 진술조서, 2009.12.6.) 최회구는 제적부상 사망일자가 1951년 2월 6일(양력 3월 13일)인데, 이는 제사날짜를 사망일



1927)<sup>219)</sup> · 김기획 · 김한<sup>220)</sup>, 청웅면 청계리의 고현구(당시 50대) · 송태순(宋泰淳 · 당시 30대) · 정인환(당시 30대),<sup>221)</sup> 청웅면 향교리의 이명근(당시 20대) · 이석근(당시 40대) · 이진실(李鎭實 · 1922),<sup>222)</sup> 강진면 갈담리의 박창갑(朴昌甲 · 1901) · 그 딸 박인정(朴仁正 · 1932), 강진면 부흥리의 노병기 · 이판남 · 임막동, 강진면 회진리의 정인묵,<sup>223)</sup> 삼계면 홍곡리의 김학연(金學淵 · 1913)<sup>224)</sup> 등 4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 또는 추정되었고, 멧골

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 218) 참고인 전상하는 '남산리에서 최원주의 가족 2명, 김사일의 가족 4명, 박순남의 가족 3명, 이재철, 전상룡, 그리고 다른 전씨 1명, 이씨 일가 12명, 성명불상의 1명 등이 폐금광에서 사망했다'고 진술했는데(참고인 전상하 진술조서, 2009.12.6), 이들 중 전상룡은 『대공전산화자료』의 '6·25 당시 처형자' 명단에도 이름이 등재되어 있었다(임실경찰서, 『대공전산화자료』, 1979). 한편 이재철의 경우, 전북대학교의 피해자현황조사에서는 1951년경 '남산리의 이재철(당시 20대)'이 군인에게 연행되어 남산리 야산에서 살해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2008년 피해자현황조사 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전북 임실군)』,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에는 '남산리의 이재철(李在喆 · 당시 25세)'이 1951년 3월 8일 납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공보처 통계국,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기3』, 1952, 임실편 6쪽). 거주지나 연령대로 보아 이 3인이 동일인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각각의 진술과 기록이 일치하지 않아 확실한 사망·행방불명경위를 판단할 수 없었다.
- 219) 참고인 전상하는 '석두리 만지메마을 주민 박창년의 부친(박용기)이 폐금광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는데(참고인 전상하 진술조서, 2009.12.6), 박용기는 『대공전산화자료』에 전정 당시 처형자로 기재되어 있다(임실경찰서, 『대공전산화자료』, 1979). 한편 박용기의 제적부상 사망일자는 1951년 2월 6일(양력 3월 13일)로, 이는 제사날짜를 사망일자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 220) 참고인 박만진(당시 30세)은 '마을에서 1948년에 경찰에 끌려갔다 행방불명된 김기생의 가족 김기획, 김한이 폐금광으로 피신했다가 사망했다'고 진술했다(참고인 박만진 진술조서, 2010.2.19).
- 221) "우리 매형도 그 안에서 질식해서 죽었어요. 고현구라고, 나중에 조카가 시신을 찾아다가 매장하고 전주로 떠나버렸어요. …(중략)… 정인환이라고 면사무소 직원이었었는데 빨치산한테 잡혀 폐광에 가서 죽었고, 송태순이도 폐광에서 죽었어요. …(중략)… 당시 우리 큰 외숙(허이영)도 굴에 있었는데, 연기가 나니까 한 밤중에 어느 통로로 굴을 빠져나왔답니다. 그걸 산 위에서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보고는 총을 쏘는데 맞추질 못했나 봐요. 그래서 큰 외숙은 나중에 청웅면 축성회 대장이었던 한병우씨에게 자수해서 명대로 다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참고인 한○○ 진술조서, 2009.12.5); "면서기를 했던 정인환이 죽었고, 고현구, 송태순도 거기서 죽었어요." (참고인 정인홍 진술조서, 2009.12.8); "청웅면 청계리에서 6~7명이 죽었다는데, 그중에는 한○○의 매형(고현구)과 정인환, 송태순이 있어요. 나머지는 이름을 모르겠네요." (참고인 전상하 진술조서, 2009.12.6.) 한편 송태순은 『대공전산화자료』의 '6·25 당시 처형자' 명단에도 이름이 올라 있다(임실경찰서, 『대공전산화자료』, 1979).
- 222) 참고인 최경남은 '향교리 성전마을의 이명근, 이석근, 이진실이 모두 폐금광에서 죽었는데, 그중 이석근과 이진실은 유족들이 시신도 찾아왔다'고 진술하였다(참고인 최경남 진술조서, 2009.12.10). 그리고 이진실은 임실경찰서 『대공전산화자료』의 '6·25 당시 처형자' 명단에도 기록되어 있다(임실경찰서, 『대공전산화자료』, 1979). 그러나 이들은 연고자를 찾을 수 없어 더 이상의 신원확인이 불가능하였다.
- 223) 참고인 이○○는 '부흥리 주민 노병기, 임막동, 이판남, 갈담리의 박창갑과 그 딸 박인정, 회진리의 정씨 몇 명이 폐금광에서 사망하였다'고 진술했는데(참고인 이○○ 진술조서, 2009.12.6), 이들 중 노병기, 임막동은 전라북도의회에서 발표한 '6·25양민학살진상실태조사보고서'에도 그 이름이 올라 있고, 회진리 정씨들의 경우 전라북도의회의 보고서에서는 '정인묵 외 3명'이라고 하여 정인묵의 이름을 언급하였다(전북도의회, 『6·25양민학살진상실태조사보고서』, 1994). 또 임실경찰서의 『대공전산화자료』에는 박창갑이 '6·25 당시 처형자' 명단에 올라 있다(임실경찰서, 『대공전산화자료』, 1979).
- 224) "마을주민 중 가족이 폐금광에 있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 시신을 찾으러 갔다가 우리 아버님(김학연)의

에서는 다-10179호의 전태순(全兌淳 · 1907) · 전정애(全貞愛 · 1931),<sup>225)</sup> 다-10180호의 정재옥(鄭在玉 · 1924),<sup>226)</sup> 다-10183호의 박홍순(朴泓順 · 1926),<sup>227)</sup> 그리고 신청하지 않은 사람으로 청웅면 옥석리의 허남영(당시 20대),<sup>228)</sup> 정읍군 산내면의 김형술<sup>229)</sup> 등 6명이 총살당한 것으로 확인 또는 추정되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임실경찰서(청웅지서, 강진지서) 경찰과 국군 제11사단 제13연대 제1·2대대 군인이 1951년 3월 14~16일 3일에 걸쳐 청웅면 남산리(강진면 부흥리)의 폐금광에 모여 있던 일부 빨치산을 포함한 민간인들 300~400명을 살해하고, 생포한 50~70명은 10여 일 후 강진면 회진리 속칭 멧골에서 총살한 사건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희생자 중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람은 모두 47명뿐이었다.<sup>230)</sup>

시신도 보았다고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쪽에서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되었죠.”(참고인 김찬기 진술조서, 2010.1.16.) 김학연은 「대공전산화자료」의 ‘6·25 당시 처형자’ 명단에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임실경찰서, 「대공전산화자료」, 1979).

225) “5명 모두 폐광에 있다가 형님 세 분은 폐광에서 돌아가시고, 부친(전태순)과 누나(전정애)는 폐광에서 나와 강진면으로 끌려갔다가 멧골에서 총살되었습니다. …(중략)… 부친과 누나는 굴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어디론가 끌려갔다고만 알고 있었고 멧골 얘기는 근래에 와서 알게 된 겁니다.”(신청인 전상호 진술조서, 2009.12.4.)

226) “우리 어머니는 부친(정재옥)이 당시 광산에서 강진면으로 끌려갔다는 것까지만 알고 계셨는데, 나중에 마을어른들을 통해 강진면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멧골에서 총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략)… 박순남씨라고 현장(강진면)에 같이 계시다 살아 나오신 분이 있어요.”(신청인 정일모 진술조서, 2009.12.2.) 참고인 전상호는 ‘옥석리 주치마을에서 정일모의 부친 이외에도 4명이 더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씨 1명과 김씨 1명이 있었고 나머지의 이름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참고인 전상호 진술조서, 2009.12.6).

227) “후배(양재일) 말이 내 누나(박홍순)가 강진면으로 끌려가서 조사받고는 총살당했다고 하더군요. …(중략)… 나중에 박순남이라고 강진 갈담리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분 말이 갈담리에서 우리 누나와 함께 있었고, 자기는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남아 있던 분들은 모두 총살당했다고 그랬어요.”(신청인 박홍길 진술조서, 2009.12.30): “갈담리에서 박홍순이라고 박홍길의 누나인데 그 사람이 같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 중에 얼굴은 알지만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조금 있었어요.”(참고인 박순남 진술조서, 2009.12.7): 박홍순은 제적부에 ‘1951년 2월 6일(양력 3월 13일) 청웅면 남산리 산79번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폐금광에서 군경이 작전을 실시한 날짜가 음력 2월 7일이기 때문에 2월 6일에 제사를 지내면서 그 날짜를 사망일로 신고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228) 참고인 한○○는 ‘작전 후 폐금광 내부를 수색하며 작은 외숙(허남영)과 외숙의 친구 1명을 포함하여 모두 3명의 생존자를 발견했고, 그들을 굴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군인들이 인계하여 갔다. …(중략)… 이들은 모두 옥석리 사람들이었다’고 진술했고(참고인 한○○ 진술조서, 2009.12.5), 참고인 전상호 역시 ‘옥석리 주민 정일모씨 부친(정재옥), 허씨 1명, 김씨 1명 등 모두 5명이 사망했다’고 진술했는데, 그중의 허씨가 한○○의 외숙부 허남영일 것으로 추정된다(참고인 전상호 진술조서, 2009.12.6).

229) “내 이모부도 당시 활약을 하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김형술이라고, 정읍 산내면 분인데. 부흥리 금굴에 있다가 살아 나와서 거기(멧골)에서 돌아가셨어요.”(참고인 정진열 진술녹취, 2009.12.9.)

230) 멧골에 축사를 세운 참고인 정진열은 희생자의 신원확인이 어려운 이유를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근데 그 유족들이 자기 아버지, 형제들이 거기에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정부에 미안해서 그런 건지, 죄진 마음에 그런 건지, 안 나타나. 여기 지방 사람들은 누구도 거기서 죽고, 누구도 거기서 죽고 한 것들 아는데. …(중략)… 또 그 후에 보면 여기에 자기 부모들이 묻혔다고 자식들이 몰래 명절이면 왔다가 가

## 11) 청웅면 석두리 사건

## 가) 사건개요

○ 사건번호: 다-10181호

○ 사건개요: 1950년 10월 군경의 임실을 수복 무렵 임실경찰은 청웅면 석두리 주민 전창순을 청웅면 두복리에서 체포하여 총살하였다.

## 나) 사건내용

신청인 전상하는 부친 전창순(全彰淳 · 1911)이 인민군 점령기에 좌익활동을 하다가 임실이 수복될 무렵 입산하였다고 진술하였다.<sup>231)</sup>

전상하는 또 본인 역시 전쟁이 발발하면서 의용군으로 갔다가 서울 수복 무렵 덕유산으로 입산하였기 때문에 부친이 입산하던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그 소식을 들었고 입산한 후로 소식이 끊어졌는데, 부친의 행방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는 있었지만 확실한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sup>232)</sup>

전창순의 사망과 관련하여, 석두리 주민 이○○은 ‘전창순이 전쟁 중에 사망한 것은 맞지만 그 경위는 모른다’고 진술하였고,<sup>233)</sup> 청웅면 향토방위대에서 활동한 한○○은 ‘전창순이 전상하의 부친이고, 임실군당 위원장이었으며, 어느 산에서 잡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sup>234)</sup> 그리고 두복리 주민 권봉조 역시 전창순이 경찰에게 산에서 잡혀 끌려갔다고 진술했는데,

“전상하씨 부친이 사상이 지금 우리 남쪽의 사상이 아니고, 조금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다는 것만 알지. 우리 마을 뒷산에 방태라는 굴이 있어요. 거기서 잡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잡혀갔으니까 돌아가신 걸로 아는 거지, 잡혀가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 내막은 모르고.”<sup>235)</sup>

곤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명절이면 뗏뗏하게 산소에 가고 그러는데.”(참고인 정진열 진술녹취, 2009.12.9.)

231) 신청인 전상하 진술조서(2009.12.6.)

232) “폐광에서 돌아가셨다는 말도 있고, 경찰에 잡혀서 돌아가셨다는 말도 있고, 근데 정확히는 몰라요. 어디서 어떻게 되셨는지.”(신청인 전상하 진술조서, 2009.12.6.)

233) “전쟁 통에 돌아가시기는 했어요. 어디서 돌아가셨는지는 모르지만, 폐광에서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참고인 이○○ 진술조서, 2009.12.5.)

234) “(전창순씨가) 전상하씨의 부친이에요. 임실군당 위원장이었어요. 똑똑하신 분이었죠. 어느 산에서 잡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참고인 한○○ 진술조서, 2009.12.5.)

235) 참고인 권봉조 전화면담(2010.3.30): 또 두복리 주민 권택은 ‘전쟁 당시 두복리 사동마을 뒷산의 속칭 방

한편 임실경찰서에서 작성한 『대공전산화자료』의 ‘6·25 당시 처형자’ 명단에는 ‘1924년 생의 전창순’이 등재되어 있는데, 비록 출생연도는 다르지만 본적지가 ‘청웅면 석두리 404번지’로 희생자와 동일하고 이름의 한자도 ‘全彰淳’으로 동일하여,<sup>236)</sup> 두 사람은 동일인물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창순과 관련한 재판기록이나 행형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상의 기록과 진술에 근거하면, 전창순은 좌익활동을 하다가 경찰에게 생포된 후 재판 등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형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임실군 진실규명불능 사건

### 1) 신덕면 엄수동 · 홍정표 사건

#### 가) 사건개요

○ 사건번호: 다-7700(1)호<sup>237)</sup>

○ 사건개요: 1950년 12월~1951년 3월 사이 신덕면 월성리 주민 엄수동, 홍정표가 행방불명되었다.

#### 나) 사건내용

신청인 김성남은 신덕면 월성리 주민 홍정표(洪正杓 · 1930)가 한국전쟁 시기 경찰에게 희생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sup>238)</sup> 참고인 조옥단(당시 25세)도 홍정표가 인민위원회에서 활동한 친척 홍영표의 일에 연루되어 1951년 1월 경찰에게 잡혀간 것으로 추측하였다.

“홍정표는 수복 후에 면소재지에 청년대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청년대장을 했었어요. 근데 홍정표가 사라진 것은 인공 때 활약했던 친척 때문이었죠. 그 친척(홍영표)이 총상을 당해서 집에 와 있었는데, 당시 이장을 했던 고○○라는 사람이 그 친척을 찾아와서 쌀 몇 가마를 쓰고 자수하면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그 친척은 이장이 달라는 쌀을 주지 않고 거부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홍정표가 이장의 행동이 괘씸하다고 찾아가 그 사람을 뺐어요. 그러자 그 이장이 화가 나서 면에 가서는 홍정표가 빨치산과 연락한다는 무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도 홍정표는 평상시처럼 청년대장으로서 면소재지에 일을 보러 나갔는데, 그렇게 나가고 3일 만에 소식이 끊어진 겁니다. 그 후로는 어떻게 됐는지 전혀

---

태라는 굴에 다수의 피난민들이 모여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참고인 권탁 전화면담, 2010.3.30).

236) 임실경찰서, 『대공전산화자료』, 1979.

237) 이 사건은 사건번호 다-7700호의 진실규명대상자 중 일부 진실규명불능 대상자를 분리한 사건임. 다-7700호 사건은 본문 ‘나. 임실군 사건’의 ‘2) 신덕면 월성리 사건’ 참조.

238) 신청인 김성남 진술조서(2009.12.16.)

소식이 없는 거죠.”<sup>239)</sup>

그러나 참고인 김양근은 홍정표가 빨치산에게 희생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sup>240)</sup> 참고인 황○○은 홍정표가 인민군의 후퇴 시 그들을 따라간 걸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sup>241)</sup> 참고인 하명호는 또 홍정표가 빨치산에게 협력하는 척 하며 실제로는 경찰을 돕다가 그 사실이 발각되어 빨치산에게 어디론가 끌려가 살해되었다고 진술하였다.<sup>242)</sup>

이상과 같이 홍정표의 행방에 대한 신청인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홍정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를 통해 사망 혹은 행방불명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또 신청인과 참고인들은 1950년 12월~1951년 3월 사이 주민 엄수동(당시 20대)도 사망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사망경위에 대해 신청인 김성남은 엄수동이 마을 인근에서 치안대원들에게 총살된 것으로만 알고 있었고,<sup>243)</sup> 참고인 김양근은 ‘엄수동이 치안대원들에게 구타당한 후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냇가에 빠져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sup>244)</sup> 참고인 하명호는 또 엄수동이 빨치산에게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sup>245)</sup>

이상과 같이 엄수동은 그 구체적인 사망시기와 장소 그리고 사망경위를 확실하게 아는 참고인도 없고 또 관련자료도 찾을 수 없어, 그의 사망과 관련한 사건정황은 확인할 수 없었다.

## 2) 청웅면 구고리 정인택 부자 사건

### 가) 사건개요

○ 사건번호: 다-10023호

○ 사건개요: 1950년 10월 군경의 임실읍 수복 이후 경찰은 입산한 청웅면 구고리 주민 정인택을 체포하여 총살하였고, 또 정인택의 일을 항의하는 그 부친 정학석을 구타하였다.

239) 참고인 조옥단 진술녹취(2010.1.14.)

240) “홍정표는 인공 때 빨치산에게 죽었다고 알고 있어요.”(참고인 김양근 진술조서, 2009.12.16.)

241) “홍정표는 인민군들이 후퇴할 때 따라간 걸로 아는데, 그 뒤로는 소식이 없었고.”(참고인 황○○ 진술조서, 2010.1.13.)

242) “홍정표씨는 빨치산들하고 손잡고, 경찰과 내통하며, 지금 말하자면 간첩이지. 그러다가 그걸 알아갖고 빨치산한테 잡혀서 죽었어.”(참고인 하명호 진술녹취, 2010.1.13.)

243) 신청인 김성남 진술조서(2009.12.16.)

244) 참고인 김양근 진술조서(2009.12.16.)

245) 참고인 하명호 진술녹취(2009.12.2.)

## 나) 사건내용

임실읍이 수복될 무렵 청웅면 구고리 주민 정인택(鄭寅宅·1932)은 입산하였고 그 뒤로 소식이 끊어졌다. 정인택은 원래 우익 쪽에서 활동하다가 그 매형 박훈(朴煥·1919)이 1948년 좌익으로 몰려 사망하면서부터 좌익활동을 하였고 그런 이유로 입산하게 되었는데, 신청인 박탁(당시 8세)은 당시 산으로 피신한 많은 주민들이 청웅면 남산리 폐금광에서 군경에게 살해되었고, 또 정인택의 제적부에 '1951년 1월 25일(양력 3월 2일) 청웅면 남산리 후산(後山) 50번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sup>246)</sup> 날짜는 일치하지 않지만 정인택 역시 폐금광 사건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진술하였다.<sup>247)</sup>

그리고 당시 구고리에 함께 거주했던 참고인 양병옥(당시 21세)도 정인택이 전쟁 전에는 방위소위로 일했던 사람이고 전쟁이 발발한 후 폐금광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sup>248)</sup>

그러나 박훈의 동생 박순애(당시 22세)는 폐금광에서 정인택을 본 적이 없고 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폐금광에서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sup>249)</sup> 그리고 정인택의 집안에 입양된 참고인 정인홍(당시 21세)<sup>250)</sup>은 정인택의 막내 여동생(정수남, 당시 18세)을 통해 정인택이 전쟁 당시 광주수용소에 잡혀 있어 그곳으로 면회를 간 일이 있었고, 그 후 전쟁이 끝나기 전에 사망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sup>251)</sup>

이상의 진술에 근거하면 정인택의 사망이 경찰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구체적인 사망경위와 관련한 신청인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더 이상의 다른 자료도 찾아볼 수 없어, 정인택이 공권력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신청인은 또 외숙부 정인택의 사망이후 외조부 정학석(鄭學錫·1882)이 청웅지서 경찰에게 아들의 죽음을 항의하다가 구타당했고 몇 달 지나지 않아 그 구타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진술하였다.

246) 제적부에는 '단기 4284년 1월 25일 오후 11시 임실군 청웅면 남산리 후산50번지에서 사망. 호주 단기 4293년 9월 10일 신고'라고 기록되어 있다.

247) 신청인 박탁 진술조서(2009.12.1): 폐금광 사건은 3월 14~16일에 발생하였다.

248) 참고인 양병옥 진술조서(2009.12.8.)

249) 참고인 박순애 진술녹취(2010.1.7.)

250) 정인홍은 정인택 집안의 제사를 모시기 위해 양자로 입양되었다고 한다(참고인 정인홍 진술조서, 2009.12.8.).

251) 참고인 정인홍 진술조서(2009.12.8.)

“(외조부께서) 청웅지서를 찾아가 경찰들에게 그렇게 따졌답니다. 안 그래도 미운 털이 박힌 사람인데 지서에서 와서 그렇게 따지니까 경찰들이 가만 두었겠습니까. 무지하게 맞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맞고 나서 구고리 집에 계실 때 어머니와 함께 외갓집에 가서 누워계신 외조부를 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정확한 사망일자는 모르는데, 당시 70이나 되셨던 노인이 젊은 경찰들에게 겁데기가 벗겨지도록 맞으셨는데 오래 사실 수가 있었겠습니까.”<sup>252)</sup>

그러나 참고인 박순애는 정학석이 전쟁이 끝난 후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sup>253)</sup> 참고인 양병옥은 정학석이 경찰에게 구타당한 일도 모르고 그의 사망원인은 병환 때문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sup>254)</sup>

이상과 같이 정학석의 사망과 관련한 신청인과 참고인들이 진술 역시 정인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로 일치하지 않고 또 관련자료도 확인할 수 없어, 정학석의 구체적인 사망 경위 또한 확인할 수 없었다.

### 3) 청웅면 전상순·전기순 사건

#### 가) 사건개요

○ 사건번호: 다-10181(1)호<sup>255)</sup>

○ 사건개요: 1950년 10월 군경의 임신품 수복 무렵 청웅면 석두리 주민 전상순, 전기순은 입산하였고, 그 뒤로 소식이 끊어졌다.

#### 나) 사건내용

신청인 전상하는 ‘숙부 전상순(全庠淳·1919)과 전기순(全起淳·1933)이 부친 전창순과 함께 임신품이 수복될 무렵 입산하였고 그 뒤로 소식이 끊어졌는데 남산리 폐금광에서 사망했다거나 경찰에게 잡혀서 사망했다는 등의 소문은 있었지만 확실한 소식은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sup>256)</sup>

252) 신청인 박탁 진술조서(2009.12.1.)

253) 참고인 박순애 진술녹취(2010.1.7.)

254) “그분(정학석)은 전쟁 때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아파서 돌아가신 길로 아는데. …(중략)… (경찰에게 맞은 사실은) 잘 모르겠네요. 모르는 얘기입니다.”(참고인 양병옥 진술조서, 2009.12.8.)

255) 이 사건은 사건번호 다-10181호의 진실규명대상자 중 일부 진실규명불능 대상자를 분리한 사건임. 다-10181호 사건은 본문 ‘나. 임실군 사건’의 ‘11) 청웅면 석두리 사건’ 참조.

256) 신청인 전상하 진술조서(2009.12.6.)

마을주민 이○○ 역시 ‘전상순과 전기순이 전쟁 중에 사망한 것은 확실하나 그 사망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sup>257)</sup>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전상순과 전기순이 한국전쟁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더 이상의 진술이나 자료 확보가 불가능하여 그 구체적인 사망경위는 확인할 수 없었다.

### 3. 사건 조사결과

#### 가. 희생자 수와 희생자의 특징

##### 1) 희생자 명단

희생사실에 대한 ‘확인’은 △목격자 진술 △시신수습 △참고인 전문 △국가기관의 자료 혹은 제적부 확인 등의 4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그중 목격자 진술이 없어도 2인 이상의 전문 참고인이 있거나 1인 이상의 전문 참고인이 있고 시신을 수습한 경우는 희생자로 ‘확인’하였다.

희생사실의 ‘추정’은 △전문 참고인 1인의 진술 △유가족의 진술 △국가기관의 자료 혹은 제적부의 기록 등이 신청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제적부의 경우 사망연월일이 사건발생일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 혹은 추정의 근거로 참고하였다.<sup>258)</sup>

그리고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거나 △사건정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는 ‘불능’으로 판단하였다.

조사결과 희생자로 파악된 사람은 모두 116명(확인 78명, 추정 38명)인데, 그중 신청사건에서 희생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53명, 추정 희생자는 11명이다. 그리고 신청하지 않았으나 조사과정에서 희생사실이 확인된 사람이 25명이고, 추정 희생자는 27명이다. 이상 희생사실이 추정되거나 확인된 사람은 모두 임실군 사건의 희생자들이었고, 순창군 사건의 진실규명대상자 3명은 진실규명이 불가능하였으며, 또 임실군 사건의 진실규명대상자

257) “전쟁 통에 돌아가시기는 했어요, 어디서 돌아가셨는지는 모르지만, 폐광에서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참고인 이○○ 진술조서, 2009.12.5.)

258) 희생자들의 제적부를 확인한 결과 사망일자가 제대로 기록된 경우가 드물었는데, 이는 대부분 제때 사망 신고를 못하고 몇 년이 지난 후 사망신고를 하면서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임의의 날짜로 신고하면서 발생한 결과로 판단된다. 한편 추후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사망일자가 아닌 제사날짜를 기준으로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6명도 진실규명이 불가능하였다.

진실규명된 희생자의 신원과 판단 근거는 <표 2>·<표 3>, 진실규명불능자 명단은 <표 4>와 같다.

〈표 2〉 희생자 신원 및 판단 근거(신청)

연 번	사건 번호	진실규명대상자					판단 근거				결과
		성명 (한자)	성별	당시 나이	사망월일	사망장소	목격자 진술	제3자 전문	사신 수습	기타	
임실군											
1	228	박훈 (朴煥)	남	30	1948.12.	임실경찰서	×	김○○ 진○○	×		확인
2	269	박세열 (朴世烈)	남	36	1948.12.	임실경찰서	×	김○○ 이기형	×		확인
3	7700	김막동 (金莫同)	남	29	1950.12.31.	신덕면 월성리	김양근	하명호	○		확인
4		김해성	남	20대	1950.12.31.	신덕면 월성리	김양근	하명호	○		확인
5		이수복	남	불상	1950.12.31.	운암면 못지	×	김양근 하명호	○		확인
6		하태학 (河泰鶴)	남	22	1950.11.~12.	신덕면 율치재	×	조옥단 하명호	×	대공전산화자료	확인
7		홍범순 (洪範淳)	남	61	1950.12.31.	운암면 못지	×	김양근 하명호	○	제적부	확인
8		홍영표 (洪永杓)	남	32	1951.01.23	신덕면 빈채재	×	조옥단	○	대공전산화자료 제적부	확인
9		홍의표 (洪義杓)	남	28	1951.03.30.	임실경찰서	×	하명호 김성남	×		확인
10		황소봉 (黃小鳳)	남	43	1950.12.31.	운암면 못지	×	김양근 하명호	○		확인
11		황중규 (黃中奎)	남	30	1950.12.31.	운암면 못지	×	김양근 하명호	○		확인
12		황현규 (黃顯奎)	남	25	1950.12.31.	운암면 못지	×	김양근 하명호	○		확인
13		김종만 (金鍾萬)	남	31	1951.	전주교도소	×	김성남	×		추정
14		최창실	남	20대	1951.03.30.	임실경찰서	×	하명호	×		추정
15	8079	구복순 (具福順)	여	32	1951.03.18.	운암면 학암리	임방규	박순애	○		확인
16	8760	박완식 (朴完植)	남	24	1950.12.07.	청웅면 청웅지서	×	박연식 허장	○	대공전산화자료	확인
17	8864	정씨 (鄭氏)	여	79	1951.04.24	쌍치면 옥산리	○	김용철	○		확인
18	9032	최재의 (崔在儀)	남	38	1950.11.07.	청웅면 향교리	최경남	허장	○	대공전산화자료	확인

## 제 4 권

연 번	사건 번호	진실규명대상자					판단 근거				결과
		성명 (한자)	성별	당시 나이	사망월일	사망장소	목격자 진술	제3자 전문	사신 수습	기타	
19	10008	곽동섭 (郭棟燮)	남	45	1951.05.01.	임실읍 오정리	×	배창원 손홍양	○		확인
20	10009	김학식 (金學植)	남	45	1951.05.01.	임실읍 오정리	×	전경용 김영철	○	제적부	확인
21	10010	김수곤 (金壽坤)	남	18	1951.03.20.	성수면 왕방리	×	서○○	○	제적부	확인
22		김용희 (金鏞希)	남	51	1951.03.20.	성수면 왕방리	×	이기만	○	6·25사변 피살 자명부	확인
23		김점동 (金占同)	남	55	1951.03.20.	성수면 왕방리	×	서○○	○	제적부	확인
24		노종남 (魯鍾南)	남	33	1951.03.20.	성수면 왕방리	×	노지홍 송주옥	×		확인
25		노종선 (魯鍾善)	남	18	1951.03.20.	성수면 왕방리	×	노지홍 송주옥	×		확인
26		노종완 (魯鍾完)	남	30	1951.03.20.	성수면 왕방리	×	노지홍 송주옥	×		확인
27		서오복 (徐五福)	여	29	1951.03.20.	성수면 왕방리	×	이옥용	○	제적부	확인
28		송달섭 (宋達燮)	남	30	1951.03.20.	성수면 왕방리	송만섭	송병섭 송주옥	○	대공전산화자료	확인
29		송주동 (宋柱東)	남	35	1951.03.20.	성수면 왕방리	×	노향순 송이섭	○	대공전산화자료	확인
30		송화섭 (宋化燮)	남	31	1951.03.20.	성수면 왕방리	송만섭	정숙자 송주옥	○	대공전산화자료 제적부	확인
31		심익만 (沈益萬)	남	24	1951.03.20.	성수면 왕방리	×	이옥용	○	대공전산화자료 제적부	확인
32		심진문 (沈鎭文)	남	26	1951.03.20.	성수면 왕방리	×	진○○ 정문조	○	제적부	확인
33		이기태	남	30대	1951.03.20.	성수면 왕방리	×	임방규 이강영	○		확인
34		이존갑 (李存甲)	남	27	1951.03.20.	성수면 왕방리	×	노향순	○	대공전산화자료	확인
35		정인학 (鄭寅學)	남	31	1951.03.20.	성수면 왕방리	×	김종열 정문조	○	대공전산화자료	확인
36		최동우 (崔東雨)	남	29	1951.03.20.	성수면 왕방리	×	정인해 정문조	○	대공전산화자료	확인
37		최순형 (崔順亨)	남	26	1951.03.20.	성수면 왕방리	×	송이섭 김종열	○	대공전산화자료 제적부	확인
38		최재섭 (崔在燮)	남	24	1951.03.20.	성수면 왕방리	×	정인해 정문조	○	대공전산화자료	확인
39		태종섭 (太鍾燮)	남	27	1951.03.20.	성수면 왕방리	×	이기만	○	대공전산화자료 제적부	확인
40		한영태 (韓永泰)	남	23	1951.03.20.	성수면 왕방리	×	송이섭 김종열	○	대공전산화자료	확인

##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1)

연 번	사건 번호	진실규명대상자					판단 근거				결과
		성명 (한자)	성별	당시 나이	사망월일	사망장소	목격자 진술	제3자 전문	사신 수습	기타	
41	10010	류갑열	남	20대	1951.03.20.	성수면 왕방리	×	송이섭	×		추정
42		송상섭	남	30대	1951.03.20.	성수면 왕방리	×	이금단	×		추정
43		송재섭	남	30대	1951.03.20.	성수면 왕방리	×	이금단	×		추정
44	10011	백점자 (白点子)	여	4	1951.04.07.	청웅면 청웅지서	×	이○○ 전상하	○		확인
45		이영자 (李英子)	여	23	1951.04.07.	청웅면 청웅지서	×	이○○ 전상하	○	대공전산화자료	확인
46		백길동 (白吉同)	남	21	1948.12.25.	임실경찰서	×	이○○ 전상하	×		추정 259)
47	10012	전상옥 (全相玉)	남	39	1948.12.25.	임실경찰서	×	박만진 전재영	×		추정
48	10014	전용순 (全龍淳)	남	36	1948.12.25.	임실경찰서	×	박만진 전재영	×		추정
49	10017	김정목 (金正穆)	남	32	1951.04.27.	임실경찰서	×	박준희 배양주	×		추정
50	10022	박완 (朴堧)	남	16	1951.03.14.	남산리 폐금광	진○○	전상하	×		확인
51	10179 260)	전태순 (全兌淳)	남	45	1951.03.27.	강진면 회진리	×	이○○ 전상하	×		확인
52		전상수 (全相守)	남	25	1951.03.14.	남산리 폐금광	×	이○○ 전상하	○		확인
53		전정애 (全貞愛)	여	21	1951.03.27.	강진면 회진리	×	이○○ 전상하	×		확인
54		전상구 (全相玖)	남	18	1951.03.14.	남산리 폐금광	×	이○○ 전상하	○		확인
55		전상옥 (全相沃)	남	15	1951.03.14.	남산리 폐금광	×	이○○ 전상하	○		확인
56	10180	정재옥 (鄭在玉)	남	28	1951.03.27.	강진면 회진리	×	전상하	×		추정
57	10181	전창순 (全彰淳)	남	40	1950~1953	불상	×	한○○ 권봉조	×	대공전산화자료	확인
58	10182	전상우 (全相佑)	남	37	1949.03.~04.	삼계면 오지리	전상목	전상하	○		확인
59		전상현 (全相鉉)	남	33	1948.12.25.	임실 경찰서	×	전규열 전재영	×		추정
60	10183	박홍철 (朴泓喆)	남	36	1951.03.14.	남산리 폐금광	×	양병옥	×	대공전산화자료 제적부	확인
61		박홍복 (朴泓福)	남	33	1951.03.14.	남산리 폐금광	박홍길	양병옥	○	제적부	확인

## 제 4 권

연 번	사건 번호	진실규명대상자					판단 근거				결과
		성명 (한자)	성별	당시 나이	사망월일	사망장소	목격자 진술	제3자 전문	사신 수습	기타	
62	10183	이점성 (李占性)	여	20	1951.03.14.	남산리 폐금광	박홍길	양병옥	○	제적부	확인
63		박홍순 (朴泓順)	여	26	1951.03.27.	강진면 회진리	박순남	양병옥	×	제적부	확인
64		박윤식 (朴閔植)	남	5	1951.03.14.	남산리 폐금광	박홍길	양병옥	○	제적부	확인
총계			64명(확인 53명, 추정 11명)								

〈표 3〉 희생자 신원 및 판단 근거(미신청)

연 번	관련 사건 번호	진실규명대상자					판단 근거				결과
		성명 (한자)	성별	당시 나이	사망월일	사망장소	목격자 진술	제3자 전문	사신 수습	기타	
임실군											
1	9032	박영술 처 (장수댁)	여	불상	1950.11.07.	청운면 향교리	×	최경남 허장	○		확인
2	10008	신창록 (申昌祿)	남	26	1951.05.01.	임실읍 오정리	×	배창원 손홍양	○	제적부	확인
3	10009	이막동	남	20대	1951.05.01.	임실읍 오정리	×	배창원 손홍양	○		확인
4	10011 10012 10014 10182	김경연	남	20대	1948.12.25.	임실경찰서	×	이○○ 전상하	×		추정
5		김기생	남	20대	1948.12.25.	임실 경찰서	×	박만진	×		추정
6		박병만	남	20대	1948.12.25.	임실경찰서	×	박만진	×		추정
7		박병문 (朴炳文)	남	48	1948.12.25.	임실경찰서	×	전상하	×		추정
8		박상옥	남	불상	1948.03.~04.	임실경찰서	×	전규열 전상묵	×		추정
9		박용석 (朴龍碩)	남	21	1948.12.25.	임실경찰서	×	전상하	×		추정
10		이광진 (李光鎭)	남	31	1948.12.25.	임실경찰서	×	이○○ 전상하	×		추정
11		이기성	남	30대	1948.12.25.	임실경찰서	×	박만진 전재영	×		추정

259) 연번 47(백길동), 48(전상옥), 49(전용순), 50(김정목), 64(전상현), 95(김경연), 104(박상옥), 110(이광진), 111(이기성), 115(임병옥), 117(전상채), 118(전상표), 120(전판철)은 모두 임실경찰서로 연행된 후 소식이 끊어져 경찰에게 희생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음.

260) 전태순과 전정애는 나머지 가족과 함께 폐금광에 피신했다가 생존하여 강진면 갈담리로 끌려갔는데, 당시 갈담리로 끌려간 사람들은 모두 회진리 멧골에서 총살되었기 때문에 희생 확인으로 판단하였음.

##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1)

연번	관련 사건 번호	진실규명대상자					판단 근거				결과
		성명 (한자)	성별	당시 나이	사망월일	사망장소	목격자 진술	제3자 전문	시신 수습	기타	
12	10011 10012 10014 10182	임병옥 (林炳玉)	남	34	1948.12.25.	임실경찰서	×	이○○ 전상하	×		추정
13		전상백	남	20대	1948.12.25.	임실경찰서	×	박만진	×		추정
14		전상채	남	40대	1948.12.25.	임실경찰서	×	박만진 전재영	×		추정
15		전상표	남	20대	1948.12.25.	임실경찰서	×	박만진 전재영	×		추정
16		전판상	남	불상	1948.03.~04.	임실경찰서	×	전규열	○		추정
17		전판철	남	20대	1948.12.25.	임실경찰서	×	박만진 전재영	×		추정
18	10022 10179 10180 10183	고현구	남	50대	1951.03.14.	남산리 폐금광	×	한○○ 정인홍	○		확인
19		김기획	남	불상	1951.03.14.	남산리 폐금광	×	박만진	×		추정
20		김사일	남	불상	1951.03.14.	남산리 폐금광	×	홍○○ 전상하	×		확인
21		김사일 처	여	불상	1951.03.14.	남산리 폐금광	×	홍○○ 전상하	×		확인
22		김철수 (金哲洙)	남	29	1951.03.14.	남산리 폐금광	×	홍○○ 전상하	×	대공전산화자료	확인
23		김철수 처	여	불상	1951.03.14.	남산리 폐금광	×	홍○○ 전상하	×		확인
24		김학연 (金學淵)	남	39	1951.03.14.	남산리 폐금광	×	×	×	대공전산화자료	추정
25		김한	남	불상	1951.03.14.	남산리 폐금광	×	박만진	×		추정
26		김형술	남	불상	1951.03.27.	강진면 회진리	×	정진열	×		추정
27		노병기	남	불상	1951.03.14.	남산리 폐금광	×	이○○	×	6·25양민학살 진상 실태조사 보 고서	추정
28		박경식 (朴庚植)	남	39	1951.03.14.	남산리 폐금광	×	박연식 허장	○	대공전산화자료	확인
29		박동순 (朴東淳)	남	25	1951.03.14.	남산리 폐금광	박순남	한○○	○		확인
30		박동순 처(전씨)	여	20대	1951.03.14.	남산리 폐금광	박순남	한○○	○		확인
31		박순기	남	18	1951.03.14.	남산리 폐금광	×	박탁	×		추정
32		박신용 모친	여	50대	1951.03.14.	남산리 폐금광	×	양병옥	×		추정
33		박용기 (朴龍基)	남	25	1951.03.14.	남산리 폐금광	×	전상하	×	대공전산화자료 제적부	확인

## 제 4 권

연 번	관련 사건 번호	진실규명대상자					판단 근거				결과
		성명 (한자)	성별	당시 나이	사망월일	사망장소	목격자 진술	제3자 전문	시신 수습	기타	
34	10022 10179 10180 10183	박인정 (朴仁正)	여	20	1951.03.14.	남산리 폐금광	×	이○○	×		추정
35		박종철	남	20대	1951.03.14.	남산리 폐금광	×	양병옥	×		추정
36		박창갑 (朴昌甲)	남	51	1951.03.14.	남산리 폐금광	×	이○○	×	대공전산화자료	확인
37		송태순	남	30대	1951.03.14.	남산리 폐금광	×	한○○ 정인홍	×	대공전산화자료	확인
38		이명근	남	20대	1951.03.14.	남산리 폐금광	×	최경남	×		추정
39		이봉화 (李鳳嬋)	여	57	1951.03.14.	남산리 폐금광	박순남	한○○	○		확인
40		이석근	남	40대	1951.03.14.	남산리 폐금광	×	최경남	○		확인
41		이진실 (李鎭實)	남	30	1951.03.14.	남산리 폐금광	×	최경남	○	대공전산화자료	확인
42		이판남	남	불상	1951.03.14.	남산리 폐금광	×	이○○	×		추정
43		임막동	남	불상	1951.03.14.	남산리 폐금광	×	이○○	×	6·25양민학살 진상 실태조사 보 고서	추정
44		전상룡 (全相龍)	남	23	1951.03.14.	남산리 폐금광	×	전상하	×	대공전산화자료	확인
45		정원모 (鄭元謨)	남	18	1951.03.14.	남산리 폐금광	박홍길	양병옥	○	대공전산화자료	확인
46		정인묵	남	불상	1951.03.14.	남산리 폐금광	×	이○○	×	6·25양민학살 진상 실태조사 보 고서	추정
47		정인철 (鄭寅哲)	남	50	1951.03.14.	남산리 폐금광	박홍길	양병옥	○		확인
48		정인환	남	30대	1951.03.14.	남산리 폐금광	×	한○○ 정인홍	×		확인
49		최정남 (崔貞男)	남	17	1951.03.14.	남산리 폐금광	×	전상하	×		확인
50		최회구 (崔回狗)	남	39	1951.03.14.	남산리 폐금광	최원주	전상하	○	제적부	확인
51		한명수 (韓明洙)	남	36	1951.03.14.	남산리 폐금광	박홍길	×	○	대공전산화자료	확인
52		허남영	남	20대	1951.03.27.	강진면 회진리	한○○	전상하	×		확인
총계			52명(확인 25명, 추정 27명)								

〈표 4〉 진실규명불능자 명단

연 번	사건 번호	진실규명대상자					판단 근거				결과
		성명 (한자)	성별	당시 나이	사망월일	사망장소	목격자 진술	제3자 전문	사신 수습	기타	
순창군											
1	582	박창휴 (朴昌休)	남	21	1949.10.	팔덕면 덕천리	×	×	○		불능
2	4115	양관영 (楊寬泳)	남	28	1949.10.	팔덕면 덕천리	×	×	○		불능
3	7930	이씨 (李氏)	여	81	1951.08.13.	구림면 안정리	×	×	○		불능
소계			3명								
임실군											
1	7700(1)	엄수동	남	20대	1950.11.	신덕면 월성리	×	×	×		불능
2		홍정표 (洪正杓)	남	22	불상	불상	×	×	×		불능
3	10023	정인택 (鄭寅宅)	남	20	1950~1953	불상	×	×	×		불능
4		정학석 (鄭學錫)	남	70	1951~1953	불상	×	×	×		불능
5	10181(1)	전기순 (全起淳)	남	18	1950~1953	불상	×	×	×		불능
6		전상순 (全庠淳)	남	32	1950~1953	불상	×	×	×		불능
소계			6명								
총계			9명								

## 2) 희생자의 특징

이 사건의 희생자 116명 중 여성은 15명뿐이었고 나머지 101명은 남성이었다. 또 연령 별로는 정확한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14명을 제외하고 83명이 20~40대의 청장년이었고 19세 이하는 10명, 50세 이상은 9명뿐이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동일한 사건으로 희생된 다수의 민간인들이 있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있었고,<sup>261)</sup> 또 전쟁 당시에 사망하였으나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않아 제외

261) 특히 청웅면 남산리 폐금광 사건의 경우 정확한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로 사망한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참고인 정진호 진술조서, 2009.12.6).

된 사건들도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아, 상술한 희생자들의 성별·연령별 특징이 이 지역 희생자들을 대표하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나. 가해주체

이 사건의 가해자는 국군 제11사단 제13연대와 제11사단에 배속된 제2경비대대, 또 국군 제8사단 수색대대 그리고 지역 경찰서 소속의 경찰과 경찰의 지휘·감독 아래 있던 각 읍면의 향토방위대 및 치안대였다.

특히 임실군의 경우 국군 제11사단 제13연대가 1950년 10~11월 사이에 전주에 연대본부를 설치하고 초기에는 예하의 제2대대를 임실에 주둔시켜 토벌작전을 수행했고, 1951년 3월에는 제1대대를 임실에 주둔시켰다.

또 제2경비대대는 1951년 3월 3일 제11사단에 배속되어 동월 15일 임실에 진주하고 19일부터 27일까지 성수면에서 토벌작전을 벌였는데, 성수면 왕방리 사건의 경우 제2경비대대가 직접적인 가해자로 판단된다.

그리고 국군 제8사단의 경우 1951년 4월 초 제11사단과 임무를 교대하는데, 그중 수색대대가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임실에 주둔하며 임실과 순창 그리고 정읍 등지에서 작전을 수행하였다.

또한 국군과 함께 각 지역의 경찰도 토벌작전이나 부역자 색출에 참여하였다. 특히 임실군 신덕면 월성리 사건이나 청웅면 남산리 폐금광 사건의 경우 신덕지서와 청웅지서 및 강진지서 경찰 그리고 향토방위대의 역할이 지대하였다.

이상과 같이 군경이 함께 이 지역에서 작전을 실시한 사실과 그에 따른 민간인 희생사건이 발생한 사실에 근거하면, 이 사건의 1차적 책임은 이 지역에서 토벌작전을 수행한 부대의 지휘관이었던 국군 제11사단장 및 제8사단장, 그리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귀속된다고 판단된다.

### 다. 가해의 위법성 여부

이 사건은 빨치산 토벌을 이유로 군경이 작전을 수행하던 중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거나 혹은 좌익세력 및 부역자를 수배·검거하여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해한 사건으로, 비록 사건발생 당사가 좌우익 간 대립이 극심한 시기였고 또 전시계엄하(下)였으므로 국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더라도 국민의 권리 제한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sup>262)</sup>을 담고 있는 『대한민국헌법』(1948년)을 비롯한 국내법



령, 미군정 법령<sup>263)</sup> 등이 발효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을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빼앗을 수 있는 법적 공백상태는 아니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희생자들 중에는 좌익과 전혀 관련 없는 ‘무고한 민간인’도 있었고, 또 일부는 좌익활동에 가담한 가족을 둔 사람도 있었다. 비록 그들이 사건 당시 작전지역에 거주하여 빨치산에게 동조했다는 혐의가 있었더라도, 법적 절차 없이 민간인을 살해한 행위<sup>264)</sup>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 원칙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불법이다.

설령 좌익활동을 하고 적에게 도움을 준 부역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에는 이미 「국방경비법」이나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등을 적용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거쳐 형벌이 집행되도록 하는 실체적·절차적 규정이 있었으나 이 사건의 희생자들에게는 이런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당시가 비록 좌우익의 대립이 극심한 시기였고 또 전시 계엄 상태였다 하더라도, 국가기관인 군경이 민간인을 적법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불법 명령을 수행한 부대원과 경찰 및 우익청년들은 물론이고 이런 행위를 명령한 부대 지휘관 및 임실경찰서장에게도 있으며, 나아가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국가에게도 귀속된다.

### Ⅲ. 결론 및 권고사항

#### 1. 결론

가. 진실화해위원회는 1948년 12월부터 1949년 3월 사이 그리고 한국전쟁 시기인

262) 「대한민국헌법」(1948년) 제28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63)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령으로는 「조선인민의 권리에 관한 포고」로서, 미군정청이 불법적으로 인권유린을 막고자 1948년 4월 5일 군정부령으로 제정하였다.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제4조 법에 적당한 규정과 법이 요구하는 수속에 의하지 않고는 생명 자유 재산을 빼앗기지 않는다.
- 제7조 범죄로 인하여 기소된 자는 불합리한 지체가 없이 재판을 받을 것이며 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석될 권리가 있다. 잔혹하고 비상한 형벌은 이를 가하지 못하며 종류를 막론하고 고문이나 강박에 의하여 유도된 고백은 범인의 재판이나 그밖에 어떠한 법적 수속에도 이를 사용치 못한다.

264) 국내법적으로 보면 한국전쟁 기간 중 부역혐의나 적과 내통한 혐의만 있는 주민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경찰 지휘관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여 불법성을 확인해준 판례가 있다(대법원 1952. 형상 제115호).

1950년 11월부터 1951년 5월 사이에 임실군 주민 박훈 외 115명이 빨치산 토벌작전과 좌익 및 부역혐의자 색출·검거 과정에서 국군과 경찰에게 좌익 혹은 부역혐의 등으로 연행된 후 행방불명되거나 사살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또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주민 박창휴 외 2명과 임실군 신덕면 월성리 주민 엄수동 외 5명이 희생되었다는 사건을 조사하였으나 진실규명이 불가능하였다.

**나.** 조사결과 희생자로 추정되거나 확인된 사람은 모두 116명인데 이 중 희생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78명이고, 추정되는 사람은 38명이다.

신청사건 중에서 희생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순창군 1명, 임실군의 52명으로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씨(鄭氏·다-8864호), 박훈(朴堧·다-228호), 박세열(朴世烈·다-269호), 김막동(金莫同), 김해성, 이수복, 하태학(河泰鶴), 홍범순(洪範淳), 홍영표(洪永杓), 홍의표(洪義杓), 황소봉(黃小鳳), 황중규(黃中奎), 황현규(黃顯奎·이상 다-7700호), 구복순(金福順·다-8709호), 박완식(朴完植·다-8760호), 최재의(崔在儀·다-9032호), 곽동섭(郭棟燮·다-10008호), 김학식(金學植·다-10009호), 김수곤(金壽坤), 김용희(金鏞希), 김점동(金占同), 노종남(魯鍾南), 노종선(魯鍾善), 노종완(魯鍾完), 서오복(徐五福), 송달섭(宋達燮), 송주동(宋柱東), 송화섭(宋化燮), 심익만(沈益萬), 심진문(沈鎭文), 이기태, 이존갑(李存甲), 정인학(鄭寅學), 최동우(崔東雨), 최순형(崔順亨), 최재섭(崔在燮), 태중섭(太鍾燮), 한영태(韓永泰·이상 다-10010호), 백점자(白点子), 이영자(李英子·이상 다-10011호), 박완(朴堧·다-10022호), 전태순(全兌淳), 전상수(全相守), 전정애(全貞愛), 전상구(全相玖), 전상옥(全相沃·이상 다-10179호), 전창순(全彰淳·다-10181호), 전상우(全相佑·다-10182호), 박홍철(朴泓喆), 박홍복(朴泓福), 이점성(李占性), 박홍순(朴泓順), 박윤식(朴閏植·이상 다-10183호) 등이다.

신청사건 중에서 추정 희생자는 임실군의 11명으로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종만(金鍾萬), 최창실(이상 다-7700호), 류갑열, 송상섭, 송재섭(이상 다-10010호), 백길동(白吉同·다-10011호), 전상옥(全相玉·다-10012호), 전용순(全龍淳·다-10014호), 김정목(金正穆·다-10017호), 정재옥(鄭在玉·다-10180호), 전상현(全相鉉·다-10182호) 등이다.

신청하지 않았으나 조사결과 희생자로 확인된 사람은 임실군의 25명으로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현구, 김사일, 김사일의 처, 김철수(金哲洙), 김철수의 처, 박경식(朴庚植), 박동순(朴東淳), 박동순의 처(전씨), 박용기(朴龍基), 박창갑(朴昌甲), 송태순, 이봉화(李鳳嬋), 이석근, 이진실(李鎭實), 전상룡(全相龍), 정원모(鄭元謨), 정인철(鄭寅哲), 정인환, 최

정남(崔貞男), 최회구(崔回狗), 한명수(韓明洙 · 이상 남산리 폐금광 사건), 박영술의 처(장수택 · 청웅면 향교리 사건), 신창록(申昌祿), 이막동(이상 임실읍 오정리 사건), 허남영(강진면 회진리 사건) 등이다.

신청하지 않았으나 조사결과 희생자로 추정되는 사람도 임실군의 27명으로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기획, 김학연(金學淵), 김한, 노병기, 박순기, 박신용의 모친, 박인정(朴仁正), 박종철, 이명근, 이관남, 임막동, 정인묵(이상 남산리 폐금광 사건), 김형술(강진면 회진리 사건), 김경연, 김기생, 박병만, 박병문(朴炳文), 박상옥, 박용석(朴龍碩), 이광진(李光鎭), 이기성, 임병옥(林炳玉), 전상백, 전상채, 전상표, 전판상, 전판철(이상 청웅면 임실경찰서 사건) 등이다.

**다.** 조사결과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사람은 순창군의 박창휴(朴昌休 · 다-582호), 양관영(楊寬泳 · 다-1922호), 이씨(李氏 · 다-7930호) 등과 임실군의 엄수동, 홍정표(洪正杓 · 이상 다-7700(1)호), 정인택(鄭寅宅), 정학석(鄭學錫 · 이상 다-10023호), 전기순(全起淳), 전상순(全庠淳 · 이상 다-10181(1)호) 등 총 9명이다.

**라.** 이 사건은 국군 제11사단 제13연대 1·2대대와 제2경비대대, 제8사단 수색대대 그리고 지역 경찰서 소속의 경찰과 향토방위대 · 치안대가 빨치산 토벌작전과 좌익 및 부역혐의자 색출 · 검거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을 ‘빨치산’ 혹은 ‘부역자’ 등으로 의심하여 적법절차 없이 살해한 사건이다.

## 2. 권고사항

이 사건에 대하여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국가가 행할 화해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가. 국가의 사과

국가는 과거 국가권력이었던 국군과 경찰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살해한 것에 대하여 희생자의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필요가 있다.

### 나.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위령비 건립 및 위령제 봉행 등 위령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다.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 정정

사건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희생자 대부분의 사망일자가 오기되어 있었다. 유족들이 원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기록에 대한 정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법·제도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라. 역사기록의 수정 및 등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군지(郡誌)』 등 공공기록물에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보완하거나 추가하여 진실규명 내용이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마. 평화·인권교육의 강화

국가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쟁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관련 국내법과 국제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첨부자료]

〈별표 1〉 신청인 주요 진술내용

연 번	사건번호	신청인 (출생년도)	진실규명 대상자	관계	진술일 진술 장소	목적 전문	진술 형태	주요 진술
임실군								
1	228	박탁 (1944)	박훈	부	2007.07.26. 임실군청 2009.12.01. 임실을 성미당식당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친은 사진사로 죄악과 관련이 없는 분이었는데, 여순사건 무렵 경찰에게 잡혀갔다가 그해 12월에 트럭에 실려 어딘가로 끌려간 후 소식이 끊어졌다고 함.</li> </ul>
2	269	박봉자 (1940)	박세열	부	2008.12.29. 위원회 2009.12.24 위원회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친이 구금되어 있던 1948년 음력 9월 24일 동생의 출산 소식을 전하러 임실경찰서에 갔고, 함께 구금되었던 박훈도 목격하였음. 그 후 트럭에 끌려가 행방불명된 소식은 모친과 조모에게 들었음.</li> </ul>
3	7700 7700(1)	김성남 (1964)	하태학 외 13명	주민	2008.02.21. 신청인 사무실 2009.12.16. 신청인 사무실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친(김종옥, 사건번호 라-170)의 부역조작의혹 사건 조사 중 고향 신덕면 월성리에서 발생한 치안대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고, 유족들을 대신하여 신청하였음.</li> </ul>
4	8079	박봉자 (1940)	구복순	모	2008.01.13. 위원회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친은 여맹원으로 활동하다 수복 무렵 입산하였고 소식을 모르다가 1990년 대가 되어 모친과 함께 행동한 박순애를 통해 모친이 운암면 학암리에서 군경에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음.</li> </ul>
5	8760	박병호 (1946)	박완식	부	2008.02.26. 위원회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백부가 죄악활동을 했는데, 부친이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청웅지서 경찰에게 끌려가 지서 인근에서 총살되었다는 말을 들었음.</li> </ul>
6	9032	최연남 (1951)	최재의	부	2007.07.24. 임실군청 2009.12.10. 자택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실읍에서 청웅면으로 넘어오던 국군이 마을 여자 한 분과 부친을 총살했고, 후에 다시 찾아온 그 군인은 자신이 총을 쏘다는 말을 했다고 함.</li> </ul>
7	10008	곽준상 (1950)	곽동섭	부	2007.07.25. 임실군청 2009.12.02. 임실 이도리 청수장여관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포된 빨치산이 군인을 따라 마을에 와서 부역자를 색출했는데, 부친도 끌려가 임실을 오정리에서 총살당했다고 함.</li> <li>시신을 수습해 온 모친의 말씀에 따르면 복부에 총상을 입었다고 함.</li> </ul>
8	10009	김용주 (1945)	김학식	부	2007.07.25. 임실군청 2008.02.22. 자택 2009.12.03. 임실 이도리 청수장여관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정리에 거주하던 지인이 부친의 사망 소식을 전해주어 가족이 현장에 가서 시신을 수습하여 왔다고 함.</li> <li>1951년 4~5월경 임실읍에는 8사단 군인들이 주둔하였는데, 부친 등을 총살하고 급히 임실을 떠났다고 함.</li> </ul>

## 제 4 권

연 번	사건번호	신청인 (출생년도)	진실규명 대상자	관계	진술일 진술 장소	목격 전문	진술 형태	주요 진술
9	10010	송병섭 (1943)	송주동 외 71명	부 주인	2007.07.25. 임실군청 2009.12.17. 전주 인후동 송재현탁구장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0년대 성수면에서 교직에 있으며 지역 유지들의 모임에 종무를 보았는데, 전쟁 당시 활동했던 유지들을 통해 부친 송주동을 포함한 성수면 주민 70여 명이 백골부대에게 총살당한 경위를 듣게 되었음.</li> </ul>
10	10011	백점이 (1946)	백길동 이영자 백점자	부 모 매	2007.07.24. 임실군청 2009.12.05. 청웅면사무소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모를 통해 부친이 동짓달 보름에 경찰에게 잡혀간 후 소식이 끊어졌고, 당시 마을에서 김영자의 부친, 이경희의 부친, 임정희의 부친 등도 함께 끌려갔다는 말을 들었음.</li> <li>• 모친과 동생은 전쟁 발발 이듬해 회문산으로 피난 갔다가 경찰에게 잡혀 청웅국민학교에 수용되었는데, 부친의 일로 인해 모친과 동생이 경찰에게 총살당했다고 함.</li> </ul>
11	10012	전홍열 (1938)	전상옥	부	2007.07.24. 청웅면사무소 2008.02.22. 자택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친과 당숙 전상권, 주민 전용순 등이 1948년 여순사건 무렵 경찰에 연행되어 임실경찰서에 구금되었고, 12월 25일 트럭에 실려 나간 후 소식이 끊어졌음.</li> <li>• 경찰서의 소식은 당숙 전상권이 풀려 나와 말해주었음.</li> </ul>
12	10014	전상윤 (1942)	전용순	부	2009.09.22. 청웅면 다방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친 포함 7~8명이 함께 잡혀갔는데, 집안 형님이 풀려나와 나머지 사람들이 트럭에 실려 갔다는 말을 해주었음. 제사는 모두 음력 11월 24일임.</li> </ul>
13	10017	김규식 (1944)	김정목	부	2007.07.24. 임실군청 2009.12.15. 자택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부 김정현이 입산하자 숙부를 지수시키기 위해 부친 김정목과 모친, 숙모를 임실경찰서와 신덕지서에 구금시켰는데, 3개월 후 모친과 숙모는 석방됐으나 부친은 임실경찰서 경찰에게 총살당했다고 함.</li> </ul>
14	10022	박탁 (1944)	박완	삼촌	2009.12.01. 임실읍 성미당식당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촌은 부친(박훈)이 1948년에 당한 일 때문에 좌익활동을 하다가 수복될 무렵 입산하였고, 당시 임실군의 많은 주민들이 폐광에서 사망하여 삼촌도 폐광에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음.</li> </ul>
15	10023	박탁 (1944)	정인택 정학석	외숙부 외조부	2008.02.22. 임실읍 성미당식당 2009.12.01. 임실읍 성미당식당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숙부는 수복 무렵 입산하여 1951년 2월 중순경 폐금광에서 학살당하고, 이에 분개한 외조부가 청웅지서에서 외숙부의 일을 따지다가 경찰에게 구타당하여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함.</li> </ul>
16	10179	전상호 (1946)	전태순 전상수 전정애 전상구 전상옥	부 형 누나 형 형	2007.07.24. 청웅면사무소 2009.12.04. 청웅면사무소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님들은 폐광에서 사망하고, 부친과 누나는 강진면 회진리 밭골에서 총살당했다고 함.</li> <li>• 당숙(전인순)이 사건 후 형님들의 시신은 찾아왔으나, 부친과 누나의 시신은 못 찾았음.</li> </ul>

##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1)

연 번	사건번호	신청인 (출생년도)	진실규명 대상자	관계	진술일 진술 장소	목격 전문	진술 형태	주요 진술
17	10180	정일모 (1947)	정재옥	부	2007.07.24. 청웅면사무소 2009.12.02. 자택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친은 부친이 폐광에서 살아나와 강 진지서로 끌려간 것까지만 알고 계셨음. 멧골에서 총살당한 내용은 최근에 알게 되었음.</li> </ul>
18	10181 10181(1)	전상하 (1931)	전창순 전상순 전기순	부 숙부 삼촌	2007.07.27. 청웅면사무소 2009.12.06. 자택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복 무렵 부친과 숙부들은 입산하였고, 본인은 의용군으로 낙동강까지 갔다가 빨치산활동을 하였음. 가족들을 찾기 위해 폐광을 찾아봤으나 찾지 못했음. 후에 세 분이 폐광에서 돌아가셨다는 소문도 있었고, 경찰에게 잡혔다는 소문도 있었음.</li> </ul>
19	10182	전기열 (1944)	전상우 전상현	부 숙부	2009.09.22. 자택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란군의 심부름을 했다고 누군가 경찰에 밀고를 하여 숙부가 먼저 경찰에 잡혀갔고, 후에 부친도 잡혀갔는데, 숙부는 소식이 끊어졌고, 부친은 삼계면의 친척이 사망 소식을 전해주어 수습할 수 있었음.</li> </ul>
20	10183	박홍길 (1931)	박홍철 박홍복 이점성 박홍순 박윤식	형 형수 누나 조카	2007.09.11. 위원회 2009.12.30. 위원회	목격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광 사건이 있고 난 후 내부의 6호 굴에서 둘째형(박홍복)과 조카의 시신을 직접 수습했고, 형수의 시신은 강진면 쪽 입구에서 수습하였음. 형수만 총상이 있었음.</li> <li>• 큰형의 시신은 못 찾았으나 생존자(한준수, 정일모)를 통해 함께 굴에 있었다는 말을 들었고, 누나는 강진면으로 함께 끌려간 박순남과 청웅지서 의경 양재일을 통해 소식을 들었음.</li> </ul>
순창군								
1	582	박창윤 (1938)	박창휴	형	2008.03.21. 불광2동사무소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형이 방학이라 집에 와 있다가 시위에 참여한 사생범이라는 이유로 경찰서에 연행된 후 팔덕면 덕천리 히어터재에서 총살되었다고 함.</li> </ul>
2	4115	양병호 (1935)	양관영	숙부	2008.03.27. 순창군청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부 양유영을 통해 그 형 양관영이 1949년 적성지서 경찰에게 끌려가 총살당했다는 말을 들었음.</li> </ul>
3	7930	박경자 (1921)	이씨	백모	2007.10.30. 자택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일사 주지였던 백모 이씨가 1951년 음력 7월 11일 국군의 방화로 사찰과 함께 소사했다는 말을 들었음.</li> </ul>
4	8864	김희곤 (1937)	정씨	조모	2008.04.03. 쌍치면사무소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50년 4월 24일 오전 국군의 토벌작전을 피해 피신했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니 거동이 불편했던 조모가 집에서 총탄에 맞아 사망하여 있었음.</li> </ul>

## 〈별표 2〉 피해관련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연 번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
			이름 (성별, 출생년도)	관계	목격 전문	진술일 · 장소 (진술형태)	
임실군							
1	228 269	박훈 박세열	박순애 (여, 1930)	동생 주인	전문	2010.02.24. 자택 (진술녹취)	●오빠 박훈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경찰에게 잡혀 임실경찰서로 연행되었고, 후에 박세열씨 등과 함께 어딘가로 끌려간 후 소식이 끊어졌음. ●오빠는 사진사였고, 박세열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이 농사지었던 것으로 기억함.
2			이기형 (남, 1917)	무	전문	2008.12.29. 위원회 (진술조서)	●해방 후 건준에서 활동했던 독립투사들을 경찰은 자주 좌익세력으로 몰아 예비검속하였음. 호남의 유지들과 지식인들은 다수가 건준에서 활동했음.
3			전상하 (남, 1931)	주민	전문	2010.02.21. 자택 (진술조서)	●박훈은 숙부 전상순과 친구로 1948년 경찰의 예비검속이 심할 때 임실경찰서에 잡혀갔다가 총살당한 것으로 알고 있음.
4			진○○ (남, 1935)	주민	전문	2010.01.19. 자택 (진술조서)	●박훈은 여순반란사건 당시 좌익활동을 했고 그 일이 발각되어 경찰이 여수에서 총살시킨 것으로 알고 있음.
5	7700	김종만 외 13명	김양근 (남, 1933)	제	전문 목격	2009.12.16. 자택 (진술조서)	●형 김종만은 인민군 점령기에 주민 백○○의 부모 살해에 관여한 혐의로 수복 후 연행되어 행방불명되었음. ●치안대원 백○○ 형제들과 하○○, 황○○ 등이 마을의 인민위원회 활동자들을 생포, 사살하였다고 함. 김막동과 김해성의 피살 장면은 직접 목격하고 시산수습에도 참여하였음.
6		홍범순 홍영표 외 12명	홍지성 (남, 1949)	손자	전문	2009.12.18. 전주 무지개다방 (진술녹취)	●조모와 모친을 통해 조부와 부친이 경찰 및 치안대에게 총살되었고, 시신을 수습했다는 말을 들었음. ●마을에서 인민위원회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다수 피살되거나 행방불명되었다는 말을 들었음.
7		홍의표 홍정표 외 12명	조옥단 (여, 1926)	형수	목격 전문	2010.01.14. 자택 (진술녹취)	●홍의표는 1950년 12월 피난 도중에 군인에게 잡혀 임실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1951년 3월 30일 트럭에 실려나간 후 소식이 끊어졌고, 홍정표는 1951년 1월 면소재지의 청년대 사무실에 출근 후 소식이 끊어졌음. ●홍영표 등 부역을 했던 주민들이 수복 후에 많이 피해를 보았다고 함.



##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1)

연 번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
			이름 (성별, 출생년도)	관계	목격 전문	진술일 · 장소 (진술형태)	
8	7700	하태학 외 13명	하명호 (남, 1933)	주인	목격 전문	2007.12.25. 신덕면사무소 (진술조서) 2009.12.02. 자택 (진술녹취) 2010.01.13. 마을회관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의표, 최창실과 함께 국군에게 잡혀 완주군 구이면, 전주시를 거쳐 임실경찰서에 이송되었다가 본인만 풀려난 후 두 명의 가족에게 소식을 전했는데, 그 가족들이 경찰서에 갔을 때는 이미 사망한 후였다고 함.</li> <li>• 황소봉 등 부역한 사람들이 옥녀봉에 파해 있다가 경찰에게 잡혀 운암 못지에서 죽었다는 말을 들었음.</li> <li>• 김종만은 부역혐의로 임실경찰서에 연행된 후 소식이 끊어졌음.</li> </ul>
9		황소봉 외 13명	황완규 (남, 1922)	제	전문	2007.10.25. 신덕면사무소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민군이 들어와 인민위원회 서기장이라는 직책을 만들어 형 황소봉에게 맡겼지만, 특별히 하는 일이나 권한은 없었고, 형은 학자로서 주위의 평판이 좋았음.</li> <li>• 인민군 점령기에는 홍영표나 하태학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었음.</li> <li>• 형의 사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음.</li> </ul>
10	8079	구복순	박순애 (여, 1930)	주인	전문	2010.01.07. 동대일산병원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복순과 함께 운암면 학암리에 피신 중 군경의 작전을 맞아 구복순은 부상을 당해 남겨지고 다른 사람들은 피신하였음.</li> <li>• 후에 사건을 목격한 학암리 주민들을 통해 구복순이 군경에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음.</li> </ul>
11			임방규 (남, 1932)	무	전문	2010.02.18. 위원회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용군으로 인민군에 입대했다가 후퇴 시 임실군 유격대에 합류하여 빨치산 활동을 하였음.</li> <li>• 임실군당, 여맹, 유격대가 삼계면 학정리에 함께 있어 구복순을 알게 되었고, 군경의 화문산 토벌작전을 피해 성수면으로 이동하던 중 운암면 학암리에서 구복순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서 시신을 확인하였음.</li> </ul>
12	8760	박완식	박연식 (남, 1938)	종제	전문	2009.12.09.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형 박경식의 부역혐의로 그 동생 박완식이 청웅지서 경찰에게 총살되었고, 부친이 시신을 수습하였음.</li> </ul>
13			최경남 (여, 1938)	주인	전문	2009.12.10.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완식은 구고리에서 이사 온 사람이었는데, 그 형 때문에 선거리로 피했다가 경찰에게 잡혀서 죽은 걸로 알고 있음.</li> </ul>
14			허장 (남, 1932)	주인	전문	2009.12.09.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경식은 선전부장을 했고, 그 일로 해서 박완식이 선거리로 피했다가 경찰에게 잡혀 총살되었다고 함. 그 동생 박완식은 경비대 시절 입대하여 전쟁 당시 전방에서 전사하였음.</li> </ul>

## 제 4 권

연 번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
			이름 (성별, 출생년도)	관계	목격 전문	진술일 · 장소 (진술형태)	
15	9032	최재의 박영술 처	박연식 (남, 1938)	무	무	2009.12.08.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50년 10월말에서 11월 초순에 11사단 이 청웅면으로 오기 시작했는데, 항상 먼저 모래재 방면에서 박격포가 구고리로 쏟아져 주민들이 겁에 질려 피난을 다녔음.</li> </ul>
16			양병옥 (남, 1931)	무	무	2009.12.08.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시 군인들이 오면 사람을 죽인다고 하여 구고리 청년들이 다들 피신을 다녔고, 본인도 인근 두복리로 피신했었음.</li> </ul>
17			최경남 (여, 1938)	딸	목격	2009.12.10.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군이 들어오자 뒷산으로 숨었는데, 총소리가 잦아들자 군인이 마을을 떠났다는 생각에 산을 내려오던 부친이 채 떠나지 않은 군인의 총탄에 맞아 사망하였음. 당일 박영술의 부인도 함께 사살당했음.</li> </ul>
18			허 장 (남, 1932)	주민	전문	2009.12.09.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실읍에서 청웅면으로 군경이 넘어올 때는 항상 모래재에서 먼저 교전이 있었음. 군경이 오면 주민들이 산으로 피신했는데, 최재의와 박영술의 부인은 군인이 이동하기 전에 내려왔다가 사살당한 것으로 알고 있음.</li> </ul>
19	10008	곽동섭 이막동 신창록	곽옥희 (여, 1939)	딸	전문	2009.12.02. 임실 이도리 청수장여관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사단 군인들이 운암면 뽕치산을 토벌하던 중 뽕치산 책임자를 생포하여, 그를 앞잡이로 데리고 다니며 마을의 부역자를 색출하였다고 함.</li> </ul>
20			배창원 (남, 1930)	주민	전문	2009.12.03. 마을회관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수한 뽕치산이 군인과 함께 마을에 와서 함께 입산했었던 신창록, 이막동, 그리고 이발사 곽동섭을 부역자로 지적하여 임실읍으로 끌고 갔음.</li> <li>임실읍 오정리에서 총살당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해 왔음.</li> </ul>
21			손홍양 (남, 1940)	주민 고종사촌	전문	2009.12.03. 마을회관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창록은 고종사촌 형으로 군인이 마을에 들어온 날 잡혀가는 모습을 직접 보았음. 당일 마을의 다른 형들은 군인을 보고는 산으로 도망쳤음.</li> </ul>
22			황성래 (남, 1935)	주민	전문	2009.12.03.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곽동섭은 이발소를 경영했는데, 인근의 뽕치산들이 이발을 요구하자 초기에 한 두 번은 이발을 해주었음.</li> </ul>
23	10009	김학식	김영식 (남, 1933)	일가	전문	2009.12.04. 마을회관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이장이었던 김학식이 잡혀갔다는 말을 그 부인을 통해 들었고, 이튿날 총살되었다는 말도 바로 마을에 퍼졌음.</li> </ul>
24			김영철 (남, 1943)	주민	전문	2009.12.13.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정리 여시골은 집 바로 뒤편으로 인민군도 후퇴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고, 군경도 사람을 많이 죽인 곳임. 광석마늘에 선산이 있는데 김용주씨 부친이 묘를 관리해주어 알고 지냈음. 부친을 통해</li> </ul>

##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1)

연 번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
			이름 (성별, 출생년도)	관계	목격 전문	진술일 · 장소 (진술형태)	
24	10009	김학식	김영철 (남, 1943)	주민	전문	2009.12.13. 자택 (진술녹취)	김용주씨 부친의 시신을 그 가족들이 오정마을 앞 냇가에서 찾아 모셨다는 말을 들었음.
25			이강암 (남, 1927)	주민	전문	2008.02.22. 신청인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석마을에서 김학식과 김남식이 끌려가고, 학암마을에서 광동섭, 막둥이(이막동), 신창오의 동생(신창목)이 끌려갔다가, 김남식은 사정하여 풀려났으나 나머지는 모두 총살되었음.</li> </ul>
26			전경용 (남, 1926)	고종사촌	전문	2009.12.04. 마을회관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수한 빨치산이 국군 앞잡이가 되어 부역자를 찾으러 왔음. 세포위원장이었던 김남식도 잡혀갔으나 중간에 풀려났고, 오히려 죄 없는 김학식이 총살되었음. 이웃 마을인 학암마을의 광동섭도 함께 잡혀간 걸로 알고 있음.</li> </ul>
27	10010	김용희 태종섭	이기만 (남, 1935)	주민	전문	2009.12.14. 마을회관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왕방리에서 살아 돌아온 설동신을 통해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음. 도인리에서 김용희와 태종섭이 죽었다고 알고 있음. 시신은 가족이 수습하였음.</li> </ul>
28		이존갑	이옥용 (남, 1943)	제	전문	2009.12.14.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이 마을 심씨 형제들을 따라 좌익활동을 하다가 자수하였는데 백골부대를 만나 문바위에서 총살되었다고 함. 시신은 가족들이 수습하였음.</li> </ul>
29		서오복 심익만	노향순 (여, 1936)	동서 시숙	전문	2009.12.14.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어머니를 통해 시숙과 큰동서가 문바위에서 사망했다는 말을 들었음. 집안은 아니지만 심정만, 심월만, 심원만 형제가 좌익활동을 했는데 심정만씨는 이북에 있었다고 함.</li> </ul>
30		심진문 이기태	이강영 (남, 1935)	주민	전문	2009.12.13.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진문과 이기태는 자수했음에도 백골부대를 만나 화를 당했음. 백골부대는 11사단의 예하 부대였다는 말을 들었음.</li> </ul>
31		노종남 노종완 노종선	노지홍 (남, 1940)	일가	전문	2007.07.25. 임실군청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척 노종남, 노종완, 노종선이 백골부대에게 왕방리 문바위에서 총살당했다는 말을 들었음.</li> </ul>
32		노종남 노종완 노종선	송주옥 (남, 1933)	주민	전문	2009.12.12.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같은 마을 주민인 노씨 댁 4형제 중 하나가 의용군에 갔다가 빨치산이 되었고, 그로 인해 나머지 3형제가 백골부대에게 총살되었음. 그 부친도 끌려가다가 중간에 다리를 다쳐 걸을 수가 없어 집으로 돌아와 살 수 있었음.</li> </ul>
33		송화섭 송달섭	송만섭 (남, 1927)	제	전문	2009.12.12. 마을회관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 송화섭이 사망한 후 문바위에 가서 형의 시신을 직접 수습하여 옴. 현장에서 주민 송달섭의 시신도 목격함.</li> </ul>

## 제 4 권

연 번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
			이름 (성별, 출생년도)	관계	목격 전문	진술일 · 장소 (진술형태)	
34	10010	송화섭 송달섭	송해섭 (남, 1938)	제	전문	2007.07.25. 임실군청 (진술조서)	• 형 송화섭이 백골부대에게 총살당했음.
35		송달섭	정숙자 (여, 1936)	제수	전문	2009.12.12. 마을회관 (진술조서)	• 시집 와서 시숙 송달섭이 군인들에게 왕방리로 끌려가 총살되었다는 말을 들었음. 시신을 모셔왔으나 후에 시아버지가 유골을 파서 화장하였음.
36		정인학 최동우 최재섭 송주동	정인해 (남, 1939)	제	전문	2009.12.10. 자택 (진술조서)	• 형과 주민 최동우, 최재섭, 송주동(송계동)이 문바위에서 사망하였다고 함. 형은 인민군 점령기에 선전부장을 맡았다가 수복 후 자수하였음.
37		심진문 이기태	심학순 (남, 1950)	자	전문	2007.07.25. 임실군청 (진술조서) 2009.12.17. 전주덕진초교 (진술조서)	• 마을에서 부친과 이기태씨가 함께 돌아가셨음. 이기태씨는 좌익활동을 했다는 걸로 들었으나, 부친은 철도 공무원으로 좌익과는 관련이 없었고, 재산을 많이 모아 그로 인해 미움을 샀다는 걸로 알고 있음.
38		태종섭	태재춘 (남, 1951)	자	전문	2007.07.25. 임실군청 (진술조서) 2009.12.17. 자택 (진술조서)	• 부친은 오수면 대령리로 피신해 있다가 본인의 출생 소식을 듣고 집에 돌아와 성수지사로 끌려가셨다고 함. 그 후 백골부대가 지사에 잡혀 있던 사람들을 왕방리 문바위에서 총살한 것으로 알고 있음. 주민 안종석씨가 시신을 모셔왔다고 함.
39		송재섭 송상섭	이금단 (여, 1931)	주민	전문	2009.12.12. 마을회관 (진술조서)	• 송재섭과 송상섭은 형제로, 월평리 수월마을에 같이 살았고 왕방리 문바위로 끌려가서 총살된 것으로 알고 있음. 백골부대가 죽였다는 말은 들었으나, 그 외에는 아는 바가 없음.
40		정인학 최동우 최재섭 한영태 최순형	김종열 (남, 1935)	주민	전문	2009.12.11. 마을회관 (진술조서)	• 왕방리의 원증이 마을, 대판이 마을에 빨치산이 많이 있었음. • 삼청리 천동마을에서는 정인학, 최동우, 최재섭이 문바위로 끌려가 죽었고, 이웃한 구곡마을에서는 한영태, 최순형이 죽었음.
41		정인학	정문조 (남, 1922)	주민	전문	2009.12.11. 자택 (진술조서)	• 백골부대의 집을 지고 성수산으로 간 일이 있고, 당시 자신들이 백골부대라고 말했던 걸 들었음. • 소식을 듣고도 가족들은 백골부대가 무서워 바로 시신을 찾지 못하다가 백골부대가 떠난 후 현장에 가서 시신을 수습하였음.
42		송주동 한영태 최순형 정인학 최동우 최재섭	송이섭 (남, 1939)	주민	전문	2009.12.11. 자택 (진술조서)	• 삼청리 구곡마을에서 한영태, 최순형이 죽었고, 천동마을에서 정인학, 최동우, 최재섭, 송주동(송계동)이 죽었음. • 형 송대섭도 1950년 12월 7일 마을에서 국군의 총탄에 맞아 사망했는데, 신청 마감시간을 하루 넘겨 접수할 수 없었음.

##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1)

연 번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
			이름 (성별, 출생년도)	관계	목격 전문	진술일 · 장소 (진술형태)	
43	10010	이기태	임방규 (남, 1932)	무	전문	2010.02.18. 위원회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수면 유격대에도 있었고 임실군 유격대에도 있었음.</li> <li>• 당시 임실에서 활동한 국군이 몇 사단인지는 모르지만 백골부대라는 말을 들었음. 포로로 잡은 군인 중에는 철모에 해골 마크를 달고 있는 사람도 있었음.</li> <li>• 성수면 왕방리 사건으로 월평리의 이기태를 포함하여 7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음.</li> </ul>
44	10011 10012 10014 10182	백길동 이영자 백점자 이광진 임성규	이○○ (남, 1934)	주민	전문	2009.12.05. 마을회관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란군들이 도와준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놓았는데, 그들이 잡히면서 마을에서 그 명단에 있던 백길동, 이광진, 임성규가 경찰에게 끌려갔음.</li> <li>• 이영자와 딸 백점자는 수복 후에 피난다니다가 수용소로 잡혀와 3~4일 후 수용소 인근 공동묘지에서 총살당했음. 시신을 수습할 때 직접 참여하였음.</li> </ul>
45		백길동 외 13명	전상하 (남, 1931)	주민	전문 목격	2009.12.06. 자택 (진술조서) 2010.02.21.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길동, 이광진, 김경연, 전홍대, 전동바우, 박병문, 박용석, 전상수, 임병옥, 전상옥, 전용순 등이 1948년 12월경 지하로 내려간 임실군당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임실경찰서로 끌려갔음.</li> <li>• 당시 남산리에서도 7~8명이 끌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전상우는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잡혀갔고, 얼마 안 되어 삼계면에서 총살됐다는 얘기를 듣고 직접 가서 시신을 수습하였음.</li> <li>• 백점이의 모친과 여동생은 수복 후에 청웅국민학교에 잡혀 있다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음.</li> </ul>
46		전상우 전상현	전상묵 (남, 1939)	주민	목격 전문	2010.02.20.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상우(일명 전상호)는 여순사건 이후 음력 1~2월경 사상문제로 임실경찰서에 끌려간 후 1개월 정도 지나 삼계면 오지리에서 총살당했는데, 오지리 화촌마을 주민들이 시신을 수습한 후 연락을 해주어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음.</li> <li>• 전상현은 전상우와 비슷한 시기에 끌려갔는데, 그 뒤 전혀 소식이 없었음.</li> </ul>
47		전상옥 외 5명	전재영 (남, 1929)	주민	전문	2010.01.20 자택 (진술조서) 2010.02.19.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익세력이 남산리에 아지트를 마련하고 있다가 발각되었고, 그 일에 연관되었다고 석두리 주민 전상옥, 전용순, 전상채, 전판철, 이기성 등이 경찰에 잡혀 임실경찰서로 끌려간 후 소식이 끊어졌음.</li> <li>• 남산리 주민 전상현도 비슷한 시기에 끌려갔는데, 전상현은 전상옥과 친밀한 관계였음.</li> </ul>

## 제 4 권

연 번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
			이름 (성별, 출생년도)	관계	목격 전문	진술일 · 장소 (진술형태)	
48	10011 10012 10014 10182	전상옥 외 6명	박만진 (남, 1922)	주민	전문	2010.02.19.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순사건 이후 좌익 세력이 산 속에 굴을 파고 살다가 경찰에게 잡혔는데, 그들을 도와준 혐의로 마을에서 전상옥, 전판철, 전상백, 전상표, 김기생, 박병만, 전용순 등도 임실경찰서로 끌려갔음.</li> </ul>
49		전상우 전상현 전판상 박상옥	전규열 (남, 1930)	주민	전문	2010.02.20.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순사건 이후 마을에서 사람들이 붙잡혀가기 시작했는데, 전상우와 전판상, 박상옥이 함께 경찰에 잡혀갔다. 전상우의 동생 전상현은 그 보다 먼저 잡혀갔는데, 다들 어떻게 되었다는 소식이 없었음.</li> <li>• 전판상은 시신을 찾아 매장했다는 말을 들었음.</li> </ul>
50		김정목	박준희 (남, 1927)	주민	전문	2009.12.15.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주민들을 통해 김정목이 경찰에게 잡혀갔다가 석방되지 못하고 총살당했다는 말을 들었음.</li> </ul>
51			배양주 (남, 1932)	주민	전문	2009.12.05.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정현은 임실 빨치산 총책임자였다는 말을 들었음. 그 때문에 김정현의 형 김정목이 임실경찰서에 잡혀갔는데,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름.</li> </ul>
52	10022 10179 10180 10183	박완	전상하 (남, 1931)	주민	전문	2009.12.06.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건 이전에 폐광에 들어간 일이 있었음. 내부는 크고 복잡하여 안내가 없으면 다시 나오기 힘들 정도였음. 박완 등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했는데, 청운면과 강진면에서만 70여 명이 희생되었음.</li> </ul>
53		정판철 정원모 한명수 박경식	박홍길 (남, 1931)	주민	목격 전문	2009.12.30. 위원회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건 이후 가족의 시신을 찾기 위해 내부에 들어가 6호굴의 시신들을 꺼내놓았는데, 그곳에서 정판철과 그 아들 정원모, 그리고 한명수의 시신을 직접 보았음. 박경식은 굴속에서 사망했다는 말을 들었음.</li> </ul>
54		폐금광 피해자	정진호 (남, 1936)	주민	전문	2009.12.06. 강진면 회진리 대영주유소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부 정삼암이 폐광에 있다가 도망쳤는데, 연기가 들어오자 어린애들이 먼저 죽었고, 폐가 안 좋은 사람들도 따라 죽었다고 함. 숙부가 굴을 빠져나올 때, 이를 발견한 군경이 집중사격을 하였으나 숙부는 총탄을 피해 목숨을 구했고 백련산으로 피신해 있었다고 함. 폐광 사건 이후 부친이 숙부의 시신을 찾는다고 굴속에 들어갔는데 모두 300여 구 이상의 시신이 있었다고 함.</li> </ul>
55		김학연	김찬기 (남, 1950)	자	전문	2010.01.16. 위원회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거주 중 고향(삼계면 홍곡리 패평마을)으로 피난 갔던 부친이 행방불명되었는데, 휴전 이후 고향 어른이 부친의 소식을 전해주었음. 폐금광에 가족의 시신을 찾으러 갔던 마을어른들이 현장에서 부친의 시신도 보았다고 함.</li> </ul>

연 번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
			이름 (성별, 출생년도)	관계	목격 전문	진술일 · 장소 (진술형태)	
56	10022 10179 10180 10183	한명수	한병서 (남, 1950)	자	전문	2010.01.08. 위원회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친은 '자수하면 살려준다' 는 경찰의 말을 전하러 폐금광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고, 사건 이후에 친척들이 시신을 수습하였다고 함.</li> </ul>
57		이명근 이석근 이진실	최경남 (여, 1938)	주민	전문	2009.12.10.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전마을에서 이석근, 이명근, 이진실이 폐광에서 죽었음. 이석근은 자식이 시신을 찾아왔고, 이진실도 시신을 찾아왔으나 이명근은 못 찾았음.</li> </ul>
58		최희구 최정남	최원주 (남, 1941)	자 제	전문	2007.07.27. 청운면사무소 (진술조서) 2009.12.07.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친과 형은 폐금광으로 숨었고, 모친은 청운국민학교에 수용되어 있었는데, 폐금광에서 사건이 있고 난 후 모친을 석방했다고 함. 부친의 시신을 모시고 온 마을 어른들이 본인도 불러 부친의 얼굴을 확인시켰음. 형의 시신은 찾지 못했음.</li> <li>●마을에서 아씨 일가 3명, 전씨 1명, 다른 이씨 1명이 사망하였음.</li> </ul>
59		박종철 외 8명	양병옥 (남, 1931)	주민	전문	2009.12.08.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향 구고리 사람 중 박종철, 박경식, 정판철과 그 아들 정영모, 박신용의 모친, 박홍길씨 형님 두 분과 누나, 형수가 모두 폐금광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음.</li> </ul>
60		김기획 김 한	박만진 (남, 1922)	주민	전문	2010.02.19.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48년 김기생이 좌익을 도운 혐의로 경찰에 끌려가 행방불명되었고 그런 이유로 그 가족 김기획과 김한이 전쟁 발발 후에 폐금광에 있다가 군경의 작전으로 사망하였음.</li> </ul>
61		전태순 일가 5명	이○○ (남, 1934)	주민	전문	2009.12.05. 마을회관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운면 석두리 중신마을에서 전상호씨 부친(전태순) 등 일가 5명이 폐금광에서 죽었음.</li> <li>●폐금광 작전에 참여했는데, 당시는 어릴 때라 사람이 죽을 거라는 생각도 안 했고, 어른들과 경찰들이 시키니까 했는데 그저 재미있는 놀이 정도로만 생각했었음.</li> </ul>
62		박경식	박병호 (남, 1946)	조카	전문	2008.02.26. 위원회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백부 박경식은 좌익활동을 하다가 수복 무렵 남산리 폐금광으로 피신했고, 경찰이 고춧대를 태워 질식사하였다는 말을 들었음.</li> </ul>
63		박경식	박연식 (남, 1938)	종제	전문	2009.12.09.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형 박경식은 인민군 점령기에 인민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폐금광으로 피신하여 경찰의 폐금광 작전 당시 사망했는데, 사건 이후 부친이 직접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하여 왔음.</li> </ul>
64		박경식	허장 (남, 1932)	주민	전문	2009.12.09.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주민 박완식의 형 박경식은 인민군 점령기에 선전부장을 했고, 수복 이후 경찰한테 죽었다는 말을 들었음.</li> </ul>

## 제 4 권

연 번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
			이름 (성별, 출생년도)	관계	목격 전문	진술일 · 장소 (진술형태)	
65	10022	이봉화 박동순 박동순의 처(전씨)	박순남 (여, 1936)	딸 동생 시누이	전문	2007.07.26. 청웅면사무소 (진술조서) 2009.12.07.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친, 오빠 내외에 함께 폐금광에 있다가 연기가 들어올 때 혼자만 살아남아 강진면 갈담리로 끌려갔다가 11일 후 지인(군인)이 빼내어 살 수 있었음. 모두 50여 명이 함께 끌려갔는데, 그중에는 박흥순도 있었음. 남아 있던 사람들은 모두 회진리 밭골에서 총살되었다고 함.</li> </ul>
66		박흥순		주민			
66	10179 10180 10183	김형술	정진열 (남, 1948)	조카	전문	2009.12.09. 자택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0년대에 밭골에 축사를 짓던 중 다수의 유골을 발견하여 마을에 문의하니, 그곳이 부흥광산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을 처형한 장소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음.</li> <li>● 이모부 김형술은 정읍 산내면 사람으로 좌익활동을 하다가 폐금광으로 피신했고, 굴속에서 살아남아 갈담리로 끌려왔다가 밭골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li> </ul>
67	10023	정인택 정학석	박순애 (여, 1930)	사돈	전문	2010.01.07. 동대일산병원 (진술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금광에서 정인택을 본 기억이 없고 정확한 사망경위도 모르지만, 폐금광 사건으로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임.</li> <li>● 정학석은 전쟁이 끝나고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음.</li> </ul>
68			양병옥 (남, 1931)	주민	전문	2009.12.08.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고리 주민 정인택은 전쟁 전에 방위소 위였지만, 폐금광에서 사망한 걸로 알고 있음. 그 아버지 정학석이 경찰에게 구타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며, 전쟁 때 돌아가신 게 아니고 나중에 병환으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음.</li> </ul>
69	10181	전창순 전상순 전기순	이○○ (남, 1934)	주민	전문	2009.12.05. 마을회관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상하씨의 부친과 삼촌들은 전쟁 기간에 사망하신 건 맞지만, 폐금광에서 돌아가신 건 아님.</li> </ul>
70			권봉조 (남, 1947)	주민	전문	2010.03.30. 자택 (전화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상하의 부친 전창순은 좌익 사상을 갖고 있었고, 전쟁 기간에 두복리 사동마을 뒷산의 속칭 '병태' 라는 굴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게 잡혀갔다는 말을 어른들에게 들었음.</li> </ul>
71			권 탁 (남, 1940)	주민	전문	2010.03.30. 자택 (전화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창순이 죽었다는 말은 들었으나 그 경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마을어른들을 통해 들은 바로는 마을 뒷산의 속칭 '병태' 라는 굴에 많은 파란민들이 있었다고 하나, 전창순씨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음.</li> </ul>



연 번	사건 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
			이름 (성별, 출생년도)	관계	목격 전문	진술일 · 장소 (진술형태)	
순창군							
1	4115	양관영	양유영 (남, 1930)	동생	목격	2008.03.27. 순창군청 (진술조서)	● 친척 양유영이 빨치산 활동을 했는데, 그의 수첩에 형 양관영의 이름이 있어 함께 활동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아 적성지서 경찰에게 연행된 후 히어태재로 끌려가 총살당했음.
2			조연임 (여, 1934)	제수	전문	2008.11.18. (전화면담)	● 결혼 후 시어머니를 통해 사숙 양관영이 1950년 음력 8월 22일 야경을 서러 나갔다가 적성지서 경찰에게 연행되어 간 후 살해당했다는 말을 들었음.
3	7930	이 씨	박선택 (남, 1935)	주인	전문	2008.8.22. 구림면사무소 (진술조서)	● 안장리 산내마을의 만일사에는 할머니 스님이 계신 적이 없음. 국군이 불을 지를 당시 빨치산만 있었고, 민간인 피해는 없었음.
4			이근형 (남, 1933)	조카	전문	2008.10.01. 자택 (진술조서)	● 고모는 스님이 아니라 보살이었고, 만일사에 60대의 주지스님이 따로 있었음. ● 음력 7월 중순에서 8월 초 사이에 빨치산이 불을 질러 소사하셨다는 말을 들었음.
5			이기만 (남, 1937)	주인	전문	2008.09.03. 자택 (진술조서)	● 국군이 만일사에 불을 지르기 전 사찰에 있던 보살 3명은 모두 피신하였고, 여자 보살이 불타 죽었다는 말은 못 들었음.
6	8864	정 씨	김용권 (남, 1934)	주인	목격	2010.09.02. (진술조서)	● 1950년 4월 24일 오전 총을 쏘며 진입하는 국군의 토벌을 피해 산으로 올라갔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때 옆집 정씨가 집 마당에 엮어진 채 총에 맞아 사망한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음. 당시 국군은 집에 남아 있던 주민들을 모두 사살했음.

〈별표 3〉 군경관련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연 번	이름 (출생년도)	소속 신분	진술일 진술장소	진술 형태	주요 진술	비고
1	김○○ (1922)	순창경찰서 경찰	2008.10.21. 자택	전화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순사건 이후 순창에서 주로 사찰계로 근무하였음.</li> <li>• 전쟁 전에 한 마을 사람 30여 명이 좌익활동 혐의로 총살된 일이 있었음.</li> <li>• 수복 후 11사단이 절차 없이 사람을 처형한 일이 있었음.</li> <li>•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오래된 사찰에 숨은 빨치산을 토벌한 뒤 실수로 그 사찰을 불태운 일이 있었음.</li> </ul>	
2	김○○ (1929)	임실경찰서 형사	2010.02.19. 자택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순반란사건 무렵 임실경찰서 사찰계에서 근무하며 구례, 남원 지역으로 작전도 다녔음.</li> <li>• 임실은 원래 남로당 세력이 강했는데, 박씨, 진씨, 엄씨가 많았음.</li> </ul>	228, 269, 폐금광

## 제 4 권

연 번	이름 (출생년도)	소속 신분	진술일 진술장소	진술 형태	주요 진술	비고
2	김○○ (1929)	임실경찰서 형사	2010.02.19. 자택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48년 10월경 임실읍에서 사진관을 하던 박훈과 박세열이 임실경찰서에 구금되어 있었던 것은 분명하나 어떤 경위로 행불·사망하였는지는 모름.</li> <li>• 폐금광에서는 부녀자와 어린이 등 죄 없는 사람도 다수 희생되었음.</li> </ul>	228, 269, 폐금광
3	박○○ (1924)	성수지서 의경	2010.01.12. 복지회관	진술 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왕방리에서 죽은 사람 중에는 진짜 좌익도 있었지만, 그 가족이나 우익 가족 등 무고한 사람도 있었음.</li> <li>• 오갑수 주임이 사람 몇을 빼돌리자 군인은 권총을 꺼내 빼돌린 사람들을 다시 불러내게 하였음.</li> <li>• 사건 이후 국회의원 엄병학이 문제를 제기하여 백골부대 책임자가 문책을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음.</li> </ul>	10010
4	서○○ (1924)	성수지서 의경	2010.01.12. 마을회관	진술 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갑수 주임이 있을 때 부역자들을 지수시켰는데, 백골부대가 와서 왕방리로 끌고 가 총살시켰음.</li> <li>• 당시 왕방리 인근에는 빨치산이 많아서, 국군은 그들의 근거지를 없애기 위해 왕방리, 오봉리, 삼청리 등의 가옥을 전소시켰음.</li> <li>• 왕방리 주민 중에는 김점동, 김수곤 부자가 그 사건으로 사망하였음.</li> </ul>	10010
5	신○○ (1925)	신덕지서 치안대원	2007.10.25. 신덕면사무소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방 후부터 1970년까지 수천리 면사무소에서 근무하였음.</li> <li>• 수복 후 1950년 11월 중순 신덕면장 신창학, 소방대장 라기환 등과 함께 신덕면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 수천리에 들어왔음.</li> <li>• 월성리에서 치안대원의 부모가 죽어 치안대원들이 횡포부리는 걸 막은 일이 있음.</li> </ul>	7700
6	이○○ (1932)	강진면 향토방위대 대원	2009.12.06. 자택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복 후 강진면 갈담리의 향방본부에서 근무하였음.</li> <li>• 국군은 강진국민학교에 주둔하였고, 초기에 위생병을 도와 환자 치료도 하였음. 군의 식량을 메고 옥정리로 따라 간 일도 있음.</li> <li>• 폐금광 작전에 참여했는데, 불이 꺼지고 내부에서 생존자를 끌어내어 군에게 인계하였음. 작전 전후로 강진면 쪽 입구에서는 쌍방 모두 총격이 없었음.</li> <li>• 부흥리의 노병기, 임막동, 이판남, 갈담리의 박창갑과 그 딸, 화진리의 정씨 몇 명이 폐금광에서 사망하였음.</li> </ul>	폐금광
7	이○○ (1926)	신덕지서 치안대원	2008.11.12. 전주 팔복동 백수경로당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50년 11월 10일부터 치안대에서 의용경찰로 근무하였음. 치안대장으로 라기환이 있었음.</li> <li>• 특공대원으로 전북도당의 도살명부를 가지고 다니며 명부에 있는 자들을 체포, 처형하였음.</li> <li>• 월성리를 담당한 황○○, 수천리를 담당한 신○○이 생존해 있음.</li> </ul>	7700
8	정○○ (1936)	청웅지서 의경	2007.07.26. 청웅면사무소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웅지서 소속으로 지서 방어근무를 주로 하였음.</li> <li>• 폐금굴로 통한 발자국을 따라가다 저항을 받아 이튿날 지서주임이 불을 붙여 토벌하는 작전을 결정하였고, 청웅국민학교에 수용된 부역자 가족들을 동원하여 작전을 시작했음. 대부분 질식사하였고, 총탄에</li> </ul>	폐금광

연 번	이름 (출생년도)	소속 신분	진술일 진술장소	진술 형태	주요 진술	비고
8	정○○ (1936)	청웅지서 의경	2007.07.26. 청웅면사무소	진술 조서	맞은 사람은 드물었음. • 시체는 유가족들에게 찾아가라고 하였으나 상당수가 수습되지 않았음. • 23세 무렵 재차 채굴을 위해 내부의 유골 200구 이상을 꺼내 폐광 입구에 매장했음.	폐금광
9	조○○ (1929)	순창경찰서 경찰	2008.12.23. 자택	통화 보고	• 1950년 가을 충신마을 막골너머 재에서 빨치산들을 공개처형하는 것을 목격하였음. 당시 총에 맞은 사람들을 확인사살하기 위해 머리에 다시 총을 쏘았음. • 수복 후 군경이 주민들을 상대로 부역혐의나 빨갱이 혐의자를 색출한 일은 있었지만, 히어태재에서 주민들을 죽인 일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음.	
10	진○○ (1931)	성수지서 의경	2009.12.13. 자택	진술 녹취	• 성수지서가 임실읍에 임시로 있을 때 의경이 되었음. • 오갑수 지서주임이 부역한 주민들에게 자수를 권유하였고, 그들을 풀어주려 하였으나, 빨치산에게 패퇴하여 성수면으로 쫓겨 온 백골부대가 자수한 주민들을 화풀이 대상으로 하여 왕방리 문바위로 끌고 가 모두 총살하였음. • 오갑수가 치안본부로 신고하여 소식이 국방부로 들어갔고, 국방부에서는 특무대를 파견하여 사건을 조사했고, 그 결과 백골부대는 해체되고 지휘관들은 처벌받았다는 소문이 돌았음. • 월령리 월골마을의 심진문이 이 사건으로 사망하였음.	10010
11	진○○ (1935)	13연대 2대대 7중 대 학도병	2010.01.15. 자택	진술 조서	• 1950년 11월 23일경 11사단이 임실읍에 왔고, 학도 의용군을 모집하여 모두 110명이 지원했음. 오수면 오수리 오수분교에서 정식으로 학도병이 되어 7중대에 배치받았음. • 청웅면 남산리 폐금광 작전에 참여했는데, 당시 굴에는 빨치산도 있었지만 주민들도 있었음. • 학교 동창인 박완이 폐금광에서 죽었음.	폐금광
12	한○○ (1931)	청웅면 향토방위대 대원	2007.07.17. 청웅면사무소 2009.12.05. 청웅면사무소	진술 조서	• 주로 경계근무를 했고, 가끔 화문산으로 토벌작전도 다녔음. • 폐금광의 빨치산을 잡으려 몇 차례 갔으나 저항을 받아 올라갈 수 없었음. • 작전 당일에는 경찰, 대원, 부역자 가족 등이 함께 불을 붙였음. 부역자 가족을 시켜 자수를 권유했으나 내부가 너무 깊어 들리지 않았을 것임. 외숙부(하남영)와 다른 2명이 내부에서 살아 있었는데 군인이 데리고 갔음. • 매형 고한구와 같은 마을의 정인환, 송태순이 폐금광에서 사망하였음. • 수색 중에는 빨치산 보초병이 들고 있던 총 1정밖에 보지 못했음. • 전상하의 부친(전창순)은 임실군당 위원장을 하였던 분으로, 어느 산속에서 경찰에게 잡혀 사망하셨음.	폐금광
13	한○○ (1934)	청웅면 향토방위대 대원 임실경찰서 기동경 찰대 의경	2009.12.07. 자택	진술 조서	• 향토방위대는 99식 소총을 소지하고 곳곳으로 토벌작전을 다녔음. 향방의 무기가 따로 있었음. 청웅면 향토방위대장은 한병우였고, 폐금광 작전 당시 청웅지서 주임은 임학종이었음.	폐금광

## 제 4 권

연 번	이름 (출생년도)	소속 신분	진술일 진술장소	진술 형태	주요 진술	비고
13	한○○ (1934)	청웅면 향토방위대 대원 임실경찰서 기동경 찰대 의경	2009.12.07. 자택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실경찰서 기동경찰대는 천도교 건물을 본부로 썼고, 회문산으로도 토벌작전을 다녔음.</li> <li>• 자수한 빨치산 중 이남순(이명 이해룡)의 활약이 뛰어나 경찰로 특채되었음.</li> </ul>	폐금광
14	홍○○ (1927)	청웅면 향토방위대 대원	2009.12.07. 자택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이 입산하여 청웅국민학교에 수용되었다가 석방된 후 향토방위대원으로 활동하였고, 후에 임실경찰서 기동대, 사찰유격대로 활동했음.</li> <li>• 한병우가 청웅면 향토방위대장인지는 정확한 기억이 없으나, 면 전체의 어른이었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살 사람도 죽고, 죽을 사람도 살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음.</li> <li>• 청웅면 남산리 원남산마을에서 김사일 부부와 그 아들 김철수 부부가 폐금광에서 사망하였음.</li> </ul>	폐금광
15	황○○ (1927)	신덕지서 치안대원	2008.11.13. 전주 전동 신희조합 2010.01.13. 풍남동사무소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50년 11월 중순부터 신덕면의 치안대(치안대장 신창학)에서 근무하였음.</li> <li>• 주로 고지 근무를 하여, 부역자 처형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나, 다른 치안대원들은 부역자를 처형한 일이 있음.</li> <li>• 인민위원회, 자위대에서 활동한 사람들은 전부 처형 대상이었음.</li> <li>• 월성리에서는 약 7~8명이 처형된 것으로 알고 있음.</li> <li>• 하태학, 홍영표 등이 마을주민인 것은 기억나나 사망경위는 아는 바 없음.</li> <li>• 임실에 주둔했던 군부대로는 백골부대만 기억나지만 사단, 연대는 아는 바 없음.</li> </ul>	7700